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1월 8일(음력 9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 602 호

복지현장 양극화 심각

노인 · 어린이분야 꾸준한 증가, 청소년 · 노숙인시설 감소
위탁시설 선호 속 '사각지대' 방치… 전문가 양성 시급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7년만에 실태조사

지난 10여년 간 불교계 노인 · 아동 ·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시설은 늘어난 반면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관련 시설은 현상유지에 급급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 불교계 복지시설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11월 1일 발표한 '불교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 분석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 2월부터 우편발송과 전화조사를 병행해 전국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총 477개로 파악됐다.

1995년에 비해 382개소, 1999년에 비해 165개소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아동 복지시설은 1995년 21개(22.1%)에서 2006년 142개(40.4%)로, 노인관련 시설은 11개(11.6%)에서 106개(27.0%)로 늘어나는 등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 · 의료 · 상담관련 복지시설은 10여년 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 시설은 1995년 15개소에서 2006년 31개소로 시설수는 늘어났지만, 전체 사회복지시설수 대비로 따지면 1995년 15%에서 2006년 6.5%로 줄어들었다.

노숙인 시설은 1995년 3.2%를 차지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겨우 1.7%의 시설만 남는 등 청소년 · 노숙인 관련 시설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여성복지 '바닥' 수준

특히 1995년 경우 전무했던 여성복지시설은 전체 시설 총수 대비 1999년 0.3%, 2006년 0.6%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 10여년 간 양적인 성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별 사업분야를 따져보아도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총 477개 시설 중 전수조사에 응한 389개 시설의 사업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아동복지분야가 169개(3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노인복지 129개(24.1%), 장애인복지 55개(10.2%)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의료복지분야를 실시하는 곳은 14개(2.6%), 여성복지분야는 11개(2.1%)에 불과했다.

양극화의 양 끝에 위치한 노인복지분야와 청소년 · 여성분야 시설 사업유형을 따져보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요양시설(20.3%), 주간보호시설(18.7%), 무료급식소(15.9%), 노인복지관(12.1%) 등이 고르게 운영되는 반면 청소년복지시설은 공부방과 독서실이 대부분(60.4%)을 차지했고 결손가정 청소년보호시설은 단 한 곳 뿐이었다. 여성복지분야 역시 상담소가 전체 중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1곳, 모자원이 1곳을 차지해 명백히 '편향'된 운영양상을 보였다.

불교계 복지시설 뿐 아니라 법인에서도 이러한 '편향'과 '양극화'는 발견된다. 총 107개로 파악된 불교사회복지관련 법인 · 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노인복지가 22.0% 아동복지 14.8% 장애인복지 13.2% 순으로 목적사업이 나타났다. 역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여성복지(3.9%)였다.

소외계층 '소외' 여전

불교계가 여성복지시설과 같은 소단위 시설운영을 외면하게 된 이유는 정부시책에 부합되는 복지분야에만 투자와 관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저출산 · 고령화대책'과 맞물리면서 불교노인복지분야는 급물살을 탔지만 여성이주노동자, 여성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경도대학 사회복지학과 전보경 교수는 "2004년 교구 본말사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불교사회복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분야는 향후 관심대상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우려하며 "소외계층과 사회빈곤층, 여성에 대한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중 전체의 65.6%에 이르는 255개소의 시설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고, 불교계 직영시설은 134개소(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위탁시설 비중은 종단별로 천태종이 100%, 진각종 80% 조계종 65.9% 태고종 60.0%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적 팽창보다 인프라 구축을

개신교계 직영시설 비율이 79.7%(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조사 기준)에 이르는 등, 타종교계가 직영시설 비율을 늘리기 위해 힘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70년대부터 꾸준히 복지를 통한 선교를 펼쳐온 타종교의 경우 직영시설을 조금씩 늘리는 등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반면 복지분야에 뒤늦게 뛰어든 불교계는 정부의 복지시설을 위탁하면서 인프라 구축보다 양적인 성장을 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 뿐 아니라 불교복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임해영 선임연구원은 "정부위탁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불교적 종교성을 직접적으로 구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향후 불교계도 정부위탁의 비중을 낮추고, 복지시설 다각화와 영역확장을 통해 균형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11월 3~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첫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열렸다. 3일 열린 아동미술큰잔치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에게 매직풍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자비 가득한 세상 우리가 만든다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성황

불교사회복지인들의 축제인 '불기 2550년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11월 3~4일 서울 조계사 권역에서 개최됐다. 11월 3일 불교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동미술큰잔치'로 시작해, 이틀간 '지속가능한 불교사회복지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기념법회,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 불교사회복지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한 대회의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또 3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된 불교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수효사 효림원 대표이사 무구 스님,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총무기획과장 박은아씨, 연화복지의원 이건식 행정원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최종환 부장이 올해의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은비 기자

"3년후 어린이법회 사찰 3배로"

포교원, 주지인사고과 반영 등 3개년 계획 내놔

불자 청소년의 포교를 책임질 조계종 포교원 산하 어린이 · 청소년 포교팀 구성이 완료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앞으로 3년 내에 현재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수를 3배로 늘리고 2만4천명의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포교하겠다는 야심찬 3개년 계획도 내놓았다.

그간 어린이 · 청소년포교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법회는 전국 300여개 사찰에서 1천여명의 지도자 아래 약 1만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찰의 예산부족과 어린이 · 청소년법회 지도자의 부재, 법회관련 콘텐츠 부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포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어린이 · 청소년포교팀은 3년간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도 및 조직 정비 △지도자 양성 및 관리 △어린이 · 청소년포교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교재 교구 개발 등 4개 분야를 육성 ·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세부계획도 잡혔다. 오는 11월 11일 조계사권역에서 '어린이포교 전진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종단 안팎으로 어린이 · 청소년포교의 의미를 천명하는 한편, 연내로 어린이포교 관련 단체협의회를 구성한다. '찾아가는 법당' 프로그램도 올해 연말부터 가동된다.

'찾아가는 법당'은 (사)동련,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어린이 · 청소년포교 현장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사찰을 대상으로 '법회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 내년까지 총 12사찰의 어린이법회 개설을 도울 예정이다.

이어 2007년에는 어린이포교 의무화 및 주지 인사고과 반영을 입법화하고, 사찰 예산 중 일정비율을 어린이포교비로 책정토록 의무화하는 등 법령제정에 힘쓰고, 2008년에는 입법화된 종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도자 인력은 행 및 권역별 지도자모임을 운영해 인력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이은비 기자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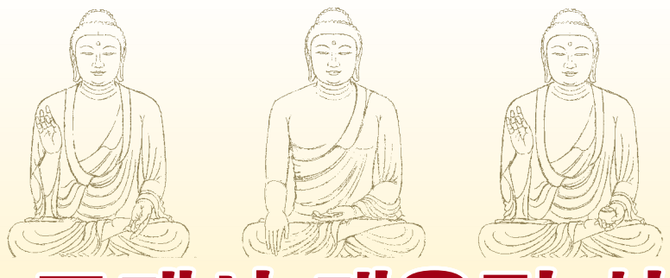


시방세계 9면
수도권사찰 학생법회 체육대회
산문밖의 禪
최유현 자수장 17면
중앙종회의원선거를보고 15면
수행지도자에게 듣는
생활 속 수행, 어떻게? 18면
봉선사 강설대법회
각성 스님 '해심밀경' 24~25면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우룡 스님
정토삼부경/11월 11일
봉선사 설법전, 031)527-1951~3



빛고을불교아카데미중계 4면
11월 8일 오후 7시, 수진 스님 '설산수도상'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대웅전 삼존불 점안식

석가모니불의 대각과 아미타불의 48대원, 약사여래불의 12대원을 통해 조계사는 대중과 함께하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불기2550년 11월 14일 화요일

1부 : 점안식 (08:30-10:00) 증명법사 :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 / 법주 : 조계종 어장 동주
2부 : 봉불식 (10:00-11:00) 3부 : 헌공 (11: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누·가·될·까?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원택 스님

제14대 중앙종회의장(전반기)



보선 스님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원택 스님 활동력 담보로 '원력'

종회의장 보선·자승 스님 자천타천 '물밑작업'

조계종 제14대 전반기 중앙종회의 첫 개원을 앞두고 이번 종회에서 '임명동의' 될 제5대 포교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원택, 혜총 스님이 거명되고 있다.

원택 스님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총무원장 스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이다.

혜총 스님 또한 (사)동련 총재를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이 장점으로 꼽힌다.

원택 스님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같은 해인사 문중이고 혜총 스님은 지관 스님의 상좌라는 점에서 두 스님 모두 '정실 인사'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포교법'에 따르면 포교원장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서 행해가 청정하고 학덕이 탁월해 포교에 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11월 13일 개원 첫날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될 종회의장 선거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찍부터 중앙종회 의장 출마 의사를 밝혀온 보선 스님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혁종단 이후 종회가 제기능을 못했다는 평도 있는데 종단 발전을 이끌어 가는 화합종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제 기능을 못한 법령들을 승가에 맞게 개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종책모인인 금강회와 보림회 스님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보선 스님은 제13대 중앙종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보선 스님 이외에 출마 의사를 밝힌 스님은 아직까지 없지만 이번 종회선거에서 대 약진을 한 종책모임 화엄회의 자승 스님과 지명 스님도 거론되고 있다.

자승 스님은 "아직까지 출마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종회 개원 이전까지 스님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해 하마평을 부인하지 않았다. 자승 스님은 3선 종회의원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타천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지명 스님은 "출마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식·남동우 기자

지안 스님 강맥 전수

10일, 은해사서 7명에



조계종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사진)이 처음으로 후학에게 강맥을 전한다.

지안 스님은 11월 10일 오전 11시 은해사 대웅전에서 승가대학원 제3기 졸업생인 현봉 양관 자응덕선 보문 스님과 정묵 신공 스님 등 7명의 후학에게 강맥을 전한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이은 지안 스님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10년(1978~1988)간 강주를 역임했다. 임연태 기자

통도사 산중총회 성원 미달

통도사 산중총회가 또 무산됐다. 통도사는 공석중인 방장선출을 위해 11월 2일 오후 2시 산중총회를 소집했지만 개회 정족수인 196명에 못 미치는 166명이 참석해 총회가 무산됐다.

이날 산중총회가 유회되자 주지 직무대행 산옹 스님은 "주지 직무대행을 맡은 3개월 이내에 산중을 정상화하기 위해 산중총회를 서둘렀으나 오늘 이렇게 유회돼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10월 31일 선암사에서 봉행된 제30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모습.

태고종 예비승려 173명 '합동득도'

선암사 금강계단서

태고종은 10월 31일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30기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회향하고 사미 130명 사미니 43명 등 173명의 예비승려를 배출했다. 특히 이번에 배출된 예비승려 중에는 SBS 모 아나운서의 아버지도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장 법장 스님을 교수사로, 사정원장 월운 스님을 갈마사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전계사로 실시된 수계식은 조사이운, 삭발의식, 연비의식, 가사정대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속의 탐·진·치 3독을 여의고 자신을 청정히 하여 중생제도와 전법도생을 다하는 수행자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10월 8일부터 매일 1천배 정진, 1보1배, 기초습의, 예경의식 부처님의 생애, 태고종지종승, 초발심 자경문, 기본습의 및 위의문, 태고종사, 불교기초교리, 예경의식, 불교분규사, 참선개요, 불교학 개론, 유교경 강설 등의 강의와 득도고시로 진행됐다.

이번 수계 득도 법회에 참석한 행자들은 27일 사후 장기 및 시신 기증 서약과 함께 헌혈 행사를 가졌다.

행자승 173명은 대웅전 앞 만세루에서 생명나눔 실천본부 광주지사에 장기 및 시신 기증서를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불국·관음사 재선거, 금산사 보궐

3일 중앙선관위 결정

조계종 제14대 직선직 교구종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46명의 스님들이 전원 당선 확정됐다.

선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불국사와 관음사는 재선거가, 금산사는 보궐선거가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11월 3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6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두식 기자



오현(맨 왼쪽), 진허 스님과 백담사 경내를 둘러보는 이명박 前 서울시장(맨 오른쪽).

"불교의 포용력 배우러 왔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백담사 등 방문

한나라당 대권 유력 주자 이명박 前 서울시장이 '설악 불심'을 찾았다. 이 전 시장은 10월 31일 오후 만해마을을 방문,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 등 지역 스님들을 만났다.

이 전 시장은 "한 세대 전에는 대부분이 불교적 정서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세월과 인연을 따라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도된 종교편향적인 사안들과 관련해 불교의 포용력을 배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해마을에서 묵은 이 전 시장은 1일 오전 백담사와 낙산사를 방문했다. 임연태 기자

중앙선관위원장 징계요구

실천승가회 입장발표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효림)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월 2일 발표한 '개원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에서 실천불교승가회는 "중앙선관위 혼란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중선위원장에 대해서 단호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단행함으로서 실추된 종단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독단적 전횡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중앙선관위를 종단에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종도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서 종도들이 고견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총장 공개모집

동국대가 차기 총장을 공개 모집한다. 응모자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스님),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교수일 경우 10년 이상 동국대에 재직해야 한다.

11월 16일 오후 5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직접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02)2260-3005~7

남동우 기자

제3기 수강생 모집

불교서울전문강당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이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스님 50명과 일반인 20명이며,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수학 희망자는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등을 첨부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교육원(02-2011-1810)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교사인 경우 포교사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불자인 경우 신도증 사본 또는 수계증명, 불교교양대학 졸업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사찰 주지 수료자는 당해연도 본말사주지 연수교육이 면제되며, 2001년 이후 구족계 수지자는 2년 4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불교서울전문강당은 전통 강원 교과목에 대한 출·재가의 교육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 강의를 개설해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과목으로는 〈초발심자경문〉X〈서장〉〈도서〉〈육조단경〉〈선요〉〈원각경〉〈능엄경〉〈금강경〉〈기신론〉〈화엄경〉등이 있다. 남동우 기자

선암사 '물리적 충돌' 재연

3일 前주지측 종무소 접수

태고종 선암사 사태가 해결기미 없이 표류하는 가운데 前 주지측 신도들이 종무소를 점검해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재현됐다.

이번 사태는 11월 3일 오후 1시경 선암사 경내에 있던 前 주지측 신도 150여명이 몰려와 20여일간 종무소를 장악했던 현 주지측 스님들을 밖으로 몰아낸데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스님들이 부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前 주지측 대변인 경담 스님은 "그간 보여준 총무원측의 무성의한 태도는 협상의 여지조차 남겨주지 않았으며, 앞으로 대화를 통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신도들까지 동원한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총무원장 남정 스님 유임

총화종 대폭 인사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11월 2일 총본산 수진사에서 59차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총무원장을 비롯해 간부급 스님들의 인사를 대폭 단행했다. 제 14대 총무원장에는 현 원장 남정 스님이 만장일치 유임됐다.

다음은 종회의장 등 간부명단.

△종회의장 만재 스님 △문화원장 도명 스님 △교육원장 남은 스님 △호계원장 혜각 스님 △선원장 청해 스님 △선거관리위원장 고담 스님 △사회부장 대암 스님 △호법부장 민호 스님 △감찰원장 혜암 스님 △포교원장 고봉 스님 △기획실장 현오 스님 △총무부장 남오 스님 △교무부장 설오 스님 △재무부장 지산 스님 △조직부장 여산 스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축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창립 축



인|사|말|씀

우리 佛敎는 반만년의 歷史와 더불어 민족과 함께 슴쉬며 그 傳統을 이어오면서,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기고 國家와 社會發展을 이루는 精神적 지주로서 그 役割을 다해 왔습니다.

금번 지관 큰 스님을 증명으로 하여 創立法會를 奉行한 우리 釜山佛敎指導者 포럼은, 앞으로 올바른 佛敎思想 및 正法을 弘布하고 佛敎文化暢達과 더불어 각 신행단체와 學術·文化的 交流를 이루어 나가면서 佛敎社會福祉活動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創立法會를 장엄하기 위해 동참해 주신 여러 대덕스님들과 佛敎指導者 및 信徒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감사드리며, 佛者 여러분들과 약속한 바대로 우리 釜山佛敎指導者 포럼이 참된 佛敎理念의 실천과 더불어 정법홍법의 發源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좋은 날

釜山佛敎指導者 포럼 會長 설 동 근

특별 고문단

조 길 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 영 욱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강 희 락	부산지방경찰청장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창립회원 명단 (가나다순)

연번	성 명	소속신행단체	직장·직책
1	강 갑 균	불교산악인회 부총재	(주)홍림건설 대표이사
2	강 기 원	선암사 신도회 부회장	교육위원
3	강 선 태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대성한의원장
4	강 인 용	해인정사 신도대표	(주)부산플라스틱 대표이사
5	공 영 석	범어사	부산은행 덕포지점장
6	권 동 칠	동명불원 신도회 이사	변호사
7	권 청 길	포럼 이사	(주)BH월드 회장
8	김 경 환	여여선원 신도회장	돌담 대표
9	김 권 식	포럼 이사	(주)마이비 대표이사
10	김 부 곤	미타암	(주)육성화학 대표이사
11	김 상 훈	포럼 이사	(주)BH월드 감사
12	김 성 규	연제암	미월드 대표
13	김 성 태	통도사 반야암	(주)동일조선 대표이사
14	김 수 연	불광사	(주)국제미디어 대표이사
15	김 승 영	운문사	(주)금영 대표이사
16	김 영 삼	범어사 신도회 부회장	부산발전연구원장
17	김 장 현	범어사	김장현치과 원장
18	김 재 운	포럼 이사	(주)동양골드프라자 회장
19	김 재 진	범어사	(주)경동건설 회장
20	김 정 선	포럼 이사	교육위원
21	김 종 백	포럼 이사	(주)동일전기 대표이사
22	김 종 한	연화사 신도회장	(주)무성토건 대표이사
23	김 준 규	통도사	해운대소방서장
24	김 진 성	용궁사 신도회 이사	학산여고 교장
25	김 진 하	포럼 이사	현대백화점 점장
26	김 창 오	영주암 신도대표	해운대고 교장
27	김 철 윤	문수사 신도회장	지산건설 대표
28	김 형 대	삼광사 신도회장	선화상사 대표
29	노 종 헌	대성암 신도대표	(주)종로금속 대표이사
30	박 남 규	범어사	창원대학교 전총장
31	박 능 진	고심정사 사무국장	청송목재 상사
32	박 범 규	선암사	사하경찰서 수사과장
33	박 상 호	해인사	(주)신태양건설 회장
34	박 수 관	맑고 향기롭게 부산 본부장	(주)영창신기술 대표이사
35	박 영 근	원효암	인제대 교수
36	박 영 병	부경대 교수 불자회장	부경대 회계학과 교수
37	박 영 세	공무원 불자연합회 부회장	해운대부구청장
38	박 종 익	범어사	(주)삼익ITR 회장
39	박 차 수	운수사	한전부장
40	박 형 주	청룡사 신도회장	부흥상사 대표
41	박 홍 근	범어사	구포성심병원장
42	박 효 근	포럼이사	(주)성광테크 대표이사
43	배 도 정	관음사	한비건축사 대표
44	배 상 진	포럼 이사	KVTV 대표
45	배 영 호	삼광사 이사	(주)일흥금속 대표이사
46	백 창 욱	포럼 이사	(주)대명전력 대표이사
47	설 동 근	선암사 신도회장	부산시 교육감
48	손 종 현	포럼 이사	(주)흥광산업 대표이사
49	손 중 식	금강암 신도대표	청소년개발원장
50	손 태 석	금강암	해동중학교 교장
51	송 문 일	불교법조인회 부회장	변호사
52	신 영 만	구룡사	부산태영합동관세사 대표
53	신 재 철	순흥사 신도대표	(주)거성ENG건축 회장
54	신 태 용	통도사	회계법인 이촌
55	안 덕 우	보타원 신도회장	기장군 부군수
56	안 병 호	내원정사 신도회장	(주)국제통신 대표이사
57	안 천 일	범어사	(주)엠제이테크 대표이사
58	안 호 광	포럼 이사	팔로마패션 대표
59	양 재 생	홍법사 신도대표	(주)은산해운항공 대표이사
60	오 권 석	포럼 이사	(주)코리녹스 대표이사
61	유 석 영	법해사	부산불교신협
62	유 용 태	포럼이사	(주)유성해운 대표이사
63	윤 종 경	금용암 신도회장	윤내과 원장
64	이 상 락	법연원 신도회 대표	(주)우진건설 대표이사
65	이 상 수	해원정사 신도회 수석부회장	(주)디와이테크 회장
66	이 시 영	금용암	한국문화교류재단이사장
67	이 윤 희	금용암	(주)태금정 회장
68	이 재 동	보광사	(주)대우STI 대표이사
69	이 종 우	사명사	울산지방검찰청 사무국장
70	임 장 근	선암사 신도회 이사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71	임 정 웅	범어사	(주)정우실업 대표이사
72	장 남 인	통도사	(주)덕인산업 대표이사
73	장 병 주	운수사 신도회장	주엘엔지니어링 대표
74	전 광 수	해운정사	(주)이진종합건설 대표이사
75	전 영 일	안국선원 운영위원	동아대경영학부 교수
76	정 범 호	관음사	(주)양보 대표이사
77	정 연 식	통도사 신도회부회장	(주)태영환경 회장
78	정 원 종	범어사	부산은행 부행장보
79	조 규 성	수덕사 신도대표	(주)다이테크 대표이사
80	조 길 제	범어사	(주)금호NT 대표이사
81	조 우 래	동명불원	변호사
82	조 효 식	범어사	(주)고려화공 회장
83	천 병 태	금련사	부산대 법대교수
84	최 삼 섭	통도사 포교원	(주)대원플러스건설 대표이사
85	최 석 태	포럼 이사	KBS 총괄국장
86	최 용 태	포럼 이사	(주)남북수산 대표이사
87	최 익 두	공무원 불자연합 회장	상수도사업본부장
88	최 창 수	용궁사 신도대표	최창수치과 원장
89	최 칠 관	금용암	(주)노벨화학 회장
90	하 만 경	교수불자회 부회장	부경대 교수
91	하 문 원	범어사 신도회 부회장	(주)호산GND 대표이사
92	허 성 하	안국선원 운영위원	(주)금호지질 대표이사
93	허 인 구	해운정사 부회장	(주)DSE 대표이사
94	허 창 선	포럼 이사	(주)명성교통 대표이사
95	홍 성 률	포럼 이사	부산시 의원
96	황 희 성	안국선원 신도회 부회장	동아대 치의학 교수

재가연대 '1만가족 공동체' 나선다

새 집행부 상임대표에 김동건 변호사 추대

불교개혁운동을 전개해온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참여불교운동을 확산시키는 활동으로 제2도약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월 2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김동건 상임지도위원(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을 새 상임대표로 추대했다. 창립부터 7년여 동안 재가연대를 이끈 박광서 현 상임대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활동에 전념하며 당연직 공동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이 외에도 김희욱 교단자정센터 원장, 백경남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림 조계종중앙신도회 부회장, 윤천수 (사)불교아카데미 이사장, 이민용 재미 불교학자, 이수덕 前 불교TV 사장 등도 공동대표로 재가연대를 이끌어 나간다.

재가연대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계기로 7년간의 활동을 통해 쌓인 내적 역량을 사회속에 좀 더 구체


김동건


박광서


김희욱


백경남


김성림


윤천수


이민용


이수덕

화하고 대중화하는 운동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불교리더 발굴과 네트워크화에 주력한 그동안의 활동에서 회원 확대를 통한 '1만 가족 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건 상임지도위원을 새 상임대표로 추대한 이유도 불교의 사회화운동과 참여불교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선택이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법조인 불자모임인 서초반야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전개해 온 인물이다. 온화하면서도 소신있는 성격을 지녀 재가연대가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불교사회화 운동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999년 조계종 폭력사태를 계기로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로 결성된 이후 박광서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불교계의 개혁운동과 재가불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면서도 산하에 교단자정센터와 (사)불교아카데미, 참여불교네트워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찰경영연구소, NGO리서치 등 전문기관을 설치해 활동반경을 점차 확대하며 '참여불교'의 새 영역을 개척해 왔다. 제4기 집행부는 11월 25일 오후 3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공식 출범한다.

김동건 새 상임대표는 "활동영역을 불교계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넓은 안목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NGO로 자리잡아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제인구달 박사 빈그릇운동 동참

8일 화계사서 '희망의 밥상' 강연·발우공양

세계적인 생명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영국의 제인 구달(Jane Goodall · 사진) 박사가 11월 8일 오후 4시 서울 화계사를 찾아 '희망의 밥상 환경강연회'를 개최한다. 또 화계사 대중 스님 등과 함께 '빈그릇 운동'에 동참하는 발우공양을 하며 식생활 개선 캠페인을 벌인다.

제인 구달 박사는 환경강연회에서 '희망의 밥상'과 발우공양의 현대적 의미로서의 빈그릇 운동에 대해 1시간 동안 강연을 펼친다. 이어 발우공양을 직접 체험한 뒤 6시부터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 국제선원 대중스님 등과 함께 차담을 나눌 예정이다.

제인 구달 박사는 1960년부터 탄자니아 곰비국립공원에서 야생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전 세계



를 순방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강연을 펼치고 있다. 1995년에는 침팬지에 관한 연구와 환경보호 교육에 대한 업적으로 영국 왕실로부터 민간인 최고명예인 CBE(Com mander of British Empire) 작위를 받았다. 제인 구달 박사는 지구 생태계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제안을 담아 <희망의 밥상>을 저술하는 등 활발한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북핵반대 운동본부 종교문화축제 난입 사과

7대 종교의 문화행사인 종교문화축제 무대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북핵반대 ·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천만인 서명운동본부(공동대표 김성은, 이하 북핵반대운동본부)측이 11월 1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사무국을 방문, 사과했다.

북핵반대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서경석 목사(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와 송진섭 조직본부장, 김병관 서울시재향군인회장 등은 종지협 운영위원장 지원 스님(조계종 사회부장)과 운영위원 홍창진 신부(천주교주교회의 종교간대화위원회 총무)와 만난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7대 종단의 행사 공연이 중단되고 사람까지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3년간 87억여원 교육부서 지원 받는다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교육인적자원부 시행 2006년도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정부로부터 3년간 총87억 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2008학년 입학정원을 5% 추가 감축하고,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따라 특성화분야로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Asia분야(불교학, 지역학), Bio분야(생명과학), Culture분야(영상문화콘텐츠), IT+NT분야의 특성화와 전문대학원(MBA, Law School) 개원 및 인가를 추진하며, 경주캠퍼스는 문화 · 관광분야, 환경 · 에너지분야, 생명한방분야, 일산캠퍼스는 임상의학(Medical School), 기초생명과학 분야, 의생명과학 분야로 특성화를 추진한다. 남동우 기자

여성개발원, 기금마련 바자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11월 16~18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제1회 불교여성인재양성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한다.

바자회에서는 김해자(중요무형문화재 107호 누비장)씨의 누비승복과 정경연 교수(홍대 섬유미술학과)의 판화, 주한 미국 대사 부인 리사 버쉬바우(공예가)씨의 브로치 등 예술가들이 기증한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02)722-2101

여수령 기자

'불교뉴라이트' 이달 27일 창립

흥교·혜총·일면 스님 동참

불교계에도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11월 27일 창립된다. 일반사회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김진홍)의 불교조직인 불교뉴라이트가 그 것.

불교뉴라이트 발기인대표 장산 스님(서울 대각사 주지)은 "대한민국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국민문화운동에 불교계가 동참하고 선진 대한민국 건설과 평화통일에 일조하기 위한 불자 애국운동 차원"이라고 창립목적을 밝혔다.

불교뉴라이트는 향후 뉴라이트전국연합에 참여하면서 세미나와 강연회를 열어 불교계 내 뉴라이트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또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정치지도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불교뉴라이트 발기인에는 대각회 이사장 흥교,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장 혜총, 前 조계종 총무부장 선용,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구장 일면 스님 등 100여명의 스님과 이기표 부산보현의집 원장, 손양호 한국관광정보센터 이사장, 이학송 광동고 교장, 양성홍 조계종 포교사단장, 김진관 서울광역신도회장, 정인악 남양사 대표 등 100여명의 재가불자가 참여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용인 대덕사, 공사장 소음·먼지로 '몸살'

용주사 용인포교당인 대덕사(주지 탄탄)가 사찰과 인접한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대덕사 주지 탄탄 스님은 "사찰 주변의 산을 파헤치고 공장을 짓는 공사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되면서 공사소음과 먼지가 발생해 종교행사와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법회 참석인원이 1/3 가량 줄었고, 나무를 모두 베어내 도량이 외부에 노출돼 경관이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대덕사는 공장과 도량 사이에 완충림을 조성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제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봉영 기자

천성산지킴이 지율 스님 업무방해 혐의 집유 2년

경부고속철도가 관통하는 천성산 환경보전운동을 펼쳐온 지율 스님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3 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건설구간의 공사를 저지한 지율 스님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율 스님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지율 스님)은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천성산의 자연생태계 파괴를 주장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영동군, 영국사 부도탑 해체 보수과정서

사찰에 통보않고 발굴 물의

영동 영국사 부도탑 해체보수 공사와 관련해 영국사와 영동군청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영동군청은 기울어져 있는 영국사 원구형부도(지방유형문화재 186호)를 바로 세우기 위해 10월 18일 해체보수 공사를 시작했지만 사전에 사찰 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공사 중 부도아래서 매장유물(유리염주 2점, 금속으로 만든 반지 2점)이 발견됐지만 유물발굴전문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장유물을 발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숙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해체보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화재 관리 · 소유자에게 공문 등의 서류를 통해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비단 영국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사찰 성보에 대한 올곧은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행정 절차를 밟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청은 10월 31일 영국사 원구형부도 보수 공사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하고 영국사 측에 공식사과의 뜻을 전했다.

노병철 기자

평불협, 北 건축자재 지원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상임대표 법타, 이하 평불협)가 북한에 건설중인 불교복지시설에 쓰일 7만달러 상당의 건축자재를 지원했다.

평불협은 10월 23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에 변압기, 고압케이블, 페인트와 의류 5000점 등을 북한으로 보냈다. 그간 생필품 위주의 지원과 달리,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자재지원은 대북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불교도연맹이 건립중인 불교복지시설은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로 평양 고려호텔과 200m 거리에 세워진다. 박봉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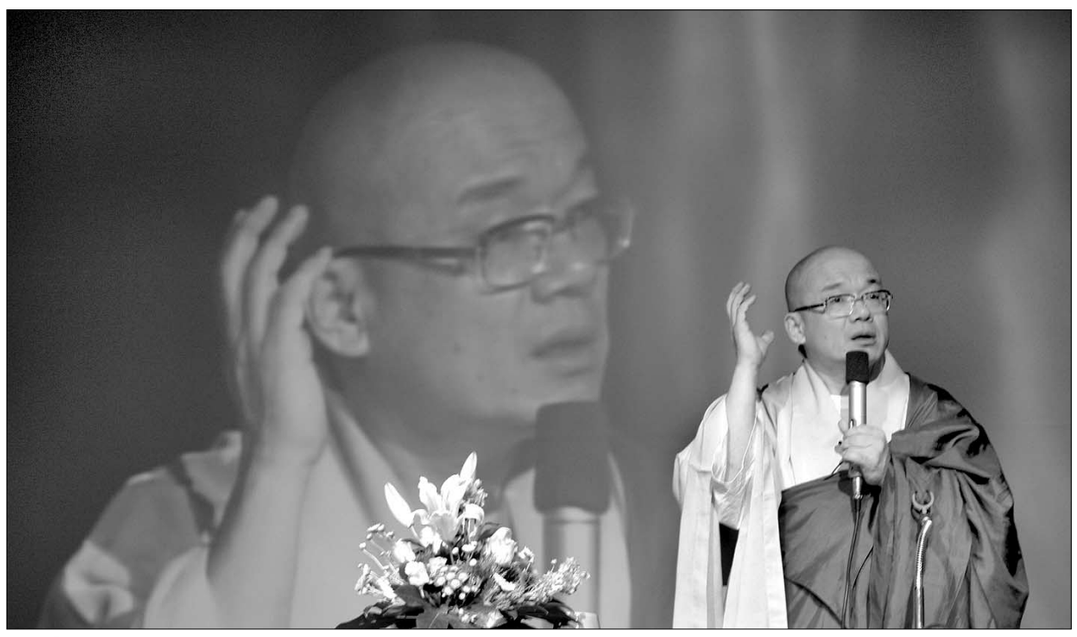
인간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제4강 : 유성출가상)

광주불교사암련 · 현대불교 공동주최

지광 스님(서울 능인선원 원장) / 11월 1일

비우면 채워지고 버리면 도리어 얻게 돼



'유성출가상'을 주제로 11월 1일 열린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네번째 법회에서 지광 스님은 "삶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고 버림의 미학 속에서 살라"고 당부했다.

위대한 포기, 성(城)을 넘어 세상을 향하다

우리의 삶에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의 근본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하다가,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출가하십니다.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은 바로 버림의 미학입니다.

불교가 부처님이 출가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불교는 버림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꾸 버리고, 벗겨내는 종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벗겨내어 알맹이가 드러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떠나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오십년이나 백년 후까지 존재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 남아계실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깃덩어리를 하나씩 뒤집어쓰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허깨비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육신을 짊어지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임종을 맞이하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애석해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임종의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떠날 때 말없이 떠나는 이들을 만나기 어려워요. "아, 정말 나는 인생을 의미있게 살았다. 이제는 떠나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뭔가 아깝고 미진하고 안타깝게 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 버리고 비워야 합니다. 다 버리면 그 자리에 부처님이 현신하시는 것입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버리면 도리어 얻게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도를 위해서 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모든 불행은 던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배격하는 단어가 '집착'과 '애착'입니다. 집착과 애착은 뭔가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애착이라는 마음이 덩어리를 만들고, 고혈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병을 만듭니다. 돌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호흡도 나가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순환 되어야 합니다. 내보내려고 하지 않고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니까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 모든 불행, 집착과 애착에서 발생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말은 '생각(念)'입니다. 이른바 생각이란, 현실과 영혼의 접점 같은 것입니다. 왜 염불, 기도하라고 하는가요. 매순간마다 부처님 생각을 하고 염불하면 부처님 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화두일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이처럼 생각을 중요시합니다. 생각이 운명이고 인생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뜻은 생각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좋은 뜻이 있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나쁜 뜻이 있으면 나쁜 길이 열립니다. 운명의 행로가 생각으로 갈라져 버리고, 생각으로 생사가 갈라져 버립니다. 결국 매일매일 생각생각에 죽고 사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한 불자인가' '나는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사는가'하고 자꾸만 자기에게 묻고 참구하세요.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화두의 하나인 '이뭐꼬'도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이 참다운 불자인가, 참다운 인간인가'를 묻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禪)의 궁극 대상입니다. 자꾸 자기에게 묻다보면 참다운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을 철저히 투철하게 정리하는 삶, 그게 불자의 삶입니다.

불교는 버림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리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버리는 마음 가운데 꼭 명심하실 것이 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원력과 욕심은 다른 것입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부처가 되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원입니다.

욕심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원력은 무량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삼독심을 버리면서 계속 번뇌를 벗겨내면 거기서 무서운 힘이 나옵니다. 기도를 자꾸 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목표를 세워서 이뤄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한 자비의 존재, 사랑의 존재, 무소불능인 무한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내 마음에 그린 집을 설계도에 그려냅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은 어디 있던 것인가요. 바깥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던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원력은 강한 기도의 힘으로 이미 존재하는 원을 마음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기도힘을 통해 자꾸 끌어내고, 현실화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원입니다. 번뇌를 벗겨가면서 순수한 부처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십시오.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지금도 이 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삶과 죽음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열반경>에 '항상 죽음을 인식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죽음과 친구가 되어 살아라, 죽음을 철저히 생각하면 삶이 빛납니다.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철저히 생각하면 순간순간이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치열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기껏 살아도 백년도 못 삽니다. 그런데 은하계는 10만 광년이나 되는 우주입니다. 빛이 10만년을 달려야 합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돌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심력, 구심력이 있어서 돕니다.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가 24시간이고 365일만에 태양을 한바퀴 돕니다.

경전에 보면 지구의 백년이 하루인 별이 있고, 천년이 하루인 별, 만년이 하루인 별, 겁이 하루인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중심이 되어 오만 명의 사람을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늘어선 사람들이 은하계가 돌듯 사람마다 자전 공전하면서 돕니다. 그렇게 일제히 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2만번째의 사람은 3만번째의 사람보다 회전속도가 느릴 것이고, 만번째보다는 회전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즉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전이 빨라집니다. 그래야 같이 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하계도 중심 쪽으로 갈수록 낮과 밤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의 100년이 하루인 별이 실제로 있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생각하고 답해야

욕심은 개인적, 원력은 무량중생 위한 것

우리 몸은 고체와 액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응집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깁니다. 벗기고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끌어들이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집착입니다.

3만번째 지구는 2만번째 별보다 회전속도가 빠르니까 딱딱하게 고체와 액체로 응집 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속도가 느려지면 응집력이 약해져서 중력을 적게 받습니다.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응집력이 강하고 집착력이 강해서 덩어리가 생기지만, 자꾸 베풀고 벗기고 내보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져서 뜨게 됩니다.

베풀고 펼치면 내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 실제로 천당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승화되면 천당극락에 가는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은 우리가 마음의 수행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화엄경>에 중생들의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태어나는 나라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급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갈고 닦는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출가하는 마음, 베풀고 펼치고 벗기는 마음, 집착을 없애는 마음은 나를 띄웁니다. 번뇌를 벗기면 고체성 액체성이 깨져버려 한없이 가볍게 됩니다. 집착이 강한 인간은 고체와 액체의 응집력이 강해지고 점점 하등으로 내려갑니다.

▷ 죽음 철저히 생각할 때 삶 빛나

경전에서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루 밤 하루 낮에 만 번 죽고 만 번 태어나는 중생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허망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주를 돌고 돌면서 우리는 완전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 반, 남을 생각하는 마음 반이 되어야 인간으로 온다'고 설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40,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60이면 하늘의 신장이 됩니다. 팔부신장천에 태어납니다. 점점 가벼워져서 뜨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생각하는 마음 60,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40이면 축생으로 떨어집니다. 이처럼 인간은 마지노선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같아야 인간으로 오는 것입니다.

뭔가 비우면 채워지고, 베풀면 오게 되는 것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공을 살짝 던지면 가볍게 튀어나오고, 세게 던지면 세게 튀어나옵니다. 안이비설신의를 항상 부처님 전에 회향하세요. 삶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기를 벗겨보기 바랍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버림의 미학 속에서 사세요.

부처님은 유성출가에서 '모든 것을 버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생동안 다 버리고, 걸식하시다가 한줌의 재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한줌의 재가 됩니다. 버리고 던지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여 광주를 불심의 고장으로 만드는 역군이 되기 바랍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임 원 공 고

대한불교 총화종

종정 이동광 부종정 **주인현 최혜산**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최만재	호계원장	김혜각	총무부장	엄남오	조직부장	이여산
교육원장	이남은	문화원장	신도명	사회부장	윤대암	호법부장	조민호
감찰원장	김혜암	선원장	박청해	재무부장	박지산	기획실장	박현오
포교원장	김고봉	선관위원장	조고담	교무부장	강설오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서울(남)제4교구종무원장	이내역	충청교구종무원장	신근식	울산교구종무원장	백만우
서울(북)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경기(북 부)종무원장	유법경	대전교구종무원장	윤명환	부산교구종무원장	최만재
서울(남)제1교구종무원장	김혜각	경기(동,남)종무원장	최일광	경북교구종무원장	서해능	전북교구종무원장	이법해
서울(남)제2교구종무원장	엄자혜	경기(성 남)종무원장	정법연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김현산
서울(남)제3교구종무원장	김범능	경기(서 부)종무원장	김혜암	경남중부교구종무원장	박심공	제주교구종무원장	전신오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 홈페이지 : http://www.chonghwajong.org

전화 031)592-8891 / 팩스 031)592-8892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부처님 가르침 '룽'

한국서 첫 전승법회

린포체 초청, 부산·서울서 개최

경전 결집이 이뤄지기 전, 부처님 가르침은 제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일컫는 '룽'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법회가 열린다.

11월 12~13일 오전 10시에는 부산의 한국티벳센터(www.tibetkorea.org) 광성사(주지 도향)에서, 14, 15일 저녁 7시에는 서울 마네 NGO교육센터에서 '룽'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13일 광성사에서는 보살계 수계 법회도 함께 열린다.

이번에 한국에 초청돼 '룽'을 전승하는 스님은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린포체(83)로 달라이라마가 계쉬(가장 높은 공부를 대표하는 자리인 계쉬하람바에 오르기 위한 시험) 시험을 볼 때, 대론 상대이기도 했으며 티베트에서는 '가르침의 창고'라고 존경받고 있는 정신적 스승이다. 달라이라마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 중의 한 분인 린포체는 열번째 환생자로 알려져 있으며 70명이 넘는 스승 밑에서 경과 론을 두루 익혔다. 또한 네 번에 걸친 시험에 통과해 가장 높은 공부를 대표하는 자리인 계쉬 하람바를 성취해 지금의 링린포체, 소파린포체 등 많은 제자를 두었다. 1959년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하자 목숨을 건 탈출 끝에 인도에서 망명생활을 하였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법문을 하며 활동 중이다.

이번 한국 방문은 일본에서 열리는 달라이라마의 법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게 된 린포체를 한국티벳센터에서 어렵게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팔순을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 법회가 끝나면 곧바로 인도 남부 데붕 사원에서 '룽' 전승법회를 열 예정이다.

티베트에서는 '룽'이 전승되는 법회에 한번 참석하면 경전 30만 독의 공덕이 있다고 하여 많은 이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룽'은 경전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의 요의를 담고 있는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룽' 전승 법회에서 설해지게 될 내용은 <금강경> <능엄주> <신묘장구대다라니> <미타경> <반야심경> <입보리행론> <원각경> <현관장엄론> <중론> <칠십공성론> 등으로 통역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들을 수 있다. 이날 룽 법회는 한국불자들을 위한 린포체의 법문에 이어 1시간 30여분간 봉행된다.

한국과 티베트의 불교 교류를 위해 티베트어 교실, 티베트 경전 번역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광성사는 앞으로 티베트 스님을 모셔 람림, 공관론(空觀論), 현관장엄론(現觀莊嚴論) 등에 대한 공부를 한달씩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051)243-2468 천미희 기자

음성 공양 듣고 복지기금 전달도

울산 찬불가대회 10주년 기념

울산불교신도회(회장 황경환)는 10월 26일 KBS 울산홀에서 울산 찬불가대회 10주년을 기념하며 합창제와 기념 축제를 거행했다.

통도사 주지 산옹 스님 황경환 울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합창제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울산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합창제 연혁보고, 설운도 축하공연에 이어 각 사찰이 조를 나눠 찬불가 공연을 선보였다.

울산불교신도회는 이날 합창제에서 스리랑카 복지기금 2차 분으로 2천 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지난 6월 24일 통도사 백련암에서 1차 2천만원을 전달한 울산불교신도회는 내년 2월경 3차로 1천만원을 추가로 전달 총 5천만원의 기금을 스리랑카 복지기관 건립에 지원하게 됐다. 내년 2월경, 스리랑카 복지기관 완공에 맞춰 울산불교신도회 임원이 스리랑카를 방문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합창제에는 통도사, 백양사, 용안사, 석남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정토사, 남산사, 정광사, 망해사가 참여해 '일천강에 비치는 달' '홀로피는 연꽃' '아빠의 청춘' 등 찬불가와 대중가요, 가곡 등을 선보였다.

한편 울산불교신도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울산불교방송 개국은 빠르면 내년 안에는 개국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쌀 200포대 20개 복지관에 전해

부산불교연합회, 팔관회 및 수륙 천도재 봉행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10월 29~30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제7회 팔관회 및 수륙공 천도대재를 봉행했다.

한반도 평화와 부산발전을 기원하며 봉행된 팔관회는 29일 식전행사에 이어 2부로 팔관재계를 받는 팔관회 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대성 스님은 대회사에서 "팔관회는 팔재계를 기리는 불교적 의미외에도 호국선신들에게 제를 올리고 순국선열을 가리는 국가적 차원의 문화 축제"라고 말했다. 대성 스님은 부산불자들이 모은 10kg들이 쌀 200포대를 허남식 시장에게 전달했다(사진).



허남식 부산시장은 고불문을 통해 "팔관회의 장엄함과 불보살의 원력으로 일심 정진하여 부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팔재계 수계법회에서 고산 스님은 "8가지를 막고 금한다는 팔재계를 받아 지니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니 "고난과 행복을 스스로의 정진으로 개척해 나가는 불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 해인문화회관 개관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는 10월 28일 해인정사 대웅전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해인문화회관 개원을 기념하는 불교전문밴드 '해조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사진).

문화 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0평 규모의 해인문화회관을 개원한 해인정사의 수진 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일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사람의 마음에 피워내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문화회관이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며 스스로를 가꾸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에서 해조음의 첫 시디 '살구꽃 피는 여기 해인에'에 수록된 곡들과 '엄마야, 누나야' 등 동요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051)202-4933 천미희 기자

지종 스님 불우이웃 위해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 경남 양명사 주지 지종스님은 10월 26일 KBS 창원 홀에서 불우이웃돕기 제2회 강병한경기민요 발표공연을 개최했다.

강병한전통국악예술연구원 원장인 지종 스님은 "낮고 천한 소리로 여겨지는 경기소리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가 높고 낮음의 분별없이 고루 퍼지는 것처럼 경기소리로 민심을 만지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종 스님과 예술연구원 원생들의 '좌창 경기 12잡가 유산가'로 시작된 공연은 입춤, 장기타령, 회심곡 등으로 이어졌으며 2부에 걸쳐 10여 가지의 타령과 춤사위를 선보였다. 이날 수익금은 창원 KBS와 창녕군 장학재단으로 전달 돼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은아 기자

부산 지장암, 철마기원제

부산 철마면 지장암(주지 능원)은 10월 28일 지장암 경내에서 무량수전 낙성법회 및 철마기원제를 봉행했다.

발원문 낭독, 경과보고 순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지장암 주지 능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지장암이 있기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불사가 회향되고 부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가득 찰 때까지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통도사 개산대재 및 문화행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산옹)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통도사 창건 1361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 및 문화행사를 통도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30 일 열린 개산대재 법요식에서 통도사 전계화상 혜남 스님은 법어를 통해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는 나라가 태평하고 민중이 평안한 세상을 기원했다"며 "우리도 스님의 뜻을 이어 그와 같은 서원을 세우고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 산옹 스님도 봉행사에서 "승가의 본분을 바로 세우고 부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손을 잡고 화합하자"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이

임수영

부산 선재어린이집 원장



엄하고 자상한 '엄마' … "법회가 삶의 1순위"

학생 더 잘 지도하기 위해 포교사 자격증 취득

"스님, 제가 학생회 법회를 맡아보겠습니다."

10 년 전 어느 날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을 찾아간 임수영(50. · 도광성) 선재어린이집 원장은 불쑥 이렇게 말을 꺼냈다. 10명 남짓의 학생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고 있었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보살필 지도교사가 없다는 걸 알고 난 후, 조금은 당찬 의욕을 갖고 꺼낸 말이었다.

이미 10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나와 공부를 이어오던 임원장을 보아왔기에, 원허 스님이 반가움을 숨기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임 원장은 학생회 법회의 지도교사가 돼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다.

30 대 초, 어머니의 권유로 혜원정사에 나오기 시작한 임원장은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불법의 세계에 흠뻑 젖어들었다. "불법을 배워가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 당시를 회고하는 임원장은 불교서적, 법회, 강의, 교양대학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 미술학원으로 낮에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자, 일과 후 한 두 시간이라도 시민선방에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평생 해야 할 공부를 만난 즐거움에 젖어 있을 무렵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눈이 갔고 스님을 찾아가 학생회를 맡아 보겠다는 말을 꺼내게 된 것이다.

"출석을 잘하면 선물을 줬어요. 고함을 질러가며, 때론 눈물까지 흘려가며 1080배를 시키고, 아이들에게 열정을 쏟아 붓자 법회 인원이 100명으로 늘어나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늘어난 학생들을 좀 더 잘 지도하기 위해 더 깊은 공부를 하게 됐고 포교사 자격증도 땄다. 포교사가 되자 곧바로 청소년 포교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청소년포교팀인 선재팀을 만들어 4년 정도 팀장을 맡았다. 이후 지금까지 청소년 포교에 뜻을 같이 하는 지도교사들과 함께 월 1회 모임을 가지며 청소년 포교 분야에서 활동하는 몇 안 되는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언제나 학생회 법회가 삶의 일순위에 있었다. 가족 행사보다 앞선 것이 학생회 법회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 뒷전이었다.

학생회를 맡기 전, 어린이법회 도우미 교사로 활동하면서도 어린이법회 연수회에 혼자 찾아가 당장 소용에 닿지도 않는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놓기도 했을 정도로 하나라도 더 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05 년 3월부터는 혜원정사가 운영하는 선재어린이집의 원장도 겸하면서 업무가 바빠졌다. 미술학원, 어린이집 원장을 지낸 전문성을 살려,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을 부처님의 품안에서 보살피는 일까지 맡게 된 것이다.

"어린이집까지 맡고 보니 일요일 하루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학생들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고 좋기만 하니 학생회를 맡아보겠다며 10년 전의 저처럼 나서는 사람이 생기기전 까지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떠한 순간에도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 한 두 시간은 반드시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는 임원장. 임 원장의 꿈은 아이들의 마음에 불법의 꽃을 피우는 것이지만, 그 꿈은 임원장의 마음 안에서 이미 활짝 피어 향기가 두루 퍼지고 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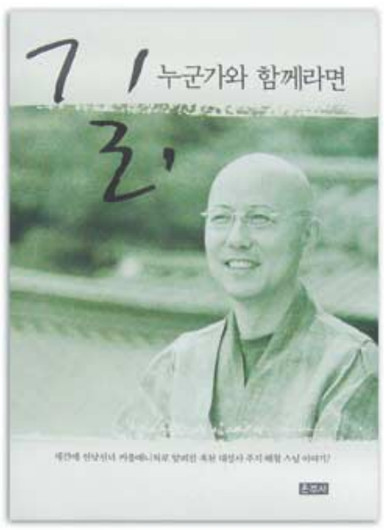
선남선녀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혜철스님의 가을같은 맑은 이야기!

'대성사 따뜻한 만남' 이라는 새로운 법회를 통해
처녀총각 인연 맺어주기를 실천하는 혜철스님이 그 동안의
법문과 기고문, 그리고 시와 단상 등을 모아 엮었다.
세간의 일상을 담담히 담아내는 따뜻한 시선, 환경오염에 대한
애절한 안타까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
대립과 투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난다.

인생은 나와 인因과 연緣을 맺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독자 한사람 한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며, 함께해서
행복한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대성사 주지 혜철 합장



누군가와 함께라면
국판/278쪽/12,000원
운주사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구입안내 : 현대불교 대전충북지사 043)732-5560

수목장, 납골탑, 천불전 무료 분양

靈林寺에서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천연경관이 수려한 경내 수목장 500주, 부도탑(납골탑) 500기, 천불전 1천불을 조성 불자들을 위해 시설 일체를 무료개방하고 유족들에게 연중 모든 숙식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시설비 일체 : 무료
◆ 각종재(천도재, 기일, 명절제사) : 무료
◆ 유족 방문시 숙식 : 무료
◆ 봉안·관리비 : 월 3천원



대한불교수목장보급회 http://www.sumogjang.co.kr
• 위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잠실운동장 1시간 20분 96km)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사찰에 수목장, 부도탑, 천불전 조성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해 드립니다.
02)562-0821

‘깜깜’해도 100점짜리 절 자신


교리강좌에 참가한 맹인불자들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며 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대광맹인불자회 2기 기초교리강좌 현장

대부분 60세 이상… 뜨거운 ‘열정’

불자후원회, 자세교정·식사제공

10월 30일 오후 2시.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달) 법당에는 맹인불자 20여명이 상기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불교기초교리강좌가 시작되는 첫 날. 법사는 1기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김경도(남구자활후견기관장)포교사다.

맹인불자들은 배움의 기회를 좀처럼 가질 수 없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법당 맨 앞에는 김복경, 이복열, 서손태 불자 등 70대 어르신들이 앉았고, 뒤에는 정기팔(46), 송채은(44), 김순자(44), 이창영(29) 등 젊은 불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예불을 올린 후 김경도 법사가 “불자라면 예불문은 당연히 외워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예불문 테이프를 나눠줄테니 불교기초교리가 끝날 때까지 예불문을 다 외우라”는 숙제가 주어졌다. 순간 법당이 술렁인다.

“못 외우면 우짤꼬? 난 못 외우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이남이(71) 불자가 못한다고 발뺌이다.

“못하면 퇴학이제” 뒤에서 도덕임(66) 불자가 나무라듯 되받아치고, 여기저기서 ‘한다’ ‘못한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대광맹인불자회의 두 번째 불교기초교리강좌는 이렇게 시끌벅적한 분위기속에서 시작됐다. 배움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가는 길도 아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렇지만 언젠가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배우는 기쁨도 한 켠에 자리했다.

김경도 법사는 이날 불자들이 절에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예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불자들에겐 제대로 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린 깜깜(맹인)이라, 100점 짜리 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모기 눈곱만큼이라도 보이는 사람이 똑바로 절을 할 수 있는 것이제” 이금술(73) 불자가 어떻게 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느냐며 토를 달았다. 설상가상으로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이남이(71)불자는 “다리가 아파서 못 한다”며 낙담했다.

그러나 이미 1기 교리강좌를 경험해 본 김경도 법사는 침착하다. 그리곤 차근차근 절하는 법을 설명했다. 김경도 법사의 설명에 따라 합장을 하고 선 맹인불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아한 한 떨기 연꽃같이 마음을 모아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마를 땅에 댄 후 손을 귀밑까지 올리며 절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절할 때 하는 고두배까지 배웠다.

맹인불자들이 김법사의 지시 따라 절을 배우는 동안 불자후원회에서 봉사 나온 도우미 불자들이 일일이 맹인불자들의 자세를 교정했다. 맹인불자들의 3분의 2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보니 절을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제대로 절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청각 2급 장애까지 이중 장애를 겪고 있는 심갑순(62) 불자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반갑기만 하다. 비록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해 남들 앉을 때 서 있고, 남들 설 때 우두커니 앉아 있기도 하지만 “모르니 가르쳐 달라”고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대광맹인불자회는 지난 3월 창립 15년만에 처음으로 불교기초교리강좌를 개설한 뒤 지난 10월 30일 2기 불교기초교리강좌를 다시 개설해 맹인불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김경도 법사를 비롯해 김진구(일고, 경산자활후견기관장), 최문성(탄중, 대구경북포교사단장), 김숙란 포교사의 열정이 밑거름이다. 게다가 불자후원회가 매주 맹인불자들을 위한 점심공양후원에 나서 더욱 따뜻한 시간이 되고 있다. 맹인불자회는 앞으로 4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매주90분씩 불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예절과 부처님 일대기를 비롯한 다양한 설화와 오계 팔정도 육바라밀 등을 중심으로 교리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목판인쇄 볼수록 신기해!

2006 팔만대장경 축제 3만여 관중 운집

판화작가 전시 및 인쇄체험

2006 팔만대장경축제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일대에서 성대히 열렸다.

올해 7회째를 맞은 팔만대장경 축제는 국내 유일의 목판인쇄문화축제로 3만여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우리의 전통목판인쇄문화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졌다. 27일 오후 5시부터 열린 개막식에서는 화려한 축포와 함께 ‘팔만대장경’의 작곡가 김수철씨의 특별 공연이 펼쳐졌고, 29일에는 해인사 스님들과 지역 주민 600여명이 조선 초기(1398년) 강화도에서 서울 지천사를 거쳐 해인사로 대장경이 옮겨지는 과정을 재현해 장관을 이뤘다.

가야면을 가로지르는 도로 중앙에는 국내 최정상급 판화작가 10명의 야외전시와 서각 전각 와각 작품 초청 전시회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참가자의 인기를 끈 것은 목판인쇄문화체험여행이었다. 축제참가자들은 나무를 골라 채취하는 과정부터 나무를 잘라 판을 다듬고 글자를 새겨 판각하는 작업, 한지를 만들고, 한지에 목판을 인쇄하는 인경 작업, 또, 이를 묶어 책으로 만드는 제책과정까지 우리나라의 전통목판인쇄술의 전 과정을 체험하면서 우리민족만이 갖고 있는 높은 장인 정신과 정신문화의 우수성을 느끼고 배우는 계기가 됐다.


대장경판 이운 재현 모습.

특히 올해는 가야면민들의 생활터전 한가운데서 해인사와 합천 군민이 하나가 되어 행사를 진행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찾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현재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돼 있는 팔만대장경축제가 문광부 지정 축제로 승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지선 기자

노인요양원 ‘무량수전’ 개원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원 무량수전이 11월 1일 개원됐다.

치매 중풍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7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량수전은 한국의 복지향상과 노인복지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구 남구 봉덕3동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옆 350여평 부지에 착공해 연면적 740여평 지하2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생활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목욕탕, 자원봉사자실 등의 편의시설을 고루 갖췄다.

1일 개원식에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스님과 임병헌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명이 동참했다. (053) 471-0991

배지선 기자

대구 불광사 만불보전 낙성

대구 남구 대명2동 불광사 불광불교대학은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만불보전 대법당 낙성식을 봉행한다.

불광사 만불보전 대법당은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1000평 규모로, 250여 대중이 한꺼번에 공양할 수 있는 공양실과 찻집, 합창단 연습실은 물론 다도, 일어, 불화, 수묵화 등을 배울 수 있는 문화교실을 갖췄다.

또, 2층에는 지장전을 3층에는 1250제대 아라한을 모신 설법전을 5층에는 시민선방을 마련해 언제든지 수행의 장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4층 150여평 규모의 대법당에는 만불을 조성해 모셨다.

불광사는 11일 오후 1시 낙성식을 기념해 영국의 유명 기타리스트 크리스그래스필드의 공연을 비롯한 축하 무대를 마련한다. (053) 656-6766

배지선 기자

대구 제현사 다보탑 제막



대구시 동구 도동 제현사(주지 법륭)는 불국사 주지 성타, 전 동화사 주지 지성, 관오사 주지 지도, 서봉사 주지 경희 스님을 비롯한 지역불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10월 29일 다보탑 제막식 및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십시일반 마음 내는 삶 살자”

영남불교대 백혈병어린이돕기 가을음악회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백혈병 어린이돕기 가을 음악회를 10월 29일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2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했다(사진).

우학 스님의 선서화 및 선서각 작품 전시회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영남불교대학 동문 불자들의 노래자랑과 댄스, 합창, 패션쇼 공연에 이어 현철, 배슬기, 한영주, 길건, 송대관 등이 출연하는 “자비로 하나되는 가을음악회”가 TBC 아나운서 조영구 씨의 사회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우학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백혈병은 좀 어려워도 완치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니 기회가 왔을때 십시일반 마음을 내어 회향하는 삶을 살자”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문화유산·인물·기록 총망라

은해사, 본사·암자편 사지 펴내… 개산 1197돌 맞아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개산 1197돌을 맞아 <은해사지(사진)>를 편찬했다.

총 325페이지 분량의 칼라 도록으로 만들어진 은해사지는 본사·산내암자 편으로 8장에 걸쳐 민족의 영산 팔공산과 은해사의 역사는 물론 은해사를 거쳐 간 역대 선사와 인물, 산내암자, 문화유산과 옛 기록, 현재에 이르는 발자취와 활동까지 세세히 정리되어 있다.

중앙승가대학 불교학과 김상영 교수, 동국대 사학과 한상길 교수, 은해사 부주지 선광 스님, 은해사 김기남 사무국장, 사찰문화연구원 신대현 연구위원이 글을 썼다. 말사 편은 내년 개산대재에 맞춰 발간하고 합본집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은해사는 손이목 영천 시장, 정희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9일 1197돌 개산대재를 봉행하고 <은해사지> 고불식을 가졌다.

배지선 기자

제25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상담학 박사 임재형

개강 11월 9일 오전 10시
기간 매주 목요일 6시까지 (7회과정)
통신교육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대화를 통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명리학 성명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커버넌트대학교 최면치유학 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연정국악원(구)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2층)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세계적 영성음악인과 만난다



천년고찰 화엄사서 16~18일 첫 영성음악제

지리산 천년고찰에서 세계적인 영성음악인들이 참여하는 음악제가 열린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구례 화엄사, 천은사와 지리산 일대에서 펼치는 '화엄제 2006'이 그것이다. '첫 발자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영성음악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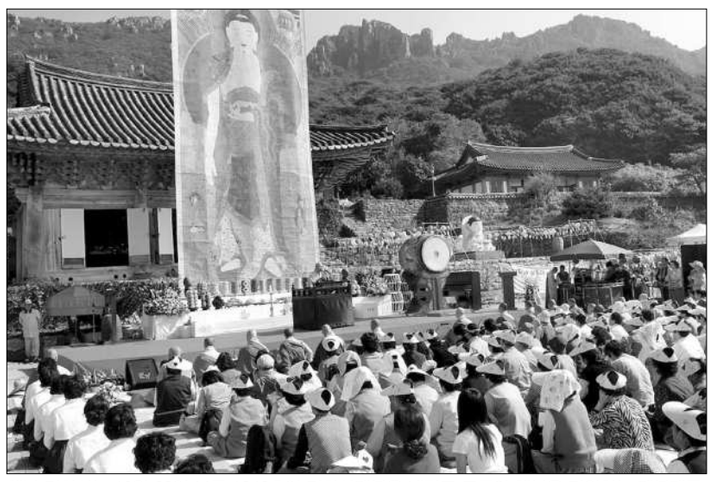
화엄제에는 유럽을 대표하는 영성음악가수 드첸 샥 닥사이(사진 왼쪽)와 음악을 통해 영성회복과 치유작업을 하는 미국 뮤지션 제니퍼 베레잔(사진 가운데), 인도 전통악기인 반 수리 연주가 밀린드 다테(사진 오른쪽), 몽골의 모링호르 연주자 푸렙후테무진과 오르팅(長歌 · 몽골전통음악)도가수 아딜비쉬 네르구이, 일본 음악가 마쯔다 세이잔과 요시다 다카히, 한국의 푸리와 음악 극집단 바람곶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달라이라마와 함께 망명생활을 하면서 유럽의 영성음악을 이끌고 있는 드첸 샥 닥사이를 비롯해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성음악을 선보인다.

이번 화엄제 총감독을 맡은 박치음 교수(순천대)는 "영성음악은 마음에 병을 치유하는 음악을 총칭하는 것으로 불교, 힌두교, 수피니즘, 샤머니즘이 영성음악의 뿌리이다"며 "화엄제를 통해 내적 평화없이 세계평화를 다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도 "한국인의 정신적 성지인 지리산과 화엄사에서 상처받은 세계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조하기 위한 야단법석을 펼친다"고 밝혔다.

화엄제는 16일 순천대 지리산 수련원에서 전남지역 전통음악과 몽골,인도 영성음악을 시작으로 17일 천은사 앞 카페(통나무 쉼터)에서 드첸 샥 닥사이, 제니퍼 베레잔의 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18일 회향일에는 화엄사 대웅전 앞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대규모 영성음악 공연을 펼친다.

(061)782-7600 이준엽 기자



해남 미황사는 10월 28일 보물 1342호인 미황사괘불을 내걸고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괘불재를 봉행했다.

미황사 '기도하는 괘불재' 성황

'만법공양' 올리고 정진 다짐

국내 유일의 괘불재가 10월 28일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 경내에서 봉행됐다.

금년으로 7회째 맞는 미황사 괘불재는 '기도하는 괘불재'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보물 제1342호 미황사 괘불이 이운되고 본격적인 야단법석이 펼쳐지자 미황사 아랫마을 서정분교 어린이들이 나와 당적으로 법석을 장엄했다.

이어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장을 지낸 고우 스님이 법좌에 올라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적가치를 높이는데 힘쓰라"는 법어를 내렸다.

괘불재의 절정은 '만법공양'. 스님들의 꽃 공양에 이어 전국에서 다양한 이들이 나와 농산물, 수산물 등 일년간 농사지은 수확물과 논문, 작품, 일기장 등을 공양하고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괘불재에 이어 작은음악회에서 금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미황사는 괘불과 대웅전, 부도전 등 수많은 보물이 있지만 참사람의 향기, 한문학당, 경전읽기모임 등 공부하는 이들 또한 자랑스런 보물이다"며 "더많은 보물이 나오도록 열심히 정진하자"고 말했다.

글 · 사진/해남=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재소자 대상 孝 문학작품 공모

옥천 대성사 이달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재소자 포교 활성화 차원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할 수 있는 작품은 효를 주제로 한 편지, 신행수기, 갱생의 의욕이 담긴 수필 등으로, 11월 30일까지 대성사(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로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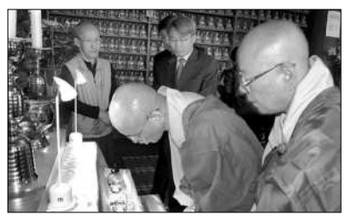
당선작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가상 등 총 24개 작품을 선정하며, 각각 상금과 부상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12월 15일 해당 교도소로 통보된다.

청주교도소 종교위원인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재소자들에게 효 사상을 고취하고 가족의 중요성과 인간 존엄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공모전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043)732-5560

박봉영 기자

익산 백운사, 진신사리 친견법회



익산 백운사(주지 우성)는 10월 29일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부처님 사리를 탑안에 봉안하기 앞서 열린 이날 법회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300여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사리가 천호산에 모셔지게 된 것은 일대사 인연으로 익산불교의 자랑이다"며 "부처님을 가까이서 예경하고 정진하여 다같이 깨달음을 성취하자"고 말했다.

이날 일반에 공개된 사리는 미얀마계 미국인 의사 산야 씨가 백운사에 기증한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난존자, 사리불 존자의 진신사리이다.

이준엽 기자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 예술제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는 11월 12일 경내일원에서 제1회 도선국사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영암군이 후원하는 도선국사예술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마당을 제공한다. 풍수를 주제로 한 인테리어, 풍수형국 모형도, 사진으로 보는 도갑사 전시회는 대표적인 볼거리다. 들차회, 인경 · 탁본 체험, 산사영화제 등도 접할 수 있다.

종범스님 초청강연, 생활풍수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진다. (061)473-5122

이준엽 기자

청주 용화사 장애인 가을소풍

청주 용화사 용화봉사단(단장 김대근)은 10월 28일 가톨릭 정신지체 장애인시설인 성보나의집 원생들과 함께 가을소풍 행사를 가졌다.

35명의 1급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보은 세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사랑의릴레이 행사에 참가해 용화봉사단 30여 회원들과 함께 노래자랑과 장기자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 화순 무료급식소 '연꽃세상'

자금 · 인력난 이중고 딛고 자립 운영
거동불편 어르신 · 장애인에 반찬 배달

11월을 시작하는 첫째날, 오늘의 주메뉴는 굴비 무우조림. 전날 구입한 굴비 50여 마리가 무 위에 가지런히 놓이고, 대형 전기밥솥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자 갑자기 조리실이 부산해진다.

전남 화순 광덕리 신시가지에 자리한 무료급식소 '연꽃세상'은 낮 12시가 되기도 전에 상차림이 끝난다.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운영일체가 지자체나 사회단체의 후원없이 지역 불자들의 힘으로 이뤄지기에 화순 연꽃세상은 더 진한 향내가 난다.

"농촌의 노령화는 심각합니다. 노인들은 없어서 굶고, 먹을 힘이 없어 굶고, 며느리 눈치 보다가 굶어, 끼니를 잇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꽃세상 지도법사 영재 스님(쌍봉사 주지)은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지역불자들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화순 연꽃세상은 지난해 1월 화순사암연합회의 발의로 시작됐다. 개천사, 만연사, 쌍봉사, 양복사 등 지역 사암에서 공양물을 십시일반하고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맡았다. 자연스럽게 봉사자들이 모여 연꽃봉사단을 창립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연꽃세상은 처음부터 순수하게 불자들의 힘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도량이 되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0~70여명의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이 찾았다. 그러나 운영이 쉽지 않았다. 시골사찰에서 주 1회씩 무료급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년 들어 연꽃세상의 무료급식 소문을 듣고 화순군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6개월가량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아 숨통이 트이는 듯 했으나 도리어 운영방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지도법사 영재 스님이 "진정한 자비실천 도량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군의 후원을 끊고 자체 운영"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 9월부터 쌍봉사가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연꽃봉사단이 봉사를 맡으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연꽃봉사단은 무료급식소 '연꽃세상'을 찾은 노인들을 위해 노력봉사로 땀을 흘리고 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점심을 공양하는 이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몸이 아파 못오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죠."

연꽃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유정실 단장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 신행을 점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부처님 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낮 12시 무렵, 연꽃세상은 벌써 설거지 모드로 돌입했다. 늦게와서 공양을 마친 할머니 한분이 낮선 방문객에게 합장하며 말을 건넨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밥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를 겁니다. 모두들 편하게 대해줘서 오늘도 부처님 대접 잘 받고 갑니다."

후원 (농협 623119-51-020613 연꽃세상)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부처님 당시 경전 읽기
한글 니까야 독송회 회원 모집

부처님 당시 생생한 육성법문을 기록한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는 법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경전을 이야기 할 때 팔만대장경 또는 아함경(장아함 · 중아함 · 증일아함 · 잡아함)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 언어인 빨리어로 된 5부 니까야 (디카니까야 · 맛지마니까야 · 쌍윳따니까야 · 앙굿따라니까야 · 쿳다카니까야)가 진정 팔만 대장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알기쉽게 읽을 수 있게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여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부 읽는 신행결사를 갖고저 하오니 이런 귀중한 모임에 불자님들의 간절한 동참 바랍니다.

• 입 재 : 2006년 12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동산불교회관 3층법당
• 법 사 : 전재성, 이미령 교수
• 교 재 : 5부 니까야
• 대 상 : 한글 니까야 독송을 원하는 불자는 누구나
• 회 비 : 동창회비 월 5만원 (교재제공)
• 특 전 : 청년회원은 월 3만원
• 문 의 : 02-732-1206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청년회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5분이면 나도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중에서 작명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엄선하였습니다.
• 320여 가지의 성을 한자의 획수별로 분류하여 2획으로된 성부터 22획 성까지, 상생의 원리와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까지 조화를 이루어 성씨별로 2000개에서 3000여개의 이름들을 엄선하여 이름풀이까지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 이름, 법명, 법호, 상호, 기타 작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작명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작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이름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름을 원하십니까? 작명, 개명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이름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재물을 풍요롭게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원하는 이름을 작명하는 것은 작명가의 능력입니다.

역학 개인지도
◆ 모집인원 : 3명(선착순) ◆ 자 격 : 남 · 여, 학력, 나이 제한없음
◆ 기 간 : 2006년 12월 1일 부터 3개월(주당 8시간)
◆ 사 주 및 작명의 대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숙식가능)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정가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여래종 “봉사종으로 통해요”



여래종 여래구도봉사단 회원들이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내 위치한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에게 점심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여래구도봉사단 18년간 4500여회 무료급식

주 5회 지역어르신 300~500명에 점심 공양

10월 30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이날 오전 11시가 넘어서자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한두 명씩 눈에 띄기 시작하더니 금세 구름처럼 몰려든다. 여래종 여래구도봉사단이 공원내 마련한 무료급식소에서 한 끼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발길들이다.

무료급식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10여 명. 봉사자들은 배식 2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국과 밑반찬을 준비하느라 잠시도 쉴틈이 없다.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에 이르는 많은 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빨간 조끼를 걸친 여래구도봉사단 회원들이 능숙한 솜씨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식탁까지 부축해 주고 빈그릇을 치우는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

창단이후 줄곧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신연진 단장(57)은 “노인들이 맛있게 드시고 흡족한 표정을 지을 때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면서 “나눔을 통해 봉사 의미를 맛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래종 여래구도봉사단은 1988년부터 평일(월~금요일) 점심에 무료급식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아 무료급식 횟수만도 4500여회에 이른다.

그래서 성남과 광주 지역 주민들에게 여래종은 ‘봉사종’으로 통한다. 18년의 짧지않은 역사답게 여래구도봉사단에는 3백여 회원들이 가입돼 있다. 연령층도 20~60대까지 다양하다.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봉사단원들은 종단의 공식적인 포교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래구도봉사단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지역 노인잔치도 열고 있다. 올해는 2천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참석했으며, 스리랑카 국립무용단의 댄스공연과 인기 가수 공연 등으로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했다. 또한 성남시민을 위한 불교영화제를 지난해 처음으로 8월 한달간 다섯 번에 걸쳐 개최해 성남 일반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여래구도봉사단은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우 돕기 일환으로 장학금 후원과 휠체어 전달도 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양로원인 자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도 하고 있다.

봉사단의 활동은 비단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5년전부터 완전히 파손된 미얀마 파간 대탑 복원 불사와 파간지역의 우물 개간 사업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최근들어 스리랑카 콜롬보에 유치원과 문화센터도 봉사단원들의 기금으로 건립중이다.

김주일 기자



interview

원융종 총무원장 **성관 스님**

“6개 지방 종무원 중심체제로 전환”

“창종기념일인 내년 3월 26일 전까지 재입종 및 사찰 재등록 신청을 받아 제 2의 창종이라는 각오로 종단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10월 17일 원융종 총무원장에 선출된 성관 스님(사진)은 재임 후 종단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융종의 창종 정신은 ‘원융’ 즉 화합입니다. 흩어진 종도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화합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초발심으로 돌아가 현재 400여개가 등록돼 있는 종단 산하 사찰을 재정비 하고 6개의 지방 종무원 중심 체제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성관 스님이 종단을 이끌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두가지다. 종도교육과 종무행정의 전산화.

또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종도 연수교육을 1년에 5박6일 정도 반드시 마련할 예정이다. 득도교육도 희망자가 많지 않아 매년 열 수는 없지만 2년에 한번씩은 총무원 청사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성관 스님은 원융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을 종무행정에 대폭 참여시키기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비구니회를 전국 규모로 활성화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내년 사찰 등록이 완료되는 상반기 중으로 전국 사찰들이 총무원과 인터넷을 통해 종무행정을 볼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태고종 9일 봉원사서 자정결의대회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1월 9일 오후 2시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자정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황룡사와 선암사 문제 등 종단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종도들의 상호 불신과 갈등을 불식시키고 종단화합의 기틀을 다지고자 마련되는 것.

태고종은 이 대회를 통해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고 대외적 종단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대회에는 승정 및 원로의원, 중앙종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는 혜초 종정 스님의 법어와 자정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법회 후에는 <태고보우국사의 종지종풍과 그 수행법> 출판기념 법회가 열린다.

미륵종 전국 승려단기연수

미륵종 교육원(원장 정엄)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김해 관음정사에서 제8차 전국 승려단기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수행자로서의 자질향상 및 각종법회의 식풍일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군법당서 음성공양 환희심 넘치네

호국 원광사 합창단은 음성공양을 통해 군불교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한 제3회 호국음악제 모습.

호국 원광사 합창단

11월 1일 오후 2시 국방부 호국 원광사 강당. 30여 보살들이 찬불가 악보를 펼쳐놓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호국원광사 합창단원. 11월 29일 봉행되는 제38회 군승의 날 행사의 음성공양 연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자, 지금부터 연습 시작 하겠습니다.”

지휘자이자 음악 선생님인 전세아씨의 한마디에 회원들은 자신의 악보를 챙겨 연습 준비를 한다. 삼귀의, 사홍서원 등 매번 부르는 법회 의식곡이지만 연습하는 합창단원들은 한곡 한곡 최선을 다해 노래 부른다.

1989년 창단한 국방부 호국원광사 합창단(단장 권영숙)은 호국원광사 법회는 물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및 국군불교종신도회의 주요 행사 등 중요한 군불교 행사에 음성공양을 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합창단원들이 십시일반 내는 회비는 32사단, 75사단 등 군법당 건립에도 후원이 돼 군불교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권영숙 단장은 “법회나 행사에서 찬불가 음성공양을 할 때가 제일 환희심이 나고 행복하다”며 “우리가 부르는 찬불가가 장병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 군생활하는데 큰 힘이됐으면 좋겠다”고 발원했다.

호국 원광사 합창단은 부정기적으로 진행해온 호국 음악제도 군종교구와 함께 정례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기금도 조성해 장병들에게 초코파이 등 위문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할 생각이다. 이외에도 회원 배가운동을 통해 더 많은 장병들에게 음성공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국 원광사 정인성 주지법사는 “합창단 음성공양은 법회를 생기있게 만들고 참석하는 사부대중들에게도 흥겨움을 준다”며 “법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세대 장병들에게도 찬불가를 통한 포교도 늘려가면 군포교도 훨씬 더 생기가 넘칠것”이라고 말했다.

호국 원광사 합창단은 60세 이하의 신심있는 재가보살을 대상으로 상시 단원을 모집한다.

(016)759-2524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2006년 한국불교박람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최대규모의 전시회와 함께 하고 싶다면
불교계의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을 원한다면

2007한국불교박람회에 참여하십시오

2007한국불교박람회 2007. 3. 22 ~ 25 / 서울무역전시장
문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TEL 02)2004-8213~9 www.bexpo.org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반갑다 법우야! 자주 만나자~



"반갑습니다~!" 10월 29일 서울 동대부여고에서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수도권 사찰학생회 법우들이 레크리에이션으로 몸을 풀고 있다.


으랏차차! 법우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4명이 한조를 이뤄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 '날으는 양탄자'는 호흡을 맞추는게 중요하다. 처음 만나는 법우들과 호흡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그동안 개별 사찰학생회 참석인원이 적고, 마땅한 공간이 없어 축구 한번 제대로 못했다는 불자 청소년들. 이날 마련된 친선 축구경기에서 원없이 놀았다.


여법우들의 숨겨진 운동실력이 빛을 발했던 피구 대항경기.

수도권 사찰 학생회 연합 체육대회 열리던 날

맑게 갠 가을하늘 아래 만국기가 펄럭이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이어달리기 계주를 하고 있다.

10월 29일 서울 동대부여고에서는 모처럼 가을운동회 광경이 펼쳐졌다. 학원과 학교만 오가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온통 어우러지는 한판 잔치다. 수도권 사찰학생회가 한자리에 모여 연합체육대회를 열었다. 수도권 사찰학생회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더욱 뜻 깊다.

#게임하고 춤추며 굳었던 몸 풀고…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사찰은 관음사 구룡사 금강정사 금화사 능인선원 미타사 불광사 약사사 조계사 등, 어린이·청소년포교가 미약하다고 평해지는 서울에서 청소년포교에 뿌리내린 사찰들이었다. 멀리 경기도 부천 석왕사도 참여했다. 10개 사찰에서 참여한 200여명의 청소년들은 기지개를 켜듯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억눌려있던 몸을 마음껏 풀었다.

이날 체육대회는 동대부여고 체육관에서 2인1조 짝꿍게임, 어깨 주무르기, 댄스, 팀별 O·X퀴즈 등 레크리에이션 한마당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돼, 이후 4개의 팀으로 나눠 운동장에서 피구, 축구, 줄다리기, 릴레이 등을 하며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특히 대회에 참가한 법우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것은 축구경기. 사찰 구별 없이 모두 섞여서 네 팀으로 구성해 벌인 축구경기에서 한참 뛰놀고 난 아이들은 입을 모아 '정말 이렇게 놀아보고 싶었다'고 외쳤다.

"우리 절은 포교당이라서 근처에 뛰어놀만한 넓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법회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싶어도 한번도 못 놀아봤거든요.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공도 차고 어울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17·구룡사학생회 최원영군)

"축구 한판 하고 싶어도 우리 절에 나오는 아이들 숫자만으로는 부족해서 축구하기 힘들거든요. 다 같이 모인다니 뜻 깊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우리가 즐거워야죠!" (19·능인선원학생회 홍심표군)

문수, 보현, 지장, 관음 4개 조가 팀을 이뤄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항한 '날으는 양탄자'에 참가했던 박가현양(14·금강정사학생회)은 "처음 만나는 법우들이랑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만은 않네요"라고 멋쩍어하다가도 금세 다시 손을 잡고 골인지점을 향해 달려 나갔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지만 이미 신행경력은 10년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 유치원 때부터 줄곧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다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법우들이 한 자리에 집결한 것은 처음 보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종무원의 원력이 불씨 되어

미래불교를 책임질 서울지역 청소년불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사찰학생회 담당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이날 체육대회의 중심에는 이 행사를 기획한 조계사 계층포교 담당자인 홍선영 종무원의 헌신이 있었다. 자신도 어린이법회·학생회 출신이라는 홍씨는 '청소년포교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다가 그 전까지 유지됐던 사찰학생체육대회를 다시 되살리고 싶다는 원력을 냈다.

90년대 당시 조계사 봉은사 불광사 금강선원 등 서울지역 대형사찰 4곳이 모여 해마다 사찰학생체육대회를 열었는데, 당시 학생회를 담당하던 원력 있는 지도법사, 지도교사들이 하나하나 학생회를 떠난 뒤 체육대회 행사가 유명무실해졌던 것이다.

홍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계사와 이전 사찰학생회에 체육대회를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 내친 김에 4개 사찰만 모을 것이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 사찰학생회를 운영하는 사찰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연합행사를 기획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파라미타의 협조를 얻어 사찰학생회를 열고 있는 사찰마다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사찰이 한 자리에 모였다. 9월 24일 뜻을 같이 하는 사찰학생회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더 가졌다.

#수도권 사찰들 향후에도 연합행사 지속키로

반응은 대단했다. 저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던 지도교사들의 의견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모두들 '이런 제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뿐만이 아니다. 지도 법사조차 없어 청소년들만으로 힘들게 법회를 꾸려가던 한 사찰 학생회에서는 연락을 받자마자 학생회장이 "담당자는 아무도 없지만 나라도 꼭 참석 하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유일하게 학생신분으로 참가했던 구룡사 학생회장 임예찬(19)군이 바로 그다. 임군은 "어떻게든 사찰학생회를 회생시킬 방안을 마련해보고 싶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대부분의 불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자신이 불자라는 것을 숨기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 청소년들을 만나서 대단히 고무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화계사, 봉은사와 옥천암, 한마음선원, 수원포교당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향후 15여개에 이르는 수도권 사찰학생회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만나며 이번 행사 평가회의를 겸해 수도권 청소년포교전략을 논의하고, 연합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인천에선 어린이법회 체육대회

10월 29일 인천지역에서도 '천진불 어울림마당'이라는 주제로 법명사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다. 인천불교회관과 법명사 어린이법회 회원 100여명이 참여해 소규모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겼다.

인천불교회관 측은 "처음 열리는 행사라 많은 사찰이 참가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수미정사, 보명사, 황룡사, 인천불교회관, 법명사 등 인천지역에서 어린이법회를 개최하는 5개 사찰 연합체육대회를 꾸준히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음사 구룡사 등 10개 사찰 200명 참가

90년대 맥 끊긴후 처음 열린 연합체육대회

"학교에선 종교 숨기고 살았는데… 힘나네요"



육임나라 「육임도서」 안내

시대기 원하는 공부. 시대가 요구하는 판단을 해 줘야 합니다

"여기 육임이 있습니다.
육임은 사람일에 한한 최적중의 오행학술입니다. 아래에 소개된 책 마다의 내용을 세심히 보시고 그 중 알맞겠다 싶은 하나를 선택 하신다면 가히 **「잘 한 큰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책 값이 비싼게 흠이긴 하나 **「싼게 비지떡」** 이란 속담을 상기 하신다면 이 책들이 비싼 이유가 설명 될 것이요, 효과성을 기대한신다면 **「대만족」**이 보장 될 것입니다.

공부할 틈이 없으신분은 활용서 중 하나를 선택 하시면 되고, 공부를 진지하게 해보실 분은 학습서를 선택하시되 **「효사육임강론」**을 읽으시고 이 복사대로 강의 해 놓은 **「효사육임강론 강의 비디오 CD」**를 함께 보신다면 독학 · 독해가 가능 합니다.

육임의 모든 법술과 학문적 접근이 하루아침에 완성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육임은 하나의 법술안에 그 활용도의 완성이 매우 크므로 이중 어느것 한가지만 쥐어도 희열심의 성과를 얻게 됩니다.

이 시대는 보다 확실한 일건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시절의 정서에나 맞을 공부나 방술로서는 우뚝한 위상을 지니기 힘듭니다.
육임을 공부해 보십시요! 육임을 활용해 보십시오! 크고 만족한 것 들이 육임 속에 들어 있습니다."

– 고복자 효사 –

■ 육임학습서



■ 효사육임강론 (상 · 하)

육임학의 요해서이다.
효사육임강의록의 결정판이자 5년간 제1,2,3,4판을 거치면서 보정되어 육임학의 체계를 완결시킨 혼열의 집대서. 동양3국 육임사에 이정표를 세운, 독학 독해가 가능한 학습 · 활용 겸용서 이다. 上권은 학습용, 下권은 활용용이며 12천신에 주야의 천장을 접지시켜 着見度를 높였다.
◇ 값 45만원



■ 육임풍수 (1권)

앉아서 묘지의 길흉과 경관, 묘지속 상태와 해당 육친, 사망원인과 물형좌, 길흉발현, 응기, 해당 자손을 지적할수 있고 이 · 개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간성과 시간성이 부합된, 신비와 경이의 보서. 학습용은 효사 육임강론에 들어 있고 본 책은 활용위주서이다.
◇ 값 50만원



■ 양택비지 (1권)

가정 · 가택의 길흉사상과 귀해, 부정 관계를 적시하고 이사 거류 여부를 판단하며 부귀빈천을 즉단수 있고, 현대사회의 가정사가 한눈에 잡히는 기이서. 효사육임강론에 들어있으나 그 중요성 때문에 별책으로 다시 꾸몄다.
◇ 값 25만원



■ 육임비요형이상법 (1권)

이오학을 통한 판단의 마지막 변수는 귀신의 문제에 있다. 이는 깊은 경지에 이르렀을때 비로소 다가오는 장벽이다. 기립지물로서의 사람들을 향한 안심세계로의 안내지침. 방법, 수법, 구사서즉, 귀신을 보고 해소시키는 최기서이다. 효사육임강론에 들어있으나 별책으로도 나와있다.
◇ 값 15만원



■ 육임운명판단법 (1권)

사주로 밝혀낼수 없는 극단의 은복사들을 끄집어내 말해 줄 수 있는 육임법칙 들이 실려있다. 사주의 가변성에 비해 정형된 복변을 위한 이오가의 필수 열독서이다. 효사육임강론에 들어있으나 별책으로 나와 있다.
◇ 값 30만원



■ 육임세밀정단법 (1권)

육임은 일건적 판단에 강점이 있다. 인간사의 다양한 의문을 어김없이 판단해내는 방법들을 싣고 있다. 해당 사안별 판단부위개소를 표시해 놓은 귀서이다.
◇ 값 10만원

■ 육임활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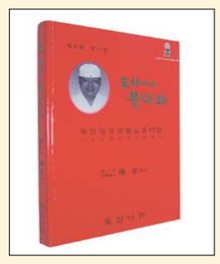
■ 육임대계전서 (60권)

60갑자 순서로 매일 매시간 마다의 내방 목적이 무엇인가? 에서부터 내방자의 근황해설과, 먼저 던질 초사와, 침범귀해를 적시하고 묻는 항목을 30개로 설정하여 항목마다 다시 4-17개의 세부항목을 부연해 놓은 육임방술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방대 역작으로 이미 방술가의 필장서가 되어있다.
◇ 값 400만원



■ 육임 1년 신수비결 (1권)

1년중 각월마다의 길흉과 발현사를 적시해 놓고 그 해소지침까지를 제시해 놓은 쉽고 정확한 신수 활용서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최간단, 최적중의 필장서가 되어있다.
◇ 값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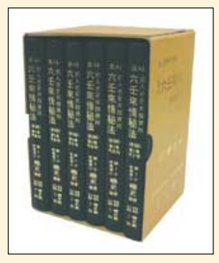
■ 도사에게 물어봐 (1권)

날짜를 알 필요가 없고 그달 해당시간만 펼치면 묻는 항목을 31개로 설정해 그 정확한 답을 달아놓은 전국민의 필장서이다. 토정비결 보다 더 쉽게 볼수 있으되 정곡을 찔러 놓았다는 점에서는 비교될 수 없이 월등하다는 평가이다. 육임지두법의 응용서이다.(12권)
◇ 값 3만원



■ 육임래정비법 (1권)

육임의 꽃은 내정과 사복이다. 그중 내정을 일진과 시간별로 꼭꼭 찝어놓은 가히 신서라 할 수 있다. 이미 전국 방술가의 필장서가 되어있고 탁월한 활용서임이 6년간에 걸쳐 입증되어 있다.
◇ 값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6권)

이오가, 육임가의 필수서로 대접받고 있다. 아무나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국수만 보면 속시원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정확도가 보장되는 애호서로, 누구나 소지 하기를 원하고 있다.
◇ 값 31만원



■ 육임래정비법혁신판 (12권)

임상용으로 편집된 전문가용 바인더식 활용서이다. 그날 치 한장만 빼서 책상에 올려놓으면 그날 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분별 · 복변이 기민하게 이루어 지는 경서에 속한다.
◇ 값 130만원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현신판을 보정하여 내방자의 사정을 속속들이 밝혀 놓았다. 그날 그날의 시간만 보면 그 시간칸에 비밀한 사정들이 이미 적시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인기서이다. 단점은 복사방지를 위해 적색종이에 검정글씨로 되어 있다는게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 값 2백 5십만원



■ 태아길일길시택일법 (1권)

이 시대는 선택분만이 유행하고 있다. 어차피 시대 추이가 그렇다면 좋은 날과 시간을 알려줄 필요가 있게 된다. 일자별 시간별로 일생의 복분과 진로의 길흉을 쉽게 표시해 놓은 방술가의 최긴 요서가 되고 있다.
◇ 값 6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1권)

종교제례의식을 대체할 수 있는 의식집이다. 혼자 엄숙하게 집전하여 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꾸며져있다.
이미 그 수법 효과는 검증 되어 있다. 이오가에게 절대 추천되는 양서이다.
◇ 값 15만원



■ 효사육임강의 비디오 CD (100개)

육임강의는 육임을 안다고만 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해를 통한 녹아 있는 강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글자 뒤에 숨은 진실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 더욱 육임 공식이나 법칙의 나열과 같은 독서강독이 되어서는 육임학의 진정성을 제대로 알릴 수 없는 것이다. 본 강의는 그런 점이 해소된 육임강의가 아닌가 한다. 3년여의 전국 육임학당 순회강의다. 효사숙 강의 및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육임학 강의에서 얻어진 자유로운 강의의 진수가 효사육임강론의 목차 순서대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전에 나온 강의 비디오 CD를 구입한 분은 70만원에 이번 것으로 교체 해 주고 있다.
◇ 값 1백 20만원

■ 효사 활인 천역집 CD프로그램 (종합)

시대조류에 부응하여 육임대계전서를 근간으로한 컴퓨터용 활용 CD프로그램이다. 육임을 대표로 구성했고 사주 월영도 성명학 매좌역수 등 17개 이오술이 첨가되어 국내 유일의 최인기 활용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내방자의 사정이 화면에 떠있어 그것들을 보고 말하면 적중한다. 묻는 항목은 그 항목을 클릭하면 답이 나온다. 같은 시간에 내방자가 또 와도 「다음」 표시만 클릭하면 해당인의 사정이 화면에 뜨게 된다. 같은 시간에 몇명이든 다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저장능력과 변환능력 역시 탁월하다는 평가이다.
◇ 값 4백만원

■ 육임운세사이트

한글창 「육임나라」 또는 「한국육임학회」를 들어오면 최적중 고급 육임정단을 받아갈 수 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사정에 처했을때 1만원의 과금으로 가장 정직한 판단내용을 보아 승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값 1회 1만원

■ 주문전화 : 02)993-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주)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
■ 담 당 : 김영란
■ E-amil : yukimnala66@hanmil.net

육임도서 전문출판 **육 임 나 라 주 식 회 사**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하단)

사찰행사문의
49재, 천도재, 바라, 나비무
살풀이, 승무, 회심곡, 태평소
학인모집 . 실전위주교육
범음 · 범패
017-556-5691부산 장전동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범천명리강의실

기문둔갑	12월 4일(월)낮2-5시첫강의
육 효	12월 5일(월)낮2-5시첫강의
사(일)주	12월 7일 (금)낮2-5시첫강의

* 위과목 첫강의는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위과목 공개강의 없으며 사전등록 바랍니다
* 각 과목 3개월(12주)에 확실히 책임완성지도
www.beumchun.com
02) 389-6597(연신내)

무각닷컴 사주클럽
격국을 잡아야 용신이 보입니다. 사주가 늘지 않는 분 직접 사주를 풀면서 용신분석 강의 지방계신 분들도 인터넷 강의와 문제지 매주 발송 초보 6개월 완성 월 10만 파격가
전화상담(만원), 방문상담(이만원)
02)831-2202/ 019-838-6908
www.mukak.com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경전공부
● 과목: 천수, 반야, 미타, 금강, 법화
● 일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문의 041)662-9489
011-9937-7667
반야암주 합장

법화경특강
1. 셋째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2.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 3층
3. 회비 만원 법화경(삼만원)증정
053)952-8711
017-501-8711
불교해동대학원

기공지도자
전문과정모집
행자모집
30년전통불선도(佛仙道)
대한불교전통기공협회
051)852-2277
016-551-9700

천도재.49재
일인스님 20만원
이인스님 40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해 드립니다
▷부산, 경남지역
010-7747-5222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 22,2평형 - 3세대
■ 18평형 - 3세대
■ 14평형 - 5세대
} 총 잔여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문의 전화 054)772-7171 011-538-3879

사주명리구성학성명택일 궁합 관상 풍수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무 료
좋은인연 맺어 드립니다
결혼 · 초혼 · 재혼
지장사
02)2236-2284
019-634-3069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
011-591-5277

역학 · 전생요법
전생퇴행. 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2-2265-8023
011-772-4606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전스님 여 종무원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0-9357-6966

토굴수행중인 스님입니다. 약 7평정도의 법당 불사 중입니다. 목탁, 종, 탱화, 불구, 그림 등 한점이라도 보시 원하시는 분 연락 부탁 드립니다. 달마암
042)282-2334
016-606-5658

남해바다 근접한 새로 개척하는 산사입니다 무보시로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이나 공양주 보살님의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010-2511-1188

공양주 구함 부부도 가능
▷용인소재사찰
031)335-2576
011-270-2675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1. 신심있고 내집처럼 살 비구니 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운전가능한자)
2. 남 · 여 행자 스님 구합니다
011-9803-6301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 모심
조용한 사찰입니다.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을 각각 모십니다. 부부가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삼랑진)011-584-3535

평생도반 신의와 믿음으로 남은 여생 함께 기도하며 살고 싶은 신심이 건강한 임진생 비구승임. 아담한 기도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보살님 인연 바랍니다
018-406-3073

중년 처사입니다 부처님 · 성지 기도 · 순례 · 봉행 도반 인연 맺을 불자님 연락주십시오
031)375-1831

사찰운영 맡기실분 기공치료. 역학
▷비구승
010-7777-8545

비구니,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019-579-04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환영
02)917-3363(정릉)

부전스님 모십니다
053)632-48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9851-2116

女사무원 구합니다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경기도 화성
031)356-9117

부전스님(비구) 모십니다
▷광주
016-273-5527

평생 같이하실 기도스님 모십니다
051)242-1684
016-9730-3003

공양주(채공) 모십니다
054)834-69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천년고찰 소백산지역
011-527-0637

조용한 암자에서 성실하고 신심있는 처사님을 모십니다 (운전면허소지자)
011-392-6885

숙식가능하신 공양주 보살님 1분, 경리보살 1분 (PC가능자)구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신심이 돈독하신 분
▷경주 왕룡사원
017-531-7770

사무장(女) 급구
사찰에서 숙식 가능한 분으로 컴퓨터와 회계를 하실 수 있는 분
지참서류: 이력서,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산 불국사
031)719-0408

조계종 승려로 소백산 지장보궁에서 사원을 돌볼 겸 자기 기도할 스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청정한 도량에서 도량지킬 신심있는 40 ~50대의 공양주를 구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사찰
010-3744-3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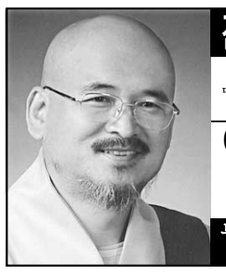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41)542-4669
010-5222-4669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방위 보는 방법을 1:1로 전수하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탱화 및 관음도
● 법당용 탱화
● 개인 소장용 관음도
● 지장도 비천상 주악도
● 소품용 단청 문양
보리수 불화 공방
011-9180-327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조성불사 권선문

산승이 1,000일 기도중에 11면 42수 천수천안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투시어 33자 10M로 불상을 목불로 조성 하여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는 현몽가피를 받아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큰 원력과 신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받쳐서 기도 발원 드립니다.
참된 나를 찾아 가는 불자님께서 이번에 조성하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께 큰 신심을 내시어 큰인연 공덕을 지어주시고 무량복덕을 성취하여 수명장수하고 세세생생에 성불하십시오.

11면 42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시주문

11면	한분	200만원
42수	1손	200만원
천수	1손	20만원
본불	1분	3,000만원
남순동자, 해상용왕	각 1분	1000분
관음 천불	1분	20만원

연락처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455-5번지
청계산 덕왕사 주지 풍운 · 용각 합장
전화 054)853-3855, 854-3855
온라인 : 농 협 729-02-117074(예금주:유재하)
국민은행 622-24-0064-982
우 체 국 700435-02-005878

할아버지 · 할머니, 아들 · 딸, 손자 · 손녀
가족이 함께 기도함
전국에서 기도동참하고 있음 지방분 환영
개인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기도함
원하는 소원성취가 잘 향상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전국성지순례 영가천도 · 무병장수 상담환영
각종테이프 준비되어 있슴. 활용하셔요.
대불정능엄신주, 태아영가천도
지장경, 약사여래경, 영가천도
매주 토요일 철야 기도함
단계별 능력에 맞춰 개인별 특별지도
참회 · 정진 · 발원 · 회향
기도와 회양 보시와 불공 방법은 중요함
대불정능엄신주 독송하는 불자님 테이프
꼭 활용하십시오. 초보자에게는 중요함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 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國際佛敎 僧伽會 所屬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정대행 : 각암대종사 ● 원로의장 : 청산
● 중앙종회의장 : 무 원 ● 사정원장 : 지 원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부원장 : 허 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하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7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인천 ● 법당: 20평 ● 요사: 35평 ● 부지: 760평 ● 가액: 21억
● 위치: 강원 (동해안지역) ● 법당: 25평 ● 요사: 50평 ● 부지: 270평 ● 가액: 5억 5000
● 위치: 마산 ● 법당: 17평 ● 요사: 32평 ● 부지: 100평 ● 가액: 2억 6500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 주변
● 부지 180평
● 임법당, 주지실 1동, 방 6개 요사 및 공양간, 산신각 1동
● 자연경관 멋진 도심 속 토굴
● 가액 : 1억 7천만원 (융자 5천 포함)
011-803-696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1억2천5백만원
011-595-7878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140평 ● 법당: 12평 ● 요사: 15평 ● 가액: 5천5백
● 위치: 온양근교 ● 부지: 150평 ● 법당: 12평 ● 요사: 14평 ● 전세: 2천만원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
● 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 가격절충
011-9516-536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 대지: 170평, 법당: 25평
● 요사 2동, 산신각 주차시설 약 10대
● 사용평수: 약 1천평 부전스님 모심
● 가액: 4억원
010-8529-0863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에서 30분거리
● 대지 402평, 임야 40평
● 대웅전 33평(삼존불)
●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사용평수 : 600평 경내 조경 잘 되어 있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1-9411-5302

포교당(급)안내
서울 강남 도심지 최고의 위치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포교원으로서 주지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합니다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시설: 법당 50평, 방 2개, 주방 1개, 화장실 2
● 삼존불, 후불괘불, 관음보살 50분 , 신중산신각, 나한존자 16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
011-9269-8445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 대지: 약 90평 ● 법당: 25평 ● 요사: 30평 ● 가액: 3억 8천
● 위치: 경남 밀양 ● 대지: 1100평 ● 법당: 10평, 25평(2개) ● 요사: 22평, 21평(2개) ● 가액: 2억 7천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오곡동 사찰(양옥)
● 대지660평, 신축 5년 법당 26평, 산신당 17평, 요사채 10평
● 아름다운 정원과 좋은 약수물 있음
● 가액 : 3억 6천
011-424-325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5분거리
● 부지: 1천평 산을 등지고 편안한 절터
● 법당 15평, 산신각 3평 연못 위에 용왕각 6평
● 요사채 75평, 심야보일러 50평
● 가액: 집기포함 2억 8천5백
016-536-8774

포 교 원 안 내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최요지
● 법당, 주지실, 사무실, 공양간
● 평수: 50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5만원
● 시설집기 일체 포함 3,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9-293-9369

사찰(급)안내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사찰역사 320년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에서 20분거리. 교통편리
● 대지: 42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30평(방5)
● 가액: 9천5백만원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토 굴 〉
● 위치:부산시내바닷가
● 20평,30평,40평
● 1500만원~1억까지
● 아주다양함
● 바다전망 특별 빼어남
〈 사 찰 〉
● 부지: 3만3천평
● 위치: 삼랑진 정남향(양명) 산세 계곡물 철철 주변경관 특별 빼어남
● 가액: 4억
〈 포 교 선 원 〉
● 위치:구미시청근처
● 법당 및 요사 95평
● 어린이 법회
● 불교대학
● 가액: 2억 3천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양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사 찰 안 내
● 위치: 삼각산 세검정 기도도량
● 대지: 84평 사유지, 약 74평(국유지)
● 건물: 3층건물에 3층 법당 2층 천불법당, 사무실, 직무실, 방6개 식당방부엌
● 삼성각 있음
● 가액: 23억 5천만원
017-274-1633 / 02)391-5112

사찰 및 명상센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7평, 건평: 75평.
● 법당, 요사, 화장실, 창고, 기역자형
● 산좌수려, 아파트 개발 예정지 근교 현대식건물,기도터 및 명상및교육센터
버스 및 지하철 교통편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624-091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지: 117평
● 법당, 요사채, 대중공양간, 주지실 등 ,방 4개, 스님 화장실1, 신도 화장실 1, 심야보일러
● 가액: 1억 5천 8백만원 (절충가능)
사정상 시세 이하 계산합니다
010-6215-8784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내
● 대지: 98평
● 건물: 약 200평
● 주차공간 충분함
● 가액: 10억
● 엘리베이터 있는 4층 현대식건물임 포교 · 불교대학 최적지임
010-9550-8793

명 당 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의신 (의신골 금혈자리)
● 전 800평
● 가액: 2억 5천만원 양택지, 수양터 최적
010-4746-5483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앞
● 평수: 35평
● 부처님, 삼존불, 산신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입주가능,철학관도 가능
02)433-1106
010-7440-334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상계동 소재
● 아담하고 수려한 경관 (계곡 옆) 사찰 팝니다
● 국유지 53평(밭도 있음)
● 가액: 3억
02)951-9393
016-222-3505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단양군
● 부지 430평중 대지 290평
● 법당: 40평, 요사: 60평 지장전 20평
● 가액: 1억 2천 5백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011-9567-530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탱화 및 산신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2)902-400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3호선 홍제역 1분내 위치함 3층건물에3층, 대로변 인접
● 법당 20평, 옥탑방 숙식가능 삼존불, 후불탱화,신중탱화 산신탱화,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700만원 월 33만원
● 시설비 850만원(집기 일체 포함)
02)720-2230
011-252-6116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창원시내
● 평수: 100평
● 4층건물 중 3층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4877-5900

사 찰 안 내
●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고속도로 횡성IC, 새말 IC 20분
● 대지 500평(미등기 1,000평) 법당 30평(2층 1층 요사, 2층 법당) 요사채 70평, 산신각
● 가액: 3억(절충가능)
010-7211-5066/017-420-2200

포교당안내
● 위치: 용산구 동자동(서울역부근)
● 4층건물에 3층, 4층은 요사채
● 평수: 20평
● 삼존불, 아미타관세음, 약사,지장 시설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살림 가) 꼭 하실분만 전화하세요
02)718-0327

사찰안내 (부산근교)
● 경남 웅촌 별장 360평-2억 3천
● 경남 울주 별장 170평-1억
● 경남 김해 주촌 사찰 203평-2억5천
● 부산시내 황령산밑 사찰 350평-5억2천
● 부산 사하 사찰 250평- 7억 5천
● 부산 시내 사찰 400평-12억
011-855-6699(남문)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4층 건물 중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가격절충
● 즉시법회가능,시설완벽 몸만 오세요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8676-6921

지 리 산 토 굴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 입구
● 법당목조 20평
● 요사: 20평, 공양간 7평
● 대지 : 430평
● 가액: 9천 5백만원
010-7179-3699

암 자 안 내
● 위치: 구미시 인접 칠곡군 약목면 임법당, 연꽃연못 정원 및 밭
● 임대보증금 200만원 연 390만원 양도도 가능
017-813-9126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부곡면
● 대지: 평수 92평, 정남쪽집
● 작은방 2, 큰방 1개 화장실 2개, 큰 주방 1개
● 가액: 4천 7백만원
이 토굴이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010-4586-156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아산시 대방면 화룡리
● 대지: 310평
● 요사채50평, 요사채10평 법당 20평
● 가액: 8500만원
010-7271-4020
010-2000-5809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청 잔듸광장 앞
● 5층 건물 중 4층(42평) 방 1개, 베란다, 주방
● 전철: 의정부역에서 10분거리 주위에 식당상가지역입니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7백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1-258-6432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3층 법당 40평 다다미방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삼존불,탱화,신중탱화,산신탱화 모신지 두달 됨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절충가) 몸만 오시면 됨. 시설완비
010-5710-1732

암 자 (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임금산 밑 엄부혈 명당터
● 평수: 600평
● 가액: 3천 5백만원
010-3189-3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부지: 240평, 법당: 20평
● 언제든지 법회가능
● 요사채: 20평 가전제품일절구비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30만원
011-879-755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온천시장 뒷길
● 2층건물 중 2층 , 60평
● 에어컨, 엠프 등 시설완비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조성비): 3천만원
051) 554-2406
011-843-240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 건물: 5층에 3층
● 평수: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3715-6333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웅천
● 부지: 대지 67평
● 임법당
● 가액: 1500만원
011-653-7801

불교용품판매점(만물상)
● 위치: 충남공주지역
● 평수: 약 20평
● 주거가능 방 1, 주방
● 현 성업중
● 집기 및 불기용품 일체
● 건물포함
● 가액: 63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
010-8828-3002

사 찰 같 은 임 법 당
● 위치: 부산 온천 금정마을 교통편리
● 대지: 62 평, 건물 38평, 방 2 小2 (법당 30평, 삼존불, 지장단, 산신당 등)
● 마당전체가건물 약 17평 공양간
● 별도입구 방 5평 위 전체 다락방 有
● 모든시설포함, 방문확인 후 결정
● 가액: 2억 3천만원(대출가능7천만)
011-842-6123(주지직)

강 릉 쪽 대 지 교 환
가액: 약 6억원 가량
전통 사찰과
교환 원합니다
018-260-789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서동 각산역
● 평수: 약 70평
● 건물: 4층에 4층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53)961-337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구역앞
● 평수: 25평
● 가액: 보증금 無 1년 월세 일시불 24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900만원
● 즉시법회가능 역학하시는분 최적지
053)426-4162
010-8200-2055

옛 절 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
● 현재 유실수 경영 주말농장, 농장 사택 앞 대형저수지있음, 대형버스진입 주차장완비
● 실제평수: 약 1300평정도
● 산세수려하고 지하수완비
● 가액: 11억. 가격절충
011-9323-4979/010-9903-808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주군 삼남면
● 평수: 2층 60평
● 주지실, 상담실, 공양실, 욕실, 삼존불과 후불 산신.신중.관음.지장탱화 소불 520불 집기일체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383-5030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임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술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 (융자 4천 포함)
033)562-7053
011-9793-705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송현동 주공아파트 맞은편 주공시장 입구 건물 4층
● 평수: 53평 (삼존불, 산신나한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즉시법회가능 시설 A급
010-3773-4367

사 찰 안 내
스님 노후 토굴 겸, 도심속 아담한 사찰
● 위치: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 미터 코너 절
● 대지 112평, 건평 123평, 일층 점포 다섯개
● 2층 법당, 부처님 후불 탱 입체,칠성탱 입체, 신중탱 입체, 대작품 부처님 삼신불 좌대 포함 넉자 세치, 법단 삼단 조각
● 점포 다섯개에서 매월 임대로 150만원 나옴
● 가액 : 4억 1천 7백만원
● 준비금 : 2억 1천 7백만원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 적합
스님 해외 문제로 사정상 급 안내
010-6411-288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주 근교
● 부지: 500여평(무상임대)
● 법당: 20여평(건물만등기) 기타 : 방3개
● 특징: 물이 좋은 아담한 숲속 차진입, 약 70여년의 연혁
● 참고:납골당 또는 실버타운 최적지
● 5,000여평 불하 가능
● 가액: 9500만원
011-288-6668

포 교 당 안 내
● 위치:서울시 목동 사거리 남부시장옆
● 3층건물중 3층, 약 53평
● 법당, 방2, 부엌, 목욕탕, 베란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존불과 탱화가 잘 갖추어져 있음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621-9216
02)2645-4200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낭성면 삼산리
● 대지: 466평 건평: 44평 (1층- 방5개, 주방, 욕실 2층법당-삼존불상, 탱화 3종 등 별도절충)
● 가액: 1억 9500만원
● 사찰 및 기도원, 개인 · 단체요양원, 별장주택 계곡 있고, 경관좋음
● 4차선 계획도로 인접, 신행정도시
● 오성의료단지, 오창과학단지에서 30분 거리
● 투자가치확실, 심야보일러, 지하암반심층수 즉시입주가능
010-2529-3939

韓 · 印 문화교류의 구심점 '원효와 원측'

조은수 교수 '인도와 한국불교, 그 연속과…' 서 조명

원효 새로운 불교해석과 체계 이끈 선구자

원측 '반야심경찬' 인도 여러학파 이론 수용



서울대 철학연구소 · 문화유산연구소는 '한국과 인도의 문화 · 사상교류'를 주제로 10월 31일 서울대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조은수 교수(사진 오른쪽)와 인도 델리대 바트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

인도와 한국은 긴 역사를 두고 문화적 연관성을 깊이 유지해 왔다. 특히 인도와 한국불교의 만남은 실제적인 교류를 넘어서 이념과 사상 그리고 유 · 무형적 만남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교두보 역할과 구심점에는 원측과 원효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 문화유산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조은수 교수는 논문 '인도와 한국불교, 그 연속과 불연속'을 통해 원측과 원효의 저술과 사상이 불설(佛說, buddha-vacana: 인도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보편적 진리)에 나타난 논의들을 어떤 식으로 계승 · 변화 · 발전시키고 있고 또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조 교수는 인도와 한국불교 간의 이념 · 문화적 교류에 있어서 원효와 원측의 저술과 사상에 초점을 맞춰 인도와 한국불교 간의 연속과 불연속성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 중국의 선종이 성립하는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으며 인도불교의 인식론적 태도와 존재론적 전제에 대한 이해와 재해석이 녹아져 있다"고 주장했다.

즉 원효를 인도와 중국의 수많은 불교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불교 해석과 이론체계를 제시하는 끊임없는 변화와 재해석에 참여한 고대 동아시아 불교형성의 선구자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

조 교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원효의 저술들은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뿐만 아니라 중국 삼론종의 사상가인 승조나 길장의 저서를 인용한 것으로 유추했을 때 원효는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학승이라기보다는 당시 당나라를 비롯한 범아시아 불교문화권의 선각자로서 불교 이론의 스펙트럼을 모두 섭렵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효는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불교학적 또는 인문학적 지식의 지평을 넘어서 그 시대의 불교학적 지식 시스템과 전통을 해석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자임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또 원측의 저술 <반야심경찬> <해심밀경소> <인왕경소>등에 나타난 불교사상을 통해 인도와 한국불교 간의 연속에 주목했다.

조 교수는 "<유마경>에서는 부처님의 행위는 소리로 표현되고 있으며 <성유식론>에서는 법에 대한 가려짐 없는 지식 즉 명(名), 구(句), 문(文)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십이지>에서는 불설은 성(聲)과 명(名)에 의존한다"며 "원측의 <반야심경찬>이라는 주석서도 인도의 여러 불교학파들의 불설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측의 <해심밀경>과 <인왕경소>는 종(宗:부처님이 가르친 내용)과 체(體:교체를 드러내는 수단과 표현)를 소개하고 그 개념들을 붓다바차나의 논의에 결합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원측의 저술은 '인도 아비달마 문헌에 나타나는 부다바차나의 이론에서부터 유식학파의 궁극적 가르침에 대한 이론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전이 과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여래장과 화엄사상에 기반하는 체와 용, 이와 사 등의 본체와 현상간의 이분화와 동일화를 넘나드는 이론"이라고 말했다.

논평에 나선 인도 델리대 바트 교수는 "조 교수의 논문은 7세기 무렵 한국의 고승들의 저서와 사상을 통해 인도와 한국불교 간의 사상 · 문화 교류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원효의 <금강삼매론>을 인도의 인식론과 결부시킨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인도의 문화 · 사상교류'를 주제로 10월 31일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황순일 교수의 '붓다의 10가지 호칭의 기원과 전개' 서울대 이주형 교수의 '보드가야에서 쿠쿠테슈바라로:석굴암과 인도의 유례' 인도 델리대 라나 교수의 '선불교의 사상과 예술' 인도 뭄바이대 소마미야불교학센터 샹카르나리얀 연구원의 '인도와 한국 승려들의 문화교류' 등 8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도선 · 사명 스님 진영 등 보물 지정 예고



도선 국사 진영



사명 대사 진영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도선국사 진영(순천 선암사, 1805 作)' '사명당대장 진영(대구 동화사, 1796 作)' 등 12건의 초상화와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이번에 지정예고 된 초상화 12건은 예술 · 역사 ·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이들 초상은 복식과 의관, 기물이 다양하고 매우 화려할 뿐만 아니라 조선말기 초상화 풍인 높은 묘사력과 화격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최상급의 걸작들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조각기법이 자연스럽고 조형미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유물에서는 1388년 중수개금한 내용의 기문이 발견돼 그 이전에 불상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다.

노병철 기자

선문화학회 '청담 대선사…' 개최

한국선문화학회(회장 이평래)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청담 대선사의 사상과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의 기조발표 '청담스님의 정화사상과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해 동국대 김선근 교수의 '청담스님의 한국불교사에서의 위치' 북경대 김방룡 교수의 '청담스님의 수행관에 대한 일고찰'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기영 박사 추모 학술대회 열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11월 3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불연 이기영 박사 추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동국대 김상현 교수의 '불연 이기영과 한국불교사 연구' 동국대 문을식 교수의 '이기영의 경전 번역의 방법에 대한 시론' 등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세계적인 불교학자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캘리포니아 웨스트 컬리지)와 허버트 디르트 교수(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도 참석해 故 이기영 박사에 대한 추모의 글을 발표했다.

한국불교학회, 11일 추계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이평래)는 11월 11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제45회 추계전국불교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선과 수행, 응용불교학 등 총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동국대 김호귀 교수의 '선종이 신심' 동국대 이남경 교수의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선 카운셀링' 원광대 윤양호 교수의 '현대불교와 선조형예술' 등을 포함해 14편의 논문이 소개될 예정이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7>

광우병

몇 년 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수입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소는 광대한 초원에서 방목되지 않고 협소한 사육공간에서 키워진다. 소가 사는 환경과 위생관리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때문에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미국의 '거대한 자본 경제 논리'는 오직 적은 원가로 빨리 어미 소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제와 항생제를 투여한다. 먹이 또한 동물의 내장 등으로 만든 사료를 먹인다.

자본주의적 생산성 질병도 함께 '생산'
자연섭리 거스른 탐욕 의한 재앙 예고

광우병은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연의 재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미국의 과학자 가이 듀섹은 죽은 시체의 뇌를 먹는 식인족에서 유사한 병을 발견했다.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소뇌가 스펀지처럼 뚫림으로써, 사지를 쓰지 못하다가 죽고마는 무서운 병이다. 유사한 병들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밍크나 양떼에서도 발견됐는데 유사한 점은 모두 동물 사료를 먹은 동물에게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광우병을 옮기는 물질인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을 발견했다. 단백질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물질이다. 우리의 몸을 만드는 일, 호르몬을 분비하는 일, 심지어 외부 병원군에 대응하는 일에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가는 세포의 핵안에 있는 DNA가 결정한다. 음식으로부터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분자로 분해한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이 아미노산을 다시 합성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의 모습이 몸의 세포 안에 있는 DNA에 적혀있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바뀐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밝혀내고 있다.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프리온이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을 분해하지도, 병원균으로 인식해서 공격하지도 못한다. 음식에 풍부히 포함된 다른 단백질과는 다르게 스스로 이상한 단백질로 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몸속에 들어온 프리온은 척추, 뇌 등의 신경조직에 싸이면서 뇌세포의 이상 변이에 관여해서 광우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러스나 다른 병원균과는 다르게 스스로 복제해서 번식하는 기능이 없는 단백질일 따름이어서 더욱 발견과 퇴치를 어렵게 만든다. 웬만한 열이나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지 않음은 물론 현재까지 발견된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도 통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상 단백질의 출현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라고 말한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는 인간의 현재의 모습을 '하이테크 식인주의'라고까지 비판한다. 값싸게 만들어진 고기를 먹고 비만을 걱정하고, 차를 타고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는 모습 등이 그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자비심을 배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고기를 먹지 않는 불교의 계율로부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 인근
- 대지: 420평
- 법당 13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5~6평
- 가액: 1억 3천만원
011-511-0926

사찰안내
- 위치: 충북 괴산(증평)
- 법당 30평요사 35평, 20평 가건물 15평,텃밭 300평 대지 약 400평
- 특징: 심야보일러, 지방문화제 천년석조 약사여래불 깔끔한 사찰
- 가액: 2억 4천 5백만원
043)836-9149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의성
- 평수: 대지 150평, 요사 2동
- 건평: 54평
- 삼존불, 16나한 봉안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선세180만원(합 980만원)
- 시설비: 300만원
010-6374-0034

절터(급)안내
- 위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 대지: 660평
- 구가옥 창고 30평
- 가액: 평당 40만원 (절충가능)
011-299-4465
031)674-7188

사찰안내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가액: 17억 사찰역사 320년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절터나토굴터필요하신분
- 위치: 경주 보문단지 윗쪽
- 평수: 등기 상 약 450평
- 전체 면적 (하천부지포함) 약 1000평 사용하고 있음
- 산세가 아름답고 물과 공기가 좋은곳, 사찰 혹은 토굴터나 팬션하실분
017-803-0202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진천근교 서울에서 1시간거리
- 부지: 총 550평중 대지 300평 (실사용평수 650평)
- 건물: 요사채 40평 (요사채일부 임법당) 법당지 건축허가필
- 특징: 산세수려, 교통편리
- 가액: 1억 8천 5백만원
010-2333-3638

사찰안내
- 위치: 청주 시내, 공원 옆 주차 20대 가능
- 대지: 65평, 건물 2동
- 법당: 25평 (최신식 건물) 방 1개, 욕실, 화장실1, 마당
- 요사채: 30평 (리모델링완벽), 큰 사무실 1, 방 2 큰 창고방 1, 창고, 욕실, 화장실1, 심야보일러
- 가액: 모든시설 집기포함 2억 8천(절충가능)
- 5년 후 재개발지역으로 확정
043)267-7580
010-8421-2255

토굴안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 2억 2천만원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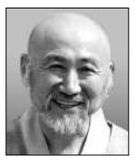
6. 강 좌 일
- 2006년 11월 30일 ~ 12월 2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 · 사혈기 및 필수 부항 · 펌프 보시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일주문



선서화전 수익금 조계사에 전달

선서화가 범주 스님은 선서화전에서 얻은 수익금 2000만원을 조계사 시민선방 건립을 위해 10월 31일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에게 전달했다.



운흥사 천불천등 점안점등법회 봉행

대구 운흥사 주지 종운 스님은 야외 천불보전을 건립하고 10월 29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천불천등 점안점등법회를 봉행했다.



광제사 개원 3주년 법회

광주 광제사 주지 석두 스님은 11월 2일 미타전에서 광제사 개원 3주년을 맞아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 강연

이어령 前 문화부장관은 11월 15일 오후 3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동국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 인문학의 뿌리는 불교'를 주제로 강연한다.



제9회 김동리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승원씨가 장편소설 <소설 원효>로 김동리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제9회 김동리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국 민간 수공예품 전시회

이근우 청담문화센터 원장은 중국 영성시 대외문화교류협회를 초청해 '민간 수공예품 전시회'를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청담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대구경북포교사단 정기연수

대구경북포교사단 최문성 단장은 400여 명의 포교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10월 29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불기 2550년 하반기 정기연수회를 개최했다.



불일청년회 '원각의 밤' 개최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 이승동 회장은 창립 27주년을 맞아 11월 11일 오후 5시 광주 드맹아트홀에서 '원각의 밤'을 개최한다. (062)223-3168

'직지 사랑' 실천 박충일씨 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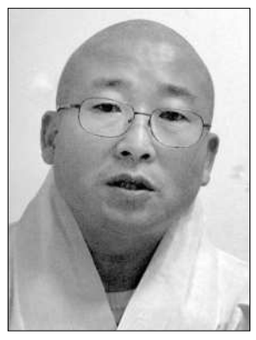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신도회 박충일 고문(사진)이 11월 1일 오전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1935년 출생한 박 고문은 범국민직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직지' 사랑을 펼쳐왔다. 또 신흥인쇄 대표이사,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불광사 신도회장 등을 맡으며 불교계 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남동우 기자**

"행복 나누고 공덕 쌓는 음악잔치"

이웃돕기 자선음악회 여는 법경 스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고민과 행복을 나누고, 좀더 여유로운 분들에게는 복짓는 길을 열어주는 자선음악회입니다."

광진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법경 스님(서울 능인정사 주지·사진)이 11월 10일 오후 2시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 공개홀에서 '2006 더불어 살아가는 날 어려운 이웃·난치병 환우와 함께 하는 나눔이 하나되는 세상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자치구 단위로 뭉쳐서 나눔의 음악회를 만든 것은 도심포교당이 자치구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는 스님은 "어려운 이웃 300여명을 초청해서 음악도 즐기고 부처님 자비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선음악회 1부는 자비의 쌀 및 병원 의료비 지원 전달식과 유공자 표창, 감사패 전달 등이 이뤄진다. 2부는 방송인 김병조씨가 사회를 맡아 불자가수회 회장 김흥국씨를 비롯해 남궁옥분 이은하 심진 스님 박다은 머루다래 국도영 신이나판소리 등이 출연한다.

"자선음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만나고,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 법경 스님의 작은 바람이다. (02)455-1080 **강지연 기자**

불국사 필리핀 포교원 불우이웃돕기



불국사 필리핀 포교원 신도들이 화산폭발 피해지역인 피나투보를 방문 지역 주민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공=불국사 필리핀 포교원

경주 불국사 필리핀 포교원(주지 법관)은 10월 31일 필리핀의 대표적인 빈민마을인 피나투보 지역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펼쳤다. 필리핀 포교원은 현지 주민 3백여 가구에게 쌀 10가마, 빵 500봉지, 옷 5박스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의료 봉사도 펼쳤다. 주지 법관 스님은 "피나투보 지역은 1991년 화산대폭발이 났던 곳이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이곳은 수도 마닐라에서도 8시간 정도 거리의 오지에 있기 때문에 구호의 손길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불국사 필리핀 포교원의 불우이웃돕기와 봉사활동은 필리핀 민영방송인 '스튜디오 23 TV' 채널에서 40여분간 다큐멘터리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지역신행운동 이끄는 이론과 실천토대 마련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설동근 초대회장



"거름이 필요합니다. 기복불교를 벗어나 부처님 정법을 홍포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학술적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거름이 되겠다는 마음뿐입니다."

10월 3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창립한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의 회장직을 맡은 설동근(사진) 부산시 교육감은 맡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현재의 직책과 관련 공식종교활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피와 스님들의 기도 원력으로 살아온 나로서는 불교를 위해서라면 개인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서야 한다는 의무를 느낀다"고 말했다.

설 회장은 "한달에 한번 정도는 사찰을 찾아 108배 정진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원의 공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학술세미나, 큰스님 초청 법회 등을 통해 부산불교에 새로운 활력과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수도권에 포교 연수원 설립해 전문 포교사 배출할 터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연정열 회장



"이제는 불교도 적극적으로 포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교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연정열 회장(70·사진)이 포교에 발벗고 나섰다. 한국법제사의 권위자이자 법학도로서 명망이 높은 연 회장은 "사단법인인 한국도덕운동협의회(회장 조사현)와 공동으로 수도권 근교의 초등학교 폐교를 인수해 불교포교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자신감 있게 포교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포교는 신심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갖춰야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포교연수 프로그램은 한국불교사, 응변, 좌담술, 충효·예절·도덕 교육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 폐교인수를 마치고 상반기 중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 회장은 지난 6월 한국 8개 종교 성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정 홍법사'로 취임식을 가졌다. **한명우 기자**

운주사의 모든 것 정성껏 소개

전국문화관광해설사 대상 박해소씨



"현대문명에 지친 이들이 운주사 탑과 불상 앞에서 희망을 찾곤 합니다. 이처럼 운주사가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소개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10월 27일 함평 생태공원에서 열린 '제1회 문화관광 해설사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박해소(운주사 문화해설사·사진)씨는 "가장 서민적인 사찰 운주사의 내면을 전국에 알리게 돼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운주사에서 4년째 매주 토요일 마다 참배객들에게 천불천탑을 안내하고 있는 박씨는 "못생기고, 상처가 많아 볼품없는 불상들이지만 세상사에 지친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위안을 받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이준엽 기자**

강릉 등명낙가사 일주문 낙성식



강릉 등명낙가사(주지 청우) 일주문 낙성식 및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산사음악회가 10월 28일 일주문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심재엽 국회의원 등 60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청우 스님은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도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11월 1일 KBS홀에서 제4회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서 관객들까지 한마음으로 소아암 환아들의 완치를 기원했다. 수익금은 전액 소아암 환아에게 지원됐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52501-04-040046(예금주 니르바나)

인천중부署 불교회 창립 3주년 기념법회



인천중부경찰서 불교회(회장 이판열)는 10월 27일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창립3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인천중부경찰서 경승 보문(월천사 주지), 태고종 인천교구종무원장 대은 스님과 김영열 인천중부경찰서장, 인천재가불자연합회 문용태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매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패착한 부동산정책

필자는 지난 2005년 1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집이 없다. 청와대 올 때 집을 팔고 왔다. 내 아들도 집이 없다. 나를 포함해 서민들이 집을 살 때 까지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했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대통령이 자기 집이 없다고 집값을 잡겠다는 말이 대통령의 권위로서 합당한 말인가'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얼마나 솔직한 발언인가'라는 말을 하는 인사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관련 대책은 모두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퍼부어 대는 부동산 대책 폭탄이 약효가 안 먹히고 있다. 약효가 안 먹힐 뿐만 아니라 정책의 부작용으로 엉뚱한 쪽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말 '강남 아줌마' 수준보다 못한 부동산 대책에 국민이 멍이 든다.

윤락여성에 대한 대책을 말할 때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 바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도 이와 흡사한 면이 있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패착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돈 가진 사람, 강남사람이 사는 지역의 집값을 잡고 지역균형발전을 시키겠다고 시작한 것이 결국 강남기대수익율을 더 높이고 지방땅값만 상승시켰다. 원래 부동산 정책이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주택공급확대, 유동자금의 건전한 투자유도, 부동산관련 조세 강화 등의 정책이 나와야 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돈 있고 강남 사는 사람만 잡으면 전 국민이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집값은 더 오르고 서민들은 집 갖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첫 번째 패착(敗着)이다.

둘째, 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책의 홍수다. 노무현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불로소득이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원인이므로 이를 100% 환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무공급, 분양가 원가공개, 개발이익환수 등 주택공급을 방해하는 조치를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다보니 서울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중대형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본주의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정책이 패착의 두 번째다.

셋째, 즉흥적, 무계획적, 보복적 부동산 정책이다. 참여정부들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급억제 정책과 엉뚱한 곳에 수요를 만들려는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왔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정교한 계획도 없이 신도시 발표를 했다. 부동산 정책의 일반적 경향인 장기적 차원의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의 관점도 아니고, 단기적 차원의 시장안정 대책도 아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섰는데 검단에 분당급 신도시, 파주에 일산급 신도시를 세운다고 발표를 하면 관심 있고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알맞은 대책이라고 보는가.

특히 신도시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서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가격이다. 한마디로 가진자들만을 위한 명품 신도시 계획인 셈이다. 이는 계층간의 위화감은 물론 빈부의 차를 더 크게 만들어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젊은 사람이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44년이 걸린다는 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집값도 못잡고, 서민들 주거안정도 달성하지 못한 최근의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야말로 정책의 하지하(下之下)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 기본 욕구의 위계설을 주장했다. 인간은 생존의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자존감에 대한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 욕구는 위계가 있어서 하위의 욕구를 충족해야 상위 수준의 욕구가 생긴다. 즉 앞에 열거한 순서대로 욕구를 충족시켜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겨나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의 욕구로 발달해 간다.

최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99년에 이어 7년 만에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477개소. 1995년에 비해 382개소, 1999년에 비해 165개소가 늘었다.

이 결과를 분석해보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불균형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에 대입해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분명히 보인다.

불교복지의 다양성 '화두'

불교계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봉사하는 부문이 아직 기본적인 욕구 즉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좀더 인간다운 삶, 나아가 영성까지 추구하는 여타 종교의 복지 지향성에 비하면 초보적 단계다.

매슬로우는 훗날 욕구 위계의 5단계에 한 단계를 추가시켰다. '개인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다. 불자들이야말로 바로 이 최상위의 욕구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를 보면 전체의 65.6%인 255개소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이며, 순수 불교계 직영 시설은 34.4%인 134개소에 불과하다. 즉 불교의 종교성을 구현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인간욕구의 가장 높은 단계인 부처님 법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복지시설운영을 통해 활발히 종교 전도 활동을 벌이는 타종교와 현저히 비교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스님이 재직하는 시설이 조금 늘어난(6.6%)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 권경희(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특별기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보고



'선거가 종단 망친다' 곳곳서 개탄, 승단 위계까지 '위협'

'대중공의' 취지 갈수록 흐려져…율장정신 되새기자

제14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회오리바람처럼 지나갔다. 종단 정치로부터 먼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왜 '회오리바람처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이번 선거와 관련된 이런저런 소리들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고 들은 소리들이 모두 종단의 앞날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 선거과정을 말로만 전해 들었지만, 마치 회오리바람이 들판을 휩쓸고 가듯 선거가 그렇게 치러졌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

선거와 돈, 세간의 선거든 출세간의 선거든 돈의 개입에 따른 부작용은 다를 바가 없는 듯 하다. 세간의 선거에서는 금품을 주고받으면 50배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출세간의 선거에서는 금품과 관련한 제도를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승가의 선거에서 돈이 오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가를 비승가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관련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공공연히 금품 살포를 둘러싼 말들이 나오고 세간으로까지 흘러 나간다. "출마자가 돈 쓰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고 얼마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자신의 의사 표시를 위해 투표권이 있는 스님들을 만나고 기본적인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황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규모가 경쟁적으로 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는 승가의 재원이 분배(?)되는 계기도 된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다고 한다. 선거를 통해 '가진 스님'의 '가진 것'이 그렇지 못한 스님들에게 분배가 된다는 말도 안되는 이 논리는 승가의 의식이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졌는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돈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선거가 승가의 기강과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종회의원이건 교구본사주지건 혹은 총무원장이건, 선출직의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자들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한 표를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찾아간 투표권자가 조카상좌라거나 강원이나 선원의 후배가 되는 경우라면 어떻겠는가?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중의 어른이나 선배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겠는가? 표와 권위를 바꾸는 것을 선거판의 일시적 상황논리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선거가 종단을 망친다." 이번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이 말이 종단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선거에 입후보한 스님도, 그 은사스님이나 상좌스님도, 한 표의 '힘'을 가지고 여러 유권자를 만난 스님도 이를 지켜보는 재가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이다.

종단의 구성원 모두가 선거에 대해 상당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오늘날 조계종의 선거는 1994년 개혁종단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 이전의 종권이 매우 불안하고 한 사람의 힘에 의해 종단이 사회의 변화를 외면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대한 자성으로부터 개혁의 불길이 솟구쳤었다.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종단은 환골탈퇴하여 많은 부분에서 민주적인 틀을 갖추었다. 그 과정에서 불교전통의 의견 수렴 방법, 즉 대중공의 전통을 통해 주요 직책 맡을 스님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간 선거가 치러져 오는 양상을 지켜보건대,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대중공의'라는 아름다운 전통의 가치를 좀먹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출가정신의 퇴색이 수행의지를 갉아 먹듯 개혁불사의 정신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욕망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한 탓에 '대중공의'가 세간의 선거를 능가하는 타락상으로 변한 것이다.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입적한 법장 스님이 총무원장 재임동안 선거법을 고쳐 승가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었다.

그 노력에 중앙종회의원 대다수가 동참했고 교구본사 주지를 비롯한 많은 승가 구성원들이 지지했었다. 그러나 종헌종법의 개정을 둘러싼 '실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들었다.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실리와 명분 간의 계산이 오고갔던 탓이리라.

출가자에게는 한 시도 떠나서는 안 될 곳, 잘못됐다 싶을 때 빨리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선거와 관련된 오늘날의 불합리한 현실에서 승가 구성원 모두가 돌아가야 할 곳 또한 그곳이다. 어디일까? '출가정신' '율장정신' 바로 그곳이다.

그곳으로 돌아가 개혁불사의 취지와 현재 종헌 종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 그간의 시행을 경험으로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고치고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세속화 일로를 걷고 있는 오늘날의 승단을 진정한 출세간의 자리로 돌려놓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 세간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출세간은 그 존립의 의미마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포교현장에서 매일같이 느낀다.

내 곁에는 불보살님보다 더 어려운 중생이 있다는 것을.

수진(부산 해인정사 주지)

'현대' 만평 심 민 섭



眞人으로 가는 最短의 지름길!

眞理探求진리탐구 先鋒者선봉자 및 道人도인들의 새 道場도량

⊙ 業障(업장)을 해결하고 갑시다
⊙ 遺傳(유전)으로 인한 병고에 시달리는 분
⊙ 原罪(원죄)해결 방법을 원하십니까
⊙ 心, 마음의 병으로 고통 받고 계시 분
⊙ "丹"(法輪)을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 靈氣(영기) 神氣(신기)를 뽑아냅시다

핵심(核心)에 직접 치고 들어가지 못해 수년씩 수행정진(修行精進)을 했다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혹은 빙의(憑依)되거나 영통(靈痛)에 그쳐 도통군자(道通君子)인 듯이 스스로에게 속아 몸과 정신에 악영향 (惡影響)을 끼치게 되어 건강을 잃는 불상사를 낳고, 후세(後世)에도 씻지 못할, 후회(後悔)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늪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遺傳유전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이 "法"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본인의 수련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 최초로 공개된 이 최첨단 수련법으로 나를, 참나(眞我)를 찾으십시오. 원하는 이는 누구나 이 법(法)을 전수 받을 수 있으며, 수련과 더불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법이 녹아들어 法體(법체)가 되어 감을 스스로 확실하게 체험 할 수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수행의 진수(眞髓)를 얻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 새롭게 태어난 "大 自由人"이 되도록 올바른 길을 인도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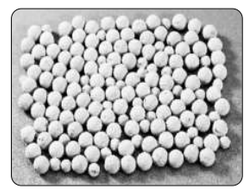
특히 眞理探求에 앞장 서시기를 원하는 우수한 指導者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歡迎)합니다.

서울시 정릉골 普德仙院 院長 올림

02)6081-8373 / 016-327-3772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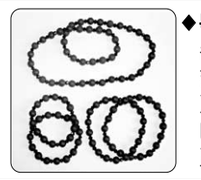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만 불광산사
개산 40주년

삼보일배로 초심 다진다



조산예불 행사에 참여한 타이중(台中)의 계명학교 시각장애인 학생들.



대만에 대승불교의 꽃을 만개시킨 불광산 개산 종장 싱윈 법사.



대만 남부 공업도시 까오슝에 위치한 불광산사 전경.



개산40주년을 맞아 불광산사 대웅전에서 열린 조산예불수지 행사. 사부대중 1만여명은 매주 3일씩 1년간 삼보일배를 하며 개산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1년 한번 하던 조산예불 내년까지 매주 3일간 봉행

개산종장 싱윈 법사, "신심 높이는 최고 수행" 강조

'부처님께 참배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자(以朝聖淨化身心)!'

대만 불광산사가 까오슝에 산문을 연 지 올해로 40주년. 신도 수 1백만명, 세계 각지에 200여개 분원, 170여개 국제불광협회 지부 등 '인간불교(人間佛教)'의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불광산사가 1967년부터 이어온 개산(開山)의 초심을 다지기 위해 2007년 5월 16일까지 '조산예불수지(朝山禮佛修持)'를 봉행한다. 조산예불수지는 이른 새벽, 부처님을 직접 참배하기 위해 삼보일배로 산에 올라 불심을 닦는 의식. 매주 금요일부터 3일간 불이문에서부터 대웅전까지 1시간 넘게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시에 오체투지를 한다.

대만불교계 일간신문 '런지앤푸빠오(人間福報)'는 "매년 설날 무렵에 한 차례만 봉행했던 조산예불수지를 개산 40주년을 맞아 1년간 계속 개최한다"며 "불광산은 40년전 조산예불 행사를 시작으로 성장해 오늘날에 이른 만큼, 이 뜻 깊은 행사를 확대 · 개최해 불광산의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개산종장 싱윈(聖雲) 법사는 특히 이 신문에서 "불광산은 조산예불 때문에 생겨났다"며 조산예불의 가치와 공덕을 강조했다. 이어 싱윈 법사는 "절은 비록 땅에서 하지만, 인격의 존엄성은 절로써 승화된다"며 "절은 부처님과 교류하고, 부처님의 마음과 연결하는 수행이 된다"고 개산 정신을 이 같이 설명했다.

불광산의 조산예불은 지난 1965년, 싱윈 법사가 까오슝의 수산사 불학원에서 조직한 '염불조산단'에서 시작된다. 인근 수산 공원에서 수산불학원까지 절을 하며 갔던 염불조산단은 당시 '산으로 산으로, 부처님은 내 마음에 있어. 조산예배로 불심과 하나 되니'란 수행 구호를 외치면서 삼보일배를 했다.

10월 27일 열린 조산예불행사에서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가했다. 6개월 된 자녀와 함께 조산예불에 동참한 용허(永和)의 청년단인 우밍중(吳明仲) 부부는 "산을 오르며 불광산에 대해 이해하고 불법을 자연스레 접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미국 달라스 불광국제협회에서 온 천원찬(陳文燦)씨와 왕바오링(王寶玲) 부부는 "처음 조산 수지행사에 참가했을 때 삼보일배가 많이 힘들었지만, 왜 그런지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면서 "그것이 다 불법의 오묘함이 아니겠느냐"며 미소를 지었다.

특히나 타이중(台中)의 계명학교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조산 행사에 참여해 비록 육안은 멀어 볼 수 없지만, 심안으로 부처님과 제불보살의 자비를 마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대만=이상미 통신원

사진제공=불광산(佛光山) 인간사(人間社)

사원 건립 10주년 '국경일' 선포
러 연방 칼미키아 공화국

러시아 연방의 불교국가 칼미키아 공화국이 '가던 쉬드랍 초익홀링(Gaden Shedhorling) 불교사원' 건립 10주년을 맞아 이 날을 국경일로 선포했다고 티베트 인터넷 언론 '티베트넷(Tibet.net)'이 최근 전했다.

이 소식에 따르면, "10월 6일은 칼미키아 공화국의 대표적인 성지인 불교사원이 건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달라이 라마가 2004년 11월에 방문한 이 사원을 온 국민들이 성지로 여겨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칼미키아 공화국 키산 일럼지흐노프(Kirsan Ilumjhinov)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10년 전 사원이 건립된 것은 나라의 경사"라며 "창건 10주년을 맞아 사원 건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러시아 정교회, 이슬람 등 이웃 종교 지도자 등도 참석했다.

김철우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운전면허 요구한 스리랑카 스님들

지금이야 스님들의 자가용 소유와 운전이 그리 낯설지 않지만, 15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을 하는 스님들을 보는 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어색한 광경이었다. 그런데 최근 "스리랑카의 스님들이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한국 불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다 있어?" 하는 의구심과 흥미를 자아낸다.

10월 24일 스리랑카의 인터넷 언론 <콜롬보 페이지 뉴스 데스크(Colombo Page News Desk)>에서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운전면허 신청을 거부당한 스님 두 분이 제기한 재판을 진행하는 항소법원에서 자동차 관련 정부 기관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오늘날 스리랑카에서는 스님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단 계율委, 자동차 운전 불허
고급차 소유 스님 많아 논란이 된
우리 현실에선 '뉴스 아닌 뉴스'

일부 스님들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자동차법' 제 127조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에게도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청원하였다.

스님들은 또한 "정부의 불교 담당 부서(the Commissioner of Buddhist Affairs)가 이 문제에 대해 자동차 관련 기관에 조언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동차 업무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항소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대형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스님들이 많아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뉴스 같지 않은 뉴스'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 뉴스가 우리 불교계에 전해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정리하는 '제1결집'에서 "소소한 계율까지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이래, '계율'은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계율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스님들에게 새로운 행위 규범이 요구될 때에도 손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스님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오히려 '소소한 계율'을 위반한 경우이기 쉽다. 그런데 계율에 규정되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스님들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의심이 되어도 어느 한 곳 확인을 해줄 곳이 없고 준거로 삼을 규정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반 대중들이 스님들의 행동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스님들도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전해 듣기로, 남방 상좌부 불교권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 "이것을 스님들에게 허용할지 말지" 종교성이나 각 종단의 계율위원회에서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고 일단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모든 스님들이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위반 시에는 처벌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스리랑카에서 스님들에게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되었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운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식 구족계도 받지 않은 사미 · 사미니까지도 자가용을 소유하고, 수천만원이 넘는 고급 대형 승용차를 몇 대씩 소유한 스님들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꿈조차 꾸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심지어 호화 요트를 가진 분들이 있고 골프장과 카지노 출입까지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 스님들이, 운전까지 제약을 받는 상좌부 스님들에 비해 신도들에게서 훨씬 더 큰 예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스리랑카 법원에서 이번 사건의 판결을 어떻게 내리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승가의 계율을 연구하고 스님들의 소소한 행동까지도 관리하는 기구가 있고 이곳에서 정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 자유기고가

海印寺 高麗刻板「사간판 인경본」보급 불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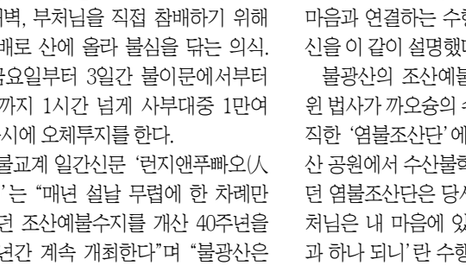
고려시대 불교신앙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가치의 최고를 드립니다

해인사는 고려각판을 보존하기위해 해인사 사간판 인경불사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인경을 마친 인경본을 사찰은 물론 불자님들께 한정 보급**합니다. 고려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대에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에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판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28종이 국보 206호로, 26종이 보물 734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불교신앙의 경향과 서지학적 변화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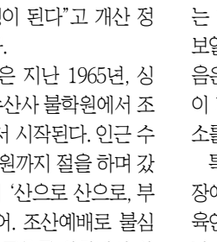
海印寺刊板이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두 동의 큰 판전인 법보전과 수다라장 사이에 있는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경판이 보관되어 왔는데, 이 목판을 흔히 '해인사간판(海印寺刊板)'이라 불러왔습니다. 이 목판은 국가기관인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새긴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과는 달리,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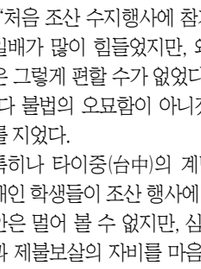
각「사간판 인경본」10질 한정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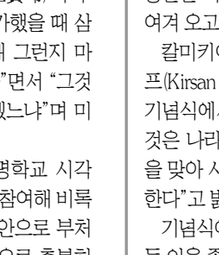
80화엄경변상도(주본)



시왕생칠경



대문금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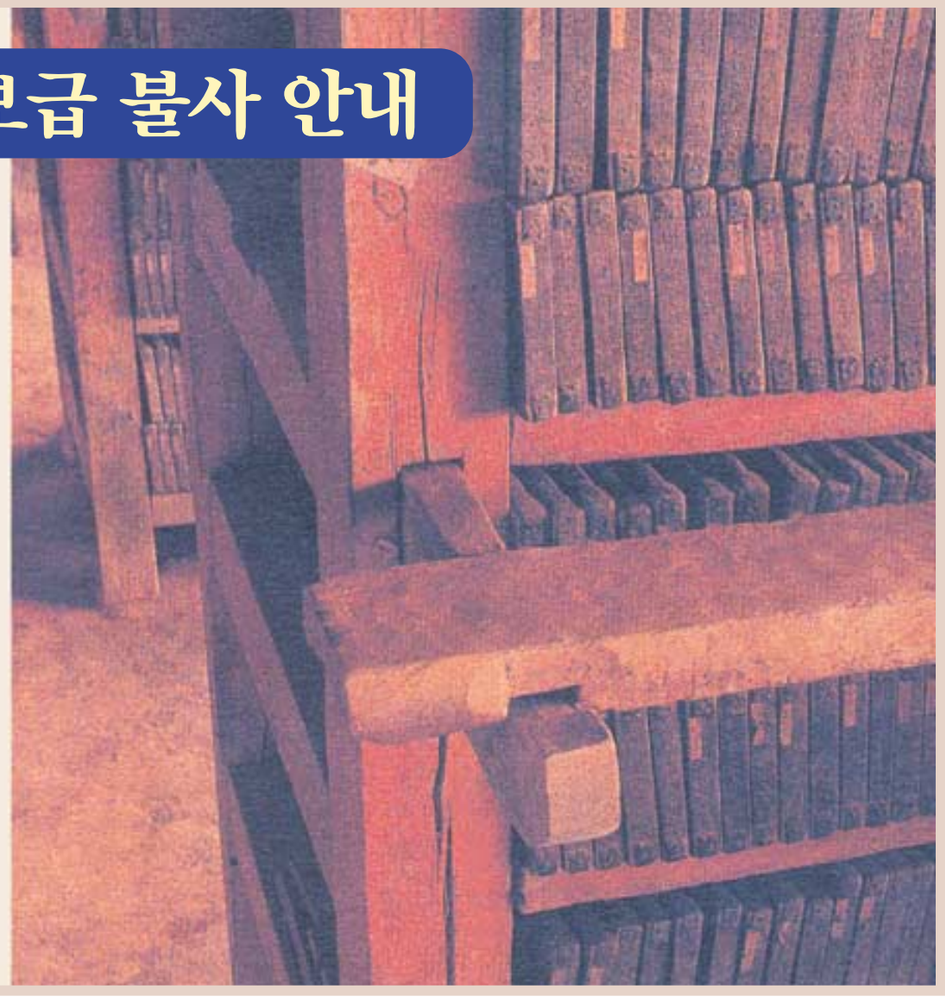


인천보감

경 이 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경 이 름	총권	판매가	경 이 름	총권	판매가	비 고	경 이 름	총권	판매가	비 고
묘법연화경	7권	100만원		능가경회역	4권	50만원	고봉화상 선요	1권	50만원		大文금강경	1권	100만원	국보 206-20
인 천 보 감	상·하 2권	200만원	국보 206-9	심 부 주	4권	50만원	시 왕 생 칠 경	2권	200만원	1권 국보 206-10	80화엄경변상도(주본)	1권	200만원	국보 206-14
경덕전등록	10권	200만원		대승능가경	1권	50만원			100만원	1권 보물 734-3	80화엄경변상도(진본)	1권	100만원	국보 206-13

입금계좌 : 농협 843174-51-013471 (예금주 : 해인사)

구입문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보존연구원) 전화 055)934-3095 / 팩스 055)934-3096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11월 8일 수요일 (주간) 제 602 호

불화 자수 30년 최유현 자수匠



산문밖의 禪

한 땀 한 땀 바늘끝 불보살 나투시네

불화 소재 대작 작가로 유명
명암으로만 처리하는 수묵화 기법 독특
교육도 엄격, 실 꼬는 일만 반년 배워야
'불교 모르면서 어찌 종교화 수놓는
자수가 되겠나' 싶어 매일 기도하고 경전 독송
"후배들에 발심 기회될 수 있는 전시회 열고파"

한 소녀를 만났다. 열여섯 살, 어머니와 함께 앉아 베갯모에 수를 놓던 그 소녀는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세월을 잊었다. 목단이며 새가 손끝에서 피어나고, 바늘 끝에서 불보살이 나투는 환희심에 밤낮을 잊은 채 수를 놓았으니 세월의 흐름인들 염두에 두었을까.

그러나 세월은 흘러 그 소녀는 이제 칠순이 되어 있다. 9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刺繡匠)으로 지정된 최유현(70) 씨. 부산 금정구 부곡동 공방에서 만난 최유현 씨는 열여섯 소녀처럼 해맑게 웃고 있다.

50년이 훌쩍 넘어선 자수 인생을 거슬러 보면 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수틀 앞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수를 놓는 즐거움이었다. 금방 결과가 나오거나 이름을 알리는 일에 마음을 뺏겨 많은 이들이 자수를 떠나갈 때도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자리를 지켰다. 실과 바늘 끝에서 완성되는 작품들이 밥 먹는 시간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실과 바늘을 놓을 수 없게 마음을 붙들었다.

어머니에게 자수를 배울 때만 해도 여염집 처녀라면 베갯모와 보자기 등을 혼수품 일호로 해가던 시절이었다. 밥을 먹는 일처럼 생활의 일부였던 자수가 본업이 된 것은 권수산 선생을 만나면서부터다. 목포에서 태어났지만 권 선생을 따라 부산으로 내려와 중, 고등학교에서 자수를 가르쳤다.

63년 교직을 그만두고 자수 학원을 시작했다. 부산에서 학원 62호 인가를 받았으니 어지간히 앞선 일이었다. 누가 돈을 주고 자수를 배우겠느냐고 주위의 반대에 만만찮았다. 그러나 학원은 3부제로 나눠 수업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고, 곧바로 그해 작품 발표회를 가졌을 정도였다.

밤낮을 잊고 작품에만 매달려 부산시립문화원 1, 2층에서 작품 70여 점을 선보였다. 자수에서 색을 없애고 수묵화처럼 명암만으로 처리한 독특한 기법과 아이디어가 전국 자수인들의 발걸음을 부산으로 끌어 모았고, '최유현 밑그림' 모사본이 돌아 말썽이 생길 정도였다.

최 자수장은 대부분 기계로 하고 있는 자수 실 꼬기를 아직도 손으로 고집하고 있고 최 씨의 문하생이 되면 실 꼬는 일을 반년 정도 배워야 하는 등 지도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그렇다 보니 한 두 작품이 끝나면 그만 두는 이가 태반이다.

그러나 바늘 잡는 법, 수놓은 자세 등 기본이 돼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에 엄격한 기준은 쉬이 무너질 줄을 모른다.

이처럼 기본을 중시하는 것과 함께 '자수장 최유현' 하면 불화를 소재로 대작을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88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을 때까지 첫 출품한 지장보살도로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고, 연거푸 문화재위원장, 총리상을 받았다. 모두 불화를 소재로 한 자수였다. 부산에서 올라간 무명의 자수가가 출품을 했다 하면 큰 상을 휩쓸자, '최유현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자수로 3년 6개월만에 완성한 아미타불도.

그러나 몇 년을 준비해 출품했던 아미타불은 낙선의 쓴 잔을 마시기도 했다.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고 실제로 1차, 2차로 나눠 진행됐던 심사제도 자체가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수틀 앞에 앉아 다음 작품을 구상했을 뿐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상을 안겨준 '만다라'.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그 작품은 제자 3~4명과 함께 4년 정도 걸려 완성한 대작이었다.

왜 하필 불화였을까?

"일제 치하 36년을 보내고 한국전쟁 이후 서양 문화가 물밀 듯 밀려오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어요. 자수의 밑그림도 왜색풍이 주류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 자수의 맥을 잇는 독창적인 것이 절실했고 그 때, 민화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다. 민화의 풍부한 색감과 상징적이고 풍자적인 그림에 마음이 뺏겨 조금만 돈이 모이면 작품들을 사 모으고 그것을 소재로 수를 놓았다. 그렇게 한국 문화의 가치에 눈을 뜨고 보니 그 문화의 뿌리에 불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30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불교미술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민화를 포함해 그 전까지 해오던 모든 소재를 팽개치고 불화에 빠져 30년이 잘나처럼 흘렀다.

불화를 수놓으며 '이래서야 어찌 종교화를 수놓는 자수가가 되겠나' 싶어 비로소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숙였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불자가 되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금강경을 독송한다. 자다가도, 혹은 잡념이 일어도 경전 독송을 멈추지 않는다. 한 땀이라도 더 놓아도 작품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자수와 정진이 다르지 않음을 이미 체득한 까닭이다.

대작인 불화 자수를 시작하면서 직접 수틀을 고안하고 수작업에 맞게 밑그림을 만들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색상의 수실은 불화의 부위나 표현의 느낌 등에 따라 머리카락 굵기로 나누기도 하고, 두 올, 세 올 혹은 네올 등으로 꼬아 사용한다. 연화대의 연꽃잎 하나를 표현하는데도 몇 가지의 수실을 사용해 명암을 주고 밝기를 조절한다.

현재 수틀에서 조성되고 있는 삼세불은 직지사 대웅전 삼세불이다. 폭 1m, 길이 2m 60㎝ 크기의 약사여래가 4년의 작업 끝에 완성됐고, 3년 6개월 만에 아미타불도 완성됐다. 지금은 주불인 석가모니불이 한창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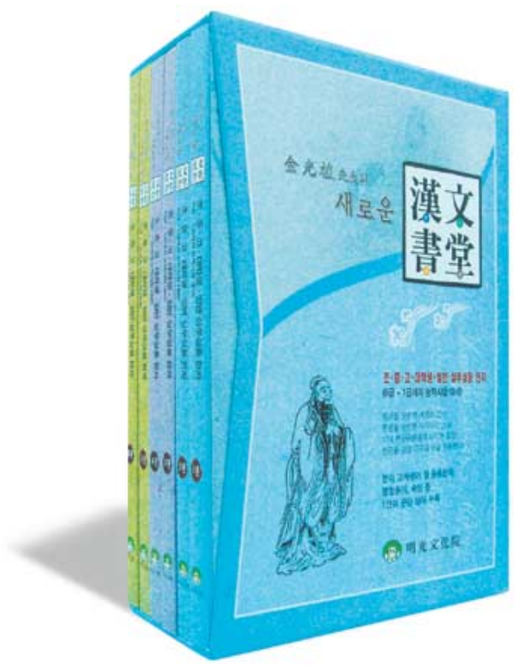
"전통은 이 시대에 살아 숨 쉴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최 자수장은 "전통의 뿌리 위에 이 시대의 자수가 나와야 진정한 맥을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현 자수장은 "자수가 사라져 가는 이 시대에 후배들이 내 작품을 보고 발심을 하게 된다면 더 할 수 없는 보람이요 기쁨이 될 것"이라며 초창기 작품부터 연대별로 소장해 놓은 작품 100여점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일 전시회를 소망한다. 그 작품들 속에서 자수의 세계에 빠져 촐나지간에 흘러가 버린 한 소녀의 칠십년 세월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기에.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계최초의온라인광고사이트 애드붓다피아 http://ad.buddhapia.com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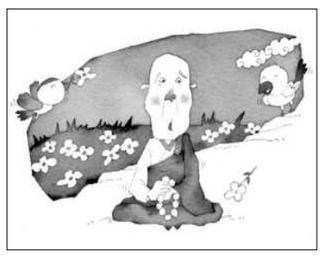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4> 백만송이 꽃

올 여름 바이칼호를 찾았을 때, '정말 바이칼을 사랑하는 표정'을 가진 그는 여행업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선비풍에 가까웠다. 버스 안에서 그는 러시아 여가수인 알라 푸가초바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미모의 유명한 여배우를 짝사랑하던 어떤 가난한 무명화가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백만송이 장미를 사서 그녀가 묵고 있는 호텔 광장에 뿌려 사랑을 고백했으나 결국 그 마음을 사로잡지못한 채 떠나보내고 말았다는 사연이 요지라고 했다.

꽃은 여러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가난한 그 화가에게 꽃은 간절한 사랑고백을 위한 매개체였다.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 들어보였던 그 연꽃은 진리의 상징언어였다. 진리와 욕망이라는 상반된 메시지의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꽃이 가지는 의미는 모두에게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다.



꽃치장 금지한 계율에 집착한 성문승들
선녀가 뿌린 꽃 몸에 들어붙자 아연실색

수행자는 꽃으로 자신을 꾸며서는 안된다는 서릿발같은 계율은 역으로 또다른 집착을 만들었다. 그래서 문수의 법문에 감동한 선녀가 꽃을 뿌리니 그 계율에 집착하는 성문승들에게 역으로 꽃들이 몸에 그대로 붙어버렸다. 이 의도하지 않는 '파계'에 아연질색한 율법주의자들은 온갖 신통력을 동원해 떨쳐내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그러나 그 계율에 집착하지 않는 대승보살들의 몸에 내린 꽃들은 아이러니하게 그대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작 꽃은 아무 생각도 분별도 없는데 오히려 당사자들의 오버하는 분별의식을 질타하고 있다. 그야말로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고 되묻고 있다.

그런 마음을 비운 경지는 공(空)을 가장 잘 아는 수보리 존자가 보여주고 있다. 어느 날 존자께서 바위굴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제석천이 나타나 반야를 잘 말씀한다고 찬탄하면서 꽃을 뿌렸다. 이에 존자는 반야를 설한 적이 없다고 반문하니 도리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다.

"존자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저도 또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말한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이것이 참으로 반야를 잘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안목이라면 꽃을 올릴만한 자격이 있고, 또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럴 경우 꽃도 사실 꽃이 아니요, 받아도 받은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꽃이 가지는 모든 의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은 우두법융(594~657)선사일 것이다. 그가 우두산 유서사 북쪽 바위굴에 앉아 정진할 때다. 새들이 선사에게 온갖 꽃을 물어다주는 상서로운 일이 종종 일어났다. 그는 이 일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사조 도신(580~651)선사가 이 광경을 보고는 '꽃마저도 필요없는 경지'를 한 수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갔다. 우두선사는 공부하는 체 하며 폼잡고 앉아있자 도신 스님은 그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물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마음을 관(觀)합니다."

"관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며, 그 마음은 또 어떤 물건인가?"

이 한 마디에 그 때까지 꽃놀이패를 즐기던 그 마음도 완전히 없어졌다. 물론 이후에는 더 이상 새가 꽃을 물어다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는 뒷날 많은 납자들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화두가 되었다.

"우두법융스님이 사조도신선사를 만나기 전에는 어째서 온갖 새가 꽃을 물어다가 바쳤습니까? 또 만난 뒤에는 왜 더 이상 꽃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노래의 후렴도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근사치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없이 /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이 되고 /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지속과 반복'으로 '나' 바꾸라

생활 속 수행, 지도자들에게 묻다 (上)

여러 개의 그릇이 있지만 우리는 늘 쓰는 그릇을 쓴다. 귀가 떨어져 나간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게 익숙하고 편하다. 마음그릇도 그렇다. 새 그릇을 꺼내 쓰기보다는 늘 쓰던 그대로를 고집한다. 절이나 수련회에서는 잘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수행이 쉽지 않은 것은 잘못된 수행패턴이 그대로 유지되지 때문이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수행은 '나'를 바꾸는 훈련이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일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 참선 · 염불 · 절 · 위빠사나 등 각 분야별 수행 지도자들에게 물어 그 내용을 2회에 걸쳐 정리한다.



수행에 있어서 지도자의 점검은 필수다.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을 진척시킬 수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성제 등 교리 이해는 필수 기반
자세와 호흡법 등 기초 탄탄히 쌓자
시작과 끝은 좌선으로 마무리 하길

▶자기 수행에 확신을 갖자

재가불자의 생활 수행에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될 항목으로 모든 수행 지도자들은 '믿음'을 꼽았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부처님 진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불자라면 당연히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수행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수행에 대한 확신이며, 이것이 바로 신심이다. 신심은 자기 마음을 믿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생긴다. 자기 마음을 믿기 위해서는 정견을 확립해야 한다.

정견 확립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확실히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수행과 이론을 겸비한 스님이나 재가지도자의 올바른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정목 스님(정토원 원장)은 "믿음이 성취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행을 하는데 큰 차이를 보인다"며 "믿음 없는 수행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수시로 지도자 점검을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려면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하다는 의미다.

수행도 막연히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점검은 필수적이다.

대효 스님(제주 원명선원장)은 "참선을 하면서 스스로 화두를 만드는 불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환자가 스스로 처방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화두는 반드시 지도자에게 받아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체험도 수시로 점검을 받는 것이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수행을 하면서 이런 저런 현상이 일어날 때 혼자서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선(禪)을 이해한다

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떤 수행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선은 부처님 마음이다. 어떤 수행이든 그 방식은 달라도 목적은 한 길이다. 바로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상당수 불자들은 그저 막연히 수행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불자들이 많다.

불교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의 종교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이것은 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하다.

참선수행을 하지 않는 불자라고 하더라도 틈틈이 참선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덕산 스님(혜은사 주지)은 "참선수행이 아닌 다른 수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틈틈이 참선을 하면서 교리적으로도 참선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초를 다지자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불자들의 경우 수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며 "지도자에게 배운 자세와 호흡법 등 기본자세를 생활하면서 자꾸 반복해 몸에 익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생활 속에서 수행을 지속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 무엇이든 몸에 익어야 제대로 할 수 있듯이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은 정신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수행기법을 터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세가 불안정하다거나 호흡이 좋지 않으면 어떤 수행이든 오래 할 수 없다. 즉, 기본적인 자세와 기초지식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은 습관이다.

수행은 꾸준한 반복이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기초가 튼튼하면 하루 20~30분을 하더라도 집중이 잘되고 진척이 빠르다.

▶생활습관 잘 절제해야 효과

항상 정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시로 좌선을 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어떤 수행을 하든 마찬가지다. 절 수행을 한다고 해서, 사경수행을 한다고 해서 좌선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시로 좌선을 하라는 것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수행을 하던 좌선으로 시작을 하거나 끝을 맺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수행이 쉽지 않은 것은 수행할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을 배불리 먹거나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거나 하는 등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수행이 쉽지 않다.

좌선은 이렇게 나쁜 습관을 제어하는데 훌륭한 방편이다.

대효 스님은 "일상에서의 수행은 생활습관을 얼마나 절제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고, 법인 스님(공덕사 주지)은 "수행의 마음집중이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수행을 하든 좌선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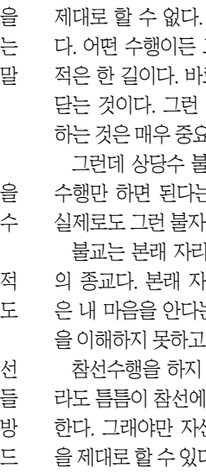
도움말씀 주신 분들

대효 스님(제주 원명선원장) 법현 스님(임제선원장) 혜거 스님(금강선원장) 효란 스님(오봉사 주지) 정목 스님(정토원장)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 덕산 스님(혜은사 주지) 법인 스님(공덕사 주지) 김열권(위빠사나 지도법사) 김경호(전통사경연구회장)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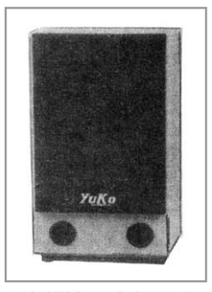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고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단풍 즐기며 20살 생일 "축하 축하"

예산 향천사 거사림회 '20년 도반애' 지역불교 견인 … 11일 단풍제

20년. 한 사찰의 거사림회 나이로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예산 향천사 거사림회. 이들이 스무 살을 자축하는 축제를 연다. 11월 11일 향천사 단풍나무 숲에서 열리는 제1회 '향천사 단풍제'. 절 입구부터 대웅전까지 1.5Km 가량의 향천사 단풍나무 길은 향천사 거사들의 20년 불심이 깃든 곳이다.

향천사 거사림회가 빛나는 이유는 20년 세월 때문이 아니다. 한결같은 신행으로 불심을 다지면서 향천사를 외호하고 지역 불교 발전을 꾀하는 초석으로서의 몫을 다했기 때문이다.

1986년 11명의 거사들이 모여 시작된 향천사 거사림회는 현재 128명의 많은 회원을 두고 있다. 향천사 유치원 건립과 일주문 및 금오교 건립 불사 등 오늘의 향천사를 있게 한 주역이 바로 거사림회다.

특이한 것은 거사림회가 연령에 따라 두 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30대부터 50대까지 젊은 거사들의 모임인 '거사림회'는 사찰 행사와 지역불교 행사를 전담하는 향천사의 동력 역할을 하고 있고, 60대 이상 모임인 '유마거사림회'는 거사림회를 도우며 후배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거사림회' 활동을 하다 60이 넘으면 '유마거사림회'로 편입되는 체계라서 선 · 후배 간의 우애도 돈독하다.

물론 두 거사림회 모두 수행과 신행은 기본이다. 두 거사림회는 매월 11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정기법회를 갖고 있고, 젊은 '거사림회'는 가을에 한 차례 직지사 법주사 등을 순례하며 1박2일 철야정진을 하고, 외부인사 초청법회, 교리강좌, 참선실수 등을 한다. '유마거사림회' 역시 봄 · 가을로 성지순례를 갖고, 참선정진과 교리강좌법회를 연다. 또 한 달에 한 번 '사시불공의식법회'를 열어 신심을 다진다.



향천사 거사림회는 사찰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행사때에도 손님을 맞고,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

특히 젊은 '거사림회'는 정기법회 때 반드시 부부가 함께 참석해 법문을 듣고 서로간의 정을 나눈다.

젊은 '거사림회' 우제풍(55) 부회장은 "젊게 활동하고 싶어하는 회원들이 많아서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유마거사림회로 가지 않은 회원들이 있다"고 귀띔한다.

향천사 거사림회의 또 다른 특징은 생업과 거사림회 활동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한 지역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도움을 줄만도 한데, 향천사 거사림회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 생업과 신행이 연계되면 자칫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사림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단 거사림회에 가입의사를 밝힌 사람은 삼보전과 대중 앞에서 "신행을 열심히 하고 거사림회 규칙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수습 회원'은 이 기간 동안 정기법회 등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공부에 대한 열의도 보여주어야 한다.

향천사 거사림회는 11일 단풍제를 앞두고 유니폼을 맞췄다. 일체감을 느끼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북핵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 요즘, 핵반대와 환경 · 생명 · 인류평화 파괴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 위해서다. 단풍제에 앞서 거사림회원들은 일제히 유니폼을 입고 우산을 펼쳐들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행사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수행과 신행이라는 본래 활동 외에 현실참여를 통해 시대적 고민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주지 옹산 스님은 "대중불교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사림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향천사 제1회 단풍제 및 거사림회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는 11일 오전 11시 창립기념행사로 시작돼 오후 1시부터는 풍물공연, 어린이합창, 시낭송, 피리연주, 살풀이춤, 가야금 산조, 회심곡 및 민요 등이 어우러지는 음악회로 단풍제를 수놓는다. (041)335-3556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믿고 맡기고 다 놓아 보자"

한마음선원 '2006 법형제 수련회', 250명 동참

한마음선원 거사들의 모임인 '법형제회'(회장 박원식)는 10월 28~2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250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6 법형제 수련회'를 개최했다.

'마음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믿고 맡기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20개 팀으로 나눠 팀별로 '왜 믿고 맡겨야 되는가' '어떻게 믿고 맡겨야 하는가' '왜 되돌려 맡겨야 하는가'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무조건 놓기' '자기 돌아보기' 등의 주제를 정해 토론을 벌인 후 발표시간을 가졌다. 법형제회는 참선, 마음의 등불 켜기(탑돌이), 선법가 배우기 등으로 신심을 다졌다.

또 이번 수련회는 법형제회 내의 24개 소그룹신행모임(신행회) 회원들이 20개 팀으로 분산 배치돼 낯선 회원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특히 회향식 때는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이 참석해 "열심히 공부하라"며 법형제회원들을 격려했다.



수련회에서 선법가를 배우고 있는 한마음선원 법형제 회원들.

법형제회는 한마음선원 신행단체 중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모임으로, 복지 · 포교 · 교육 · 총무 · 재무 · 조직 등 6개 부서를 두고 다양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신도회장과 법형제회장을 함께 맡고 있는 박원식 회장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에 있어 마음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나가야 하는지를 점검하는데 매우 유익한 수련회였다"며 "수련회를 빛내주신 큰스님과 혜원 주지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매일 새벽예불 참석해 신심 다져

안양개인택시불자회 신영전 회장

하루 종일 택시를 운행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 수고한다며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는 사람, 개인운전기사 부리듯 명령을 하는 사람, 의자 위에 발을 걸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욕을 하는 사람도,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사람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사람도 있다.

예의바른 손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지만, 막무가내 손님을 만나면 택시 운전기사도 사람인 이상 불쾌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손님을 하루에 한 두 번은 꼭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신영전(59) 안양개인택시불자회(법륜회) 회장은 운전석 옆에 놓은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

"운전기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 손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손님이든 그렇지 않은 손님이든 모두가 똑같은 고객이고, 고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신 회장은 손님을 부처님처럼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법륜회 회원들에게도 늘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 회장이 안양에서 택시운전을 한 지는 15년.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일반인의 선입견이다. 신 회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이 점이다.

"택시운전기사하면 못 배우고 별볼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즘엔 고학력자도 많고 고위직에서 퇴직해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택시기사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이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신 회장은 현재 안양환경단체연합회 공동대표와 경기환경문제연구소 이사, 환경기구인 '안양의제 21'에서 교통환경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사회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열의가 대단하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매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새벽예불이다. 3년 전부터 신 회장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법륜회 재적사찰인 의왕 용화사에서 새벽예불을 올린 뒤 핸들을 잡았다. 뿐만 아니라 매월 두 세 차례 진행되는 법륜회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양 개인택시불자회의 중심인 신영전 회장(오른쪽)과 이대병 법사(가운데) 이은형 총무가 신회장 택시 옆에서 활짝 웃고 있다.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싶었습니다. 신심을 다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활동도 활발히 해야만 우리 법륜회에 대한 일반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 회장은 '승객 포교'에도 열심이다. 때로는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어차피 감내해야 할 부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는 법당 안에서 부처님(승객)을 모신다는 자부심으로 핸들을 잡는 신 회장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글 · 사진=한명우 기자

제 5기 학인 모집

본 회에서는 전통 영남 범음 · 범패를 수련하고자하는 제 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 래 • • •

◆ 기초반 : 각단 예불 및 사시불공의식
◆ 중급반 : 각종 재의식(사물다루는 법)
◆ 고급반 : 바라 및 승무작법

기 간 : 2006년 11월27일(월요일)부터 (6개월 과정)
일 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수강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 경남 진주시 봉곡동 474-5 불음원(한주 아파트 옆)
연락처 : 055)745-8419

사단법인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이사장 한 파
강 사 원 명 합장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6. 11. 1부터 (월 · 화, 수 · 목 주 · 야간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서울과 수원에서 가까운
기초교리 기초요가 참선 템플스테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저녁 7시 ~ 일요일 새벽 1시까지

요일	시 간	내 용	구 분
토	저녁7시	예불 독경	둘째 넷째
	8시10분 ~ 10시	기초교리	둘째
		기초요가, 선강	넷째
	10시10분 ~ 12시	수식관	둘째
		절, 좌선	넷째
일	12시10분 ~ 새벽1시	차담(茶談) 회향	둘째 넷째

● 참 가 비 : 2만원 (기초교리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간편한 복장
● 오시는 길
(1) 수원역에서 버스 (400, 400-1, 490, 490-1, 999, 999-1) 남양에서 하차 택시로 5분거리
(2)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우회전 6km → 화성시청, 남양방면 좌회전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642
봉 림 사
☎ 031)356-9117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5> '불생(不生)' '무념(無念)' '해탈(解脫)'

<선가귀감> 38장부터 41장까지는 아름다운 삶으로써 계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고, 42장은 계율을 잘 지켜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한 선정의 힘이 길러진다고 하였으며, 43장에서는 고요한 선정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 지혜로 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정리하여 <선가귀감> 44장에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삶으로써 계율을 '불생(不生)'이라 하고, 이 불생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선정이니 '무념(無念)'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 무념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지혜이니 해탈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見境心不起 名不生 不生名無念 無念名解脫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불생(不生)이라 하고, 불생은 무념(無念)이라 하며, 무념은 해탈(解脫)이라 한다.

이 글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4권 무주전(無住傳)에 나오는 글로서 그 앞뒤 내용을 보면 불생이 무념이며 해탈인 것을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묻기를, 어떤 것이 '불생(不生)'이고 '불멸(不滅)'이며 어떻게 해야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 스승이 답변하였다.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불생'이라 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멸할 것이 없으니 '불멸'이다. 이미 생겨나거나 멸할 것이 없으면 어떤 경계에도 얽매이지 않으니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다.

'불생'을 '무념'이라고도 하니, 무념은 생멸할 것도 없고 구속될 것도 없으며 해탈할 것도 없다."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그 경계에 집착하여 일어날 마음이 없으니 이를 '불생'이라 하고, 이 불생에는 어떤 경계에 집착하여 일어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 이를 '무념'이라 한다. 무념에는 집착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 본디 거기에 얽매일 일이 없어 해탈할 것도 없다.

경계에 시비하는 마음 없으니 그 자체가 '불생'

불생이 무념이고 무념이 해탈이니 모두가 하나

해탈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경계에 얽매이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니, 해탈할 것도 없는 이 자리야말로 '참 해탈'인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불생이 무념이고 무념이 참 해탈이니, '불생'과 '무념'과 '참 해탈'은 그 바탕이 하나라는 뜻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와 똑같은 내용을 <육조단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선지식들이여, 지혜로 살펴서 안팎이 분명해야 자신의 본디 마음을 안다. 본디 마음을 알면 '해탈'이고 해탈이면 '반야삼매'이며 반야삼매는 '무념'이다. 무엇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모든 법을 보되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 무념이다. 이 마음을 쓰면 마음이 모든 곳에 두루 하되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오직 깨끗한 본디 마음이 몸에 있는 감각기관에서 활동하되 경계에 물듦이 없게 하여 오고감이 자유로워 그 쓰임에 걸림이 없는 것이 곧 반야삼매이며 자재해탈이니, 이를 무념행(無念行)이라고 한다.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끊기만 한다면 이는 법에 얽매인 것이며 한쪽에 치우친 견해라고 한다."

이 단락에서 "모든 법을 보되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 '무념'이다[若見一切法 心不染著 是爲無念]"라고 한 표현은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불생'이라 한다[見境心不起 名不生]"라고 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모든 법을 보되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은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 '무념'이 '불생'이고 '불생'이 무념이 된다.

또 이 단락 앞부분에서 "본디 마음을 알면 해탈이고 해탈이면 반야삼매이며 반야삼매이면 무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반야삼매는 선정을 가리킨다. 삼매는 범어 samādhi의 음역이다. 의역은 등지(等持)·정(定)·정정(正定)이라고도 한다. 등지(等持)라고 번역할 때 등(等)은 마음이 제멋대로 날뛰거나 침체된 상태를 벗어나 어떤 경계도 차별 없이 바라보는 편안한 마음상태를 가리키고, 지(持)는 오로지 어떤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어떤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므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 나타나는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상태를 말한다. 곧 삼매는 선정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써 '불생' '무념' '해탈'의 경계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은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는 저마다 하나씩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만 취하고 나머지를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삼발이 솥처럼 언제나 함께 하고 있어야 제 역할을 다하니 세 가지 모두 마음에 두고 함께 닦아나가야 한다. 이것에 대하여 서산 스님은 말한다.

戒也 定也 慧也 擧一具三 不是單相

계율이나 선정이나 지혜 가운데에서 그 어느 하나를 들어도 그 하나에 셋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그 어느 것도 홀으로의 모습이 아니다.

부처님의 삶인 계율을 잘 지켜야 마음이 편안해져 선정의 힘이 길러지고, 선정의 힘이 길러져야 여기에서 참다운 지혜가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계율을 떠나 선정과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선정을 떠나 계율과 지혜가 있을 수 없으며, 지혜를 떠나 계율과 선정이 있을 수 없다. 계율 속에 선정과 지혜가 들어 있고, 선정 속에 계율과 지혜가 들어 있으며, 지혜 속에 계율과 선정이 들어있다. 계정혜 삼학 가운데 어느 하나를 들면 나머지 둘은 저절로 따라가니 하나 속에 셋이 다 갖추어진다. 어느 하나도 둘을 떠나 홀으로의 자기 모습만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불생'과 '무념'과 '해탈'의 관계도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경계에 시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 자체가 '불생'이요 '무념'이며 '해탈'이 된다. 수행이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떨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대적광전(大寂光殿)

"아빠! 저 부처님 이름이 뭐야?" "…."

지난호에 '대웅전'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지요. "전각의 현판을 보면, 집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대적광전(大寂光殿)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의 교주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입니다. 대적광전의 적(寂)은 선정(禪定)이며 광(光)은 지혜의 빛을 의미합니다. 바로 선정과 지혜로 가득찬 '빛의 궁전'인 거지요.

주로 화엄사찰에서 이 전각을 본전(本殿)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엄전(華嚴殿)'이라고도 하고 '비로전(毘盧殿)'이란 이름도 붙입니다. 아울러 연화장세계가 진리의 빛이 가득한 대적정(大寂靜)의 세계인 까닭에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대적광전의 불상 위치배정은 삼신불(三身佛) 시스템을 기본바탕으로 합니다. 삼신은 법신(法身)과 보신(報身), 화신(化身)을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종 삼신설에 따라 주로 청정법신(淸淨法身) 비로자나불, 원만보신(圓滿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 석가모니불을 모십니다.

이런 삼세불외에도 오불육보살(五佛六菩薩)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전각이 대단히 웅장하고 광활하지요. 먼저 주불(主佛)인 비로자나불 좌우에 석가삼존처럼 문수와 보현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삼세불의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시고, 여기에 아미타삼존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더합니다. 또 약사삼존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합치면 모두 오불육보살 시스템이 완결되는 거지요. 금산사 대적광전과 해인사 대적광전, 위봉사 대적광전이 유명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수행은 자랑하지 않는 것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2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6강 불교로 읽은 <님의 침묵>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만해는 <님의 침묵> '반비례'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인가요?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 하는 때에 당신의 노래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여요."

침묵 안에 님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로 분명한 것은 님은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일게다. <금강경> 또한 "여래는 형상으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친절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 이어 "내가 말하는 불법(佛法)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님은 형상으로도 볼 수 없고, 목소리로도 들을 수 없다. 그렇다면, 만해의 말대로, "님은 침묵 속에 있는 것"이다.

우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적어두고자 한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그는 말하지 않을 뿐, 자신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그를 향해 "감싸고 돈다."

님의 침묵, 그 세 가지 이유

그는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 그는 침묵 속에 자신의 그리움만 깊어가는 강물이게 할 뿐이다. 그는 왜 침묵하는가. 왜 침묵 속에서 홀로 속을 앓고 있는가.

(1) 그는 말하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48년 동안 긴 혀를 두들겨서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불교'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겸허하게 설정한다. 그 '가르침'은 '그 자체로' 가치를 확보한다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 도구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망치가 못을 박거나 빼기 위해 존재하듯이, 불교는 '어떤 실용적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불교는 '노파심'의 발로이다.

(2) 석가를 위시한 여래들은 중생을 위해 화신(化身)으로 왔다. 중생이 어둠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다면, 석가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 중생이 돈교, 즉 '본래' 깨달아있는 존재라면, 그는 '본시' 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나중 과격한 선사들이 "석가가 괜히 와서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켰다"고 불평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따위를 내 앞에서 말했다면, 내가 몽둥이로 두들겨 팼을 것"이라고 콧김을 뿜기도 한 것이다.

(3) 요컨대 님은 중생의 구원을 위해 발언하지만, 그 발언은 다만 방편이라,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무(無) 없다. 그렇게 마련된 '빈 공간'이 중생들이 자신의 삶을 활개칠 무대가 된다.

님은 중생들의 비원을 위해 이 땅에 와야 한다. 그 님이 없이 어떻게 이 허무한 삶, 작은 걱정, 큰 고난이 겹겹이 중첩된 이 사바의 삶을 견디겠는가. 그러나 님은 그 구원이 '자신에 대한 의지'로 귀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는 중생을 위해 왔지만, 중생을 위해 다시 떠나갈 수밖에 없다. 떠나가지 않는다면, 침묵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래가 아니다.

님, 위안이자 구원이신 분

–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중생들은 그 '부재'의 순간 절망한다. 어떻게 이 팍팍한 삶을 견딜 것인가. 그 전날, 그가 준 구원의 약속은 세상의 고통을 견딜 힘이었고, 그 허무를 이겨줄 든든한 의지처였는데, 그는 더 이상 내 버팀목이자 사다리이기를 포기했다. 그는 떠나감으로 자신의 자비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푸른 산빛'으로 보였던 그 희망은 단풍나무 숲의 다양한 채색, 혹은 조락의 예감으로 흩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그 '황금의 약속'은 나만의 환상, 이미지(相)였던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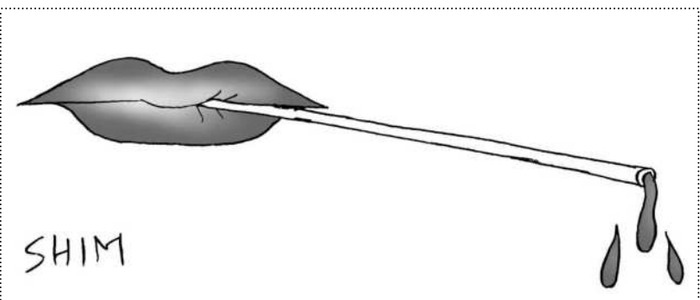
–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여래, 혹은 불법과의 만남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왜. 그는 삶의 전적인 탈각, 세속적 가치와 기대의 전적인 포기를 종용하기 때문이다. 세속이 주는 즐거움을 전적으로 포기하라는 님의 속삭임이 어떻게 달콤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금속성으로 날카롭다. 그와의 만남으로 나는 청춘을 포기하고, 가족을 버리고 사막으로 토굴로 들어간 수도사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 피안을 약속하는 불교의 권유에, 나는 육진(六塵)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육근(六根)을 닫아 버리도록 떠밀린 것이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는 이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나의 삶일 수 없음을… 그는 다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나로서 살 수 있게 해 준 '조력자'라는 것을…." 불교와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안다. 수많은 불법들이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 고안되고, 수많은 여래와 불보살들, 그리고 선지식들이 내 "깨달음을 일깨우기 위해 화현(化現)된 분들임을…." 망치는 못을 빼면 버려지고, 뗏목은 강을 건너서도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다. 불보살들의 화신 또한 역할을 다하면 그만 떠나가야 하는 존재이다.

보내는 자, 이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실제 겪는 이별은 얼마나 아득하고, 슬픈가. "그 의지처 없이도, 나는 홀로 설 수 있을까. 이 막막한 세상, 두려움과 고통이 질펀한 이 사바를, 이름 그대로 견딜(saha, endurable) 수 있을까."



존재의 부름에 귀기울여라

–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이별 앞에 울지 마라. 너는 너 자신 속에 있는 불성, 그 위대한 힘을 끌어올려 이 팍팍한 세상의 고통과 불확실을 견뎌나갈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 위대한 힘의 젖줄은 영원에 닿아있으니, 그 대승(大乘)에 대한 믿음을 기신(起信)하라. 그는 떠나면서 일렀다. "나를 위시하여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네 속에 있는 그 부처, 질식하고 있는 부처의 빛과 힘에 의지해라. 그 힘과 빛은 본시 위대한 하나에 닿아있고, 그것이 발현되는 장소에,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들이 같이 있다. 그 호념(護念)을 기억하라."

–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슬픔은 정화와 성찰의 계기이다. "가시내야, 가시내야, 슬픈 일 좀 있어야겠다"고 읊은 시인은 누구였던가. 하이데거는 슬픔이야말로, 나아가 죽음이야말로, '존재의 부름'에 귀기울이게 하는 계기라고 했다. 슬픔은 찐득한 욕망과 얕은 일상의 거품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네 삶을 고양시키고, 근원으로 회귀하게 한다. 그 성찰이 희망이다. 어느 소설가는 "슬픔도 힘이 된다"고 썼다.

그 성찰이 있어 일상은 의미의 광채를 띤다. 님의 부재를 그리워하면서, 그 부재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는 일상을 법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복종의 삶이다. "당신은 행인, 나는 나룻배, 나를 밟고 가시어요." 만해는 지금 도저한 개인과 욕망의 시대에, 자비와 헌신의 불교적 가치를 설파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하다. "그대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대 지금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는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온갖 시름 우스개로 흘려보낸 옛사람들

고상한 척 하는 무능한 선비 등 조선시대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을 한순간에 희화화한 웃음의 힘

웃음은 인간을 행복으로 인도한다. 유머 있는 남자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병도 치유하고, 사업도 성공으로 이끈다. 웃음을 주는 정치가가 선거에서 표를 모으기도 한다.

그래선지 요즘은 그야말로 웃음의 전성기다. 어른 아이할 것 없이 텔레비전의 개그 프로그램을 즐긴다. 웃기는 이야기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단골메뉴다.

옛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들도 우리처럼 코미디나 개그를 즐겼을까?

이 책 <오래된 웃음의 숲을 노닐다>는 우리 한국인의 웃음의 뿌리, 특히 유머의 근간은 무엇인지를 일러준다.

그렇다면 옛날 민담등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스개의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절집안의 '스승인 노스님과 상좌인 동자승'이다. 동자승은 긍정적인 뜻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권세가를 놀려 먹는 인물이고, 노스님은 그 속임수의 희생자가 되는 인물로 등장한다.

<용화총화> 5권에 나오는 이야기다.

'상좌인 동자승이 스승에게 말하기를 '까치가 은수저를 물고 가시나무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하니 스승이 이 말을 믿고 가시나무에 오른다. 그러자 동자승이 "우리 스승이 까치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소리친다. 스승이 이 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몰라 나무에서 급히 내려오다 가시에 찔려 온몸에 상처가 난다. 스승은 동자승의 종아리를 때린다. 밤이 되자 동자승은 스승의 문앞에 솥단지를 매달고 "불이야"라고 소리친다. 스승이 놀라서 일어나 뒤어 나오다 솥에 부딪쳐 혼절한다. 한참뒤 일어나 보니 불은 없다. 스승이 노하여 꾸짖으니 동자승은 "먼 산에 불이 났기에 알린 것 뿐입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말을 듣고 "이제 부터는 가까운데 불만 알리고 먼데서 난 불은 알리지 말아라"라고 했다.'

스님은 왜 이렇게 놀림감이 되었을까? 바로 음식과 색에 집착하기 힘든 특수한 신문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은 고상한 척한 무능한 선비와 양반들, 이름없는 사위, 원님, 과부, 바보, 기생들이다.

옛날 우스개의 구성은?

주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리고 강력한 펀치라인이 등장한다. 등장인물의 대사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오가는 시에서도 펀치라인이 있다. 시를 읽고 웃는다는 것은 지금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지만 옛날 우스개에서는 한시가 펀치라인 역할을 톡톡히 한다.

<태평한화골계전>의 215화에 있는 이야기다.

'한씨 성을 가진 상사(성균관 학생)의 이가 다빠졌다. 절에가서 노스님을 보았더니 스님은 머리에 종기가 난채 가부좌를 하고 졸고 있다. 상사는 다음과 같이 시를 한 수 읊는다. '스님 머리 뒤에 가죽 방망이가 나왔구나' 그러자 스님이 갑자기 눈을 뜨고는 대구를 맞추어 답한다. '속인이 앞이 비었으니 박처용(처용의 탈바가지) 이로다'라고.'

이러한 우스개 이야기들은 한이 없다. 양반 잔치에 불려나와 노리개가 되었건만 웃음의 자락을 놓지 않아, 촌철살인의 재담으로 양반을 놀려먹던 기생들 이야기, 영화 '왕의 남자'에도 등장했지만, 재담으로 탐관오리의 목을 날렸던 광대 공길이의 이야기, 재치 있는 농담으로 인색한 친구에게서 술안주를 빼앗아 먹었던 가난한 서생의 이야기, 허세 부리는 양반을 골려 먹은 영리한 스님 이야기 등. 우스개가 아니었다면 역사에 이름이 남지 않았을 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록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일반인이 잘 모르고 있던 조선시대 우스개들을 친절하고 재미있게 해설하고 있는 이 책을 지은 류정월(서강대 강사)씨는 "옛 우스개들, 그리고 해설과 논평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가을, 독서하는 이들의 가슴은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우스개를 읽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려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현실의 중압감을 떨쳐버리고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여겨지는 경험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오래된 웃음의 숲을 노닐다
류정월 지음
샘터 | 1만5000원

네티즌 강추

요가 초보자를 위한 친절한 안내서



요가 첫걸음 조옥경 옮김, 학지사

요즘 요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외 인기 스타들이 앞을 다투어 요가를 선전하고 있으며, 광고나 드라마에서도 심심치 않게 어려운 요가 자세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덕에 요가가 곧 날씬한 몸매 관리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사진과 함께 탄탄한 기초를 제공한다. 호흡훈련, 호흡법, 이완, 명상은 독립된 절로 다루어져 따라하기도 쉽다.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원리를 충실하게 밝히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가 수련을 소개하는 훌륭한 실습지침서다.

내용은 물론이고 아름답고 우아한 동작을 묘사한 화보로 가득한 책의 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에 절로 눈길이 간다. 요가의 어렵고 심오한 부분을 쉽고도 평이하게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요가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서 마음과 영혼을 살찌우길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안내서로 손색이 없다.

(unclejang, lifelog.blog.naver.com/unclejang/r01_unclejang_81)

벽난로와 온돌방이 있는 우리집에 놀러 오세요



벽난로 온돌방 이화종 지음| 수선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집을 갖기를 소원한다. 나 또한 집을 갖기를 원했다. 남부럽지 않은 멋진 아파트에서 살고하는 꿈. 도시적인 삶을 꿈꾸었기 때문이었을까? 어느새 서양적인 사고 방식이 나를 많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책을 만났다. 도시적인 삶에 취해 사는 사람은 화려한 삶에 만족을 느끼지만, 언제나 한구석에는 묘한 허전함을 느낀다. 이 책에서는 아파트의 콘크리트로는 해결되지 않은 허전함을 채워주었다. 책을 보는 내내 따뜻한 벽난로와 함께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온돌방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느낌을 받았다. 지은이는 책 속에 단순히 책을 짓는 법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연을 담고자 했다.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노익장을 과시라도 하듯,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러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작은 순간순간의 체험이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온다.자기 집을 스스로 짓고 가축도 키워보고, 밭일도 해보고, 이웃들과 융화되면서 점차 자연을 닮아가는 일. 언젠가는 이루고 싶다.

(무심, aladdin.co.kr/blog/mypaper/982128)

책속의 밑줄긋기



○…한류(韓流)란 한겨레공동체의 역동성 안에 내재하는 참을 수 없는 욕망들이 우리의 장대한 역사를 통해 잘 다듬어져 세련된 행동이 되어 아시아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그들이 안방처럼 여기며 석권해왔던 아시아의 문화시장에서 자본과 인프라의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우리의 한류문화산업에게 밀리고 있다.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일본 문화상품의 근원인 문화의 중심적 가치가 전체 아시아인들에게 호응과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방적인 문화제국주의의 지배를 탈피하려는 아시아인들의 소망에 부응할 수 있는 공존의 문화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회에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겨레 공동체와 그 안의 개개인 모두 에게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성과 속도의 철학인 한(韓)사상에 있다.

–<한사상과 다이내믹 코리아> 본문 22~23쪽 중에서, 최동환 지음, 지혜의나무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조계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우리나라 수계작법 세계서 가장 발달”



“우리나라의 불교의식은 교리 · 사상 · 문화 · 역사 · 예술등 모든 면에서 세계 어느나라 불교의식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져 완성도가 높습니다”

동방대학원대학 불교문예학과 심상현 교수(사진)가 <불교의식각론 9-수계작법>을 펴냈다.

심 교수는 “근자에 들어 원류에 접근한다는 미명하에 수계작법 의식을 등한히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의식을 등한시하는 것은 선조사님들의 공을 폄하하는 중대한 문제로 후학의 도리가 아닌 만큼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간취지를 설명했다.

<불교의식각론9- 수계작법>은 ‘사미십계’ ‘비구십계’ ‘비구니계’ ‘거사오계’ ‘종사영반’등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사미십계’의 경우, 1574년(선조7) 안변 석왕사에서 개판한 <권공제반문(勸供諸般文)> <삭발문(削髮文)>을 위시하여 안진호 스님 편역의 <석문의범>까지 수계작법에 관련된 현존 작법집을 두루 연구 검토하여 정리했다.

우리 전통 수계작법의 여섯 번째 계목인 ‘부좌와고광대상(不坐臥高廣大床)’으로부터 열 번째 계목인 ‘불비시식불양가축(不非時食不養家畜)’까지 그간에 없었던 각 계목(戒目)에 따른 게송(偈頌) 등 계상(戒相)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 뿐만 아니라, 계상 전후로 있는 각종 게송에 제목을 부여했다. 이는 실로 500년만의 첫 시도이다.

특히 <작법귀감>의 편자인 백파 긍선 스님의 주(註) 하나 하나에 음(音)을 달고 해석을 가하여 한글세대인 현대인들이 느끼는 한자의 장벽을 한껏 낮췄다. 이로써 시공을 뛰어넘어 계율에 대해 옛 어른들과 교감토록 했다.

> “의식 등한시하는 풍조 안타까워 ‘작법귀감’ 한글세대 위해 풀어 써 불교의식 시리즈 20권 발간 계획”

‘비구십계’는 매우 생소한 느낌을 주지만, 비구계를 수지해야하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즉, 사미십계는 삼업(三業) 가운데에 신업과 구업, 비구계는 나머지 의업(意業)을 함께 짓지 않도록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살계의 경우 십중금계(十重禁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로 구분하여 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런 논리를 구족계인 비구계에 적용할만한 자료가 될 만하다.

‘비구니계’와 ‘거사오계’는 백파 긍선 스님 편 <작법귀감>에 보이는 계상(戒相)을 주(註)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요점을 간단히 살필 수 있게 했다.

오늘날 불법이 이 땅에 남아 있음이 모두 역대 조사 스님들의 노고인 만큼 ‘종사영반’의 중요성도 다루고 있다. 특히 스님으로서 해행(解行)이 다른 이의 사표가 될 만큼 원만하면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법맥을 이어받는 의식인 건당식(建幢式)도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큰 경사가 있음을 역대 큰스님들께 고함으로써 법맥상속을 공고히 하기 위한 건당식은 종사영반으로 거행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심상현 교수는 “앞으로 영산재와 점안의식에 관한 책도 준비중”이라며 “불교의식관련 시리즈는 20권까지 발간될 것”이라고 밝혔다. (02) 2278-2240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교의식각론9-수계작법
심상현 지음
한국불교출판부 | 2만2000원

후기 인도불교 깨달음의 길



요가행자의 증지
우제선 지음 | 무우수 | 1만5000원

인도불교에서 깨달음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 가장 체계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학파가 유가행파이다.

이 학파의 지류 가운데 후기 인도불교의 대미를 장식한 쁘라마나 학파는 깨달음을 어떻게 인식하여 논리학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 학파의 확립자이며 인도철학사에서 최고의 논사로 일컬어지는 다르마끼르띠가 다룬 깨달음과 이것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설명한 것을 개념화한 것이 <요가행자의 증지>이다.

<요가행자의 증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5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인도 논사들의 증지에 대한 이해를 개괄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즈냐나스리미뜨라의 <유가사결정론>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

셋째는 증지의 이해를 선수행과 견주어 보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우제선(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5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인도 논사들의 증지에 대한 이해를 개괄하고, 증지의 이해를 선수행과 견주어 보고 있다.

부처님 마지막 행적을 좇다



붓다의 마지막 여행
나카무라 하지메 지음 | 이경덕 역
열대림 | 1만3500원

인간은 누구나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운명은 무엇이고, 죽음은 왜 찾아오는지, 죽음을 넘어 영원의 세계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문이 들 때 한줄기 빛과 같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인생이라는 무상한 바다에서 올바른 길을 열어주고 인류에게 참 지혜를 밝혀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정보와 속도로 평가되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불교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부처님 역시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인간의 삶을 살다 간 우리 곁의 성자이다. 다만 부처님은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고 해탈함으로써 후세인들에게 큰 모범이 됐다.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涅槃)’을 다룬 책은 여러 언어로 전해지는데, 이 책은 팔리어로 전해지는 경전을 일본의 종교철학자인 나카무라 하지메가 번역한 것이다.

큰스님들 가르침이 그립다

서옹 · 석주 · 구산 스님 등
현대 선지식 법문 모아

“‘불립문자’는 문자를 못쓴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감성적 문자는 못쓴다는 것이다. 높은 차원에서는 문자가 바로 참모습의 작용이고 표현이니 문자를 얼마든지 사용해도 무방하다. 선종계통에서 문자로 된 어록이 다른 종파보다도 더 많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다.”

조계종 종정과 백양사 방장을 지낸 서옹 스님의 가르침 내용이다.

선이란 무엇이고, 화두와 공안은 무엇이며, 견성이란 무엇인지,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견성과 점돈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일반인들과 불자의 의심은 끝이 없다.

하지만 모든 의심을 수행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문자를 통한 수행의 이해도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지금 나와있는 선서나 법어집도 문장과 논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왜냐하면 선에 대해 설명하려면 역설적 언어나 문자를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출판 홍법원이 발간한 <선지식>은 누구나 쉽게 불교와 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위해 현대 한국 불교의 큰 별이었던 큰스님들이 투철한 수행을 바탕으로 예리한 관찰과 현대적 사유논리방식에 의한 일상적인 언어로 서술한 내용을 수록했다.

제1권에는 석주(前 조계종 총무원장), 구산(前 송광사 방장), 서옹(前 백양사 방장), 월산(前 원로회의 의장), 월하(前 조계종 종정), 경산(前 조계종 총무원장)스님 등의 법문을 수록했다.

제 2권에는 서암(前 조계종 종정), 혜암(前 조계종 종정), 숭산(전 조계종 원로의원), 광덕(전 불광사 법주), 일타(전 조계종 원로의원), 성준(전 조계종 감찰원장) 스님의 법어를 모았다.

<선지식>은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스님들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더 반갑다. **김원우 기자**



선지식(1-6인 큰스님법어집)
김길상 엮음
홍법원 | 2만5000원

韓 · 中 정토종 사상과 수행법



정토의 본질과 교학발전 이태원 스님 지음 | 운주사 | 2만5000원

정토학은 어떤 학문이며, 불교사에서 정토학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정토의 본질 중 하나인 장엄의 동기와 목적,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토에 왕생하게 위한 행 중에 제일인 염불은 경과 논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염불수행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정토의 본질과 교학발전>은 중국과 한국 정토종의 사상체계와 수행방법에 대한 연구서다.

이 책은 정토학 연구에 매진해온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인 이태원 스님이 그동안의 연구성과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정토학 전반에 대해 폭넓고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특히 수행방법으로서의 정토신앙이 염불신앙으로 고착화되며 한국에서 하근기로 터부시 받고 있는 인식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염불신앙, 정토신앙을 당당히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것.

책의 내용은 정토교의 위치, 본원과 장엄, 경론과 정토교사에 나타난 염불, 염불 수행법과 자세, 정토 왕생자의 마음가짐, 중국 초기 정토신앙, 담란의 정토관, 천태종 지례의 정토수행관, 원효의 일심관과 정토관으로 되어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 이연정 외 공저, 1만2000원, 민족사
- **까말라실라의 수습차제연구** 중암 목련 외 공저, 2만원, 불교시대사
- **부처와 꽃을 보러가다** 스젠제 외 공저, 1만900원, 비채
- **법성게 강의** 석우스님, 1만3000원, 여래
-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법상 스님, 9500원, 도솔

도서주문 (02)2004-8219

당신을 살리는 내면의 울림!

바 이 로 차 나

출판사마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던 문제의 원고, 그 어떤 스님도 쉽게 서문 써 주기를 꺼려하며 손사래를 쳤던 그 화제의 원고가 百思千議 끝에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생세계의 혁명가라 불리어지는 공파스님의 거침없는 필치와 파격적인 叱正은 어정쩡하게 세간과 출세간의 名相만을 즐기는 당신을 전율에 떨게 하고 소름을 돋게 만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심이 얕고 의지가 박약해 불교의 표면만을 겉돌고 있는 당신을 강직하면서 순박한 불자로 확실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유언과 **극락세계 1 · 2 · 3** 그리고 **천수경의 원본경전** 등 주옥 같은 작품을 내 놓을 때 마다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공파스님의 새로운 역작 **바이로차나**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펴시고자 하셨던 원초적인 말씀과 현재의 이 불교가 얼마나 그것과 현격히 동떨어져 있는지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아울러 그 나아갈 바의 길을 상세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공파 스님 역해 | 350쪽 | 값 10,000원

맑은소리 맑은나라
낮은 곳에서 참소리를 담아내는 불교전문 출판사
(051)244-0263




지난 4월 팔관재보존회가 인천 월미도 문화의 거리 특설 도량에서 선보인 '연잎바람' 공연.

고려시대 불교의식 '팔관재' 인사동 거리 장엄

해동불교범음대학 11일 야외공연…전통의식무 · 창작무 선보여


십이지신들이 신나는 난타무를 펼치는 '십이지나희'.

고려시대의 불교의식 팔관재를 인사동 거리 공연으로 만나자.

해동불교범음대학의 정대은 스님이 지난 4월 팔관재보존회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후 인사동에서 첫 거리공연에 나선다. 11월 11일 오후 5시 인사동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은 천수바라 요잡바라 등 전통 의식무와 진도북춤, 한량무 등 전통무용,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등 경기민요, '십이지나희' '미륵님오시네' 등 창작무용 등으로 화려한 불국장엄의 세계로 변한다.

2006 인사동 팔관재 문화 한마당 '마음 가득 하늘소리'는 해동불교범음대학 소속 해동불교범음단과 범라무군 소속 영울림사물팀, 무용팀, 경기민요팀, 명지중학교 범라무군 타악팀이 사물을 시작으로 2시간여의 공연을 이끌어간다.

'마음 가득 하늘소리'는 모두 15개의 무대를 선보인다. 10여분 안팎의 짧은 시간동안 '화관무' '십이지나희' '미륵님오시네' '진도북춤' '한량무' '경기민요' 등의 1부 공연과 '법고무' '천수바라' '도라산타령' '깨비 사물놀이' '천둥소리' '경기민요' '아수라 · 연잎바람' '요잡바라' '각설이타령'의 2부가 이어진다.

명지중학교 범라무군 타악팀이 선보이는 '십이지나희'는 쥐 호랑이 용 등의 가면을 쓰고 분장한 십이지신들이 신나는 난타무로 시선을 휘어잡는다.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도라산타령', 전통 화관무의 안무를 응용해 부처님께 올리는 범천과 나한의 춤으로 꾸민 '화관무'도 볼거리.

목정배 작시 박범훈(중앙대 총장) 작곡의 찬불가를 바탕으로 방추 스님(범라무군 불교무용단 단장 · 인천 관음정사 주지)이 직접 안무를 한 창작 바라나비춤 '미륵님 오시네'도 화려한 손짓을 한다.

대은 스님은 "앞으로 팔관재 법회라든가 의식무 등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어디서든 공연을 할 것"이라며 "연말 해돋이 법회, 인천 신년 수륙팔관재법회 등 확정된 국내 공연 외에 해외 공연도 준비 중"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02)741-0495

팔관재란

팔관재(八關齋)는 고려 때의 불교의식 팔관회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팔관회의 시초는 551년 신라에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 중에도 그 중요성을 지적해 성종조를 제외하고는 연등회와 함께 국가의 2대 의식 가운데 하나가 됐다.

팔관회는 중동(仲冬, 11월 15일)에 왕경, 맹동(孟冬, 10월)에 서경에서만 행했다. 이후 불교적인 색채는 거의 띠지 않았고 천령 오악 명산 대천 용신 등 토속신에게 지내는 의식으로 차차 바뀌었다.

팔관재는 팔재계를 뜻하기도 한다. 오계에다가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화환이나 향료로 몸을 단장하지 않으며 그것을 즐기기 않는다 다리가 달린 좋은 침대가 아닌 마루에서 잔다 등 세 가지를 추가한 것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진제공=팔관재보존회

뮤지컬 오세암 잔잔한 인기몰이

뮤지컬 '오세암'이 공연 보름만에 주말 공연이 모두 매진되는 등 잔잔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0월 14일부터 서울 나루아트센터에서 선보이고 있는 뮤지컬 '오세암'은 12월 31일까지 공연한다.

故 정채봉씨의 동화 <오세암>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오세암'은 창단 22년째를 맞는 극단 예일이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숙성시켜 빚어낸 작품이라 자부한다.

엄마를 찾아 길 떠나는 길손이 남매의 눈물겨운 역정이 결 고운 시적 운문의 형태로 만들어져 어른의 감성에도 큰 울림을 던진다.

연출가 이광열씨는 "남매의 흔적을 놓칠세라 설악산 정상의 오세암을 수차례 답사하면서 길가의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 새들의 울음소리, 바람 한 자락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숨결을 온 몸에 담아 왔다"며 "설악산의 사계를 배경으로 낙엽 쌓인 오솔길의 향수어린 정취와 눈보라치는 겨울 산의 매정함을 아이만의 연극적 언어로 조합해 독특한 조형물을 공연무대에 쌓아올렸다"고 설명했다.

원작 <오세암>은 1983년 발간돼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이래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됐다. 뮤지컬로 변신한 것은 이번 작품이 처음이다. <오세암>이 한국인들의 사랑만 받은 것은 아니다.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애니페스티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애니메이션을 재구성한 만화책 <오세암>도 그 인기를 이어갔다. (02) 2049-4700 강지연 기자


보응 스님 作 '정혜사 관음전 노사나후불탱'.

조선 불교미술 3대 金魚 보응 · 일섭 · 우일 스님 작품집 나와

조선 불교미술의 맥을 이은 금어 보응 · 일섭 · 우일 스님의 작품집이 출간됐다. 보응문성기념사업회, 불모금용일섭문도회, 불모명성우일문도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작품집에는 보응 스님이 작업한 '동화사 괘불' 등 탱화 19점, 일섭 스님의 '해인사 사천왕탱' 등 21점, 우일 스님의 '범어사 팔상탱' 등 23점이 실렸다.

'금어(金魚)'는 불상 탱화 단청의 세 가지를 다 잘해야만 불릴 수 있는 명칭. 우일 스님의 제자 허길량(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씨는 "보응 · 일섭 · 우일 스님만이 '금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번 작품집은 기획단계만 8년여가 걸렸다. 1998년 사자상승으로 전해진 '우일 스님 초본전' 전시를 계기로 통도사 박물관에 초본 150점을 기증한 때부터 작품집 제작에 대한 기획이 시작된 것이다.

불화장 석정 스님이 작품을 선정하고 범하 스님이 도판을 모아 제작했다. 범하 스님은 "3대 금어의 작품 선집은 전통 불교미술의 맥을 온전히 되살려, 이들의 가르침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 널리 전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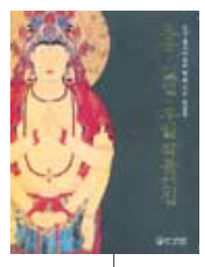
금호 스님을 사조로 하는 금호문파는 제자 보응 스님이 기반을 다졌다. 실력이 뛰어난 금어였던 보응 스님은 금호문파의 번성을 가져왔다.

보응 스님의 맏제자 일섭 스님은 20여명의 제자를 거두는 등 두각을 드러냈다. 보응 스님에게 기초를 다지고 일섭 스님을 스승으로 삼은 우일 스님이 계보를 잇고 있다.

현재 불화 단청 불상조각을 하는 이들 가운데 화맥을 5대째 이어가는 곳은 금호문파 밖에 없다.

이에 앞서 10월 29일 공주 마곡사에서 보응 · 일섭 · 우일 스님 비 제막식도 열렸다.

강지연 기자





'사랑과 꿈, 신비를 찾아'
인도민속미술특별전 도록 발간

대원사 티베트박물관에서 인도민속미술특별전 도록 <사랑과 꿈, 신비를 찾아>를 펴냈다. 이번 도록은 2006년 문화관광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

<사랑과 꿈, 신비를 찾아>는 인도민속 예술의 이해, 신상 · 섬유공예 · 금속공예 · 목공예 · 악기 등 사진과 해설, 인도의 문화와 예술로 구성됐다. 인도의 문화와 예술 코너에서는 인도의 춤 음악은 물론, 힌두교의 신과 신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깃들여 흥미진진하다. 간간히 드러나는 간다라 불상 등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현장 스님(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은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미국에 예속돼 문화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아시아 문화와 교류협력의 기회를 활발히 갖지 못했다"며 "힌두교 신들의 사랑이야기와 인도 귀족 서민들의 손때가 묻은 민속품, 신비로운 인도음악과 인도무용을 소개한다"고 설명했다.

인도민속미술특별전은 지난 8월~10월 티베트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으로 열린 전시다. 강지연 기자

K옥션 8일 경매…불교작품 다수



K 옥션의 11월 미술품 경매가 11월 8일 서울 사간동 K옥션에서 열린다.

이번 경매에서 주목되는 불교 소재 작품은 최영림 화백의 '불심', 김상유 화백의 '무애청정'(사진)이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수묵화도 경매에 오른다.

이외에도 장욱진, 고암 이응노, 김환기, 박생광, 천경자, 백남준, 이만익 등 불자작가들의 작품이 눈에 띈다. (02)2287-3600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최고의 선물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正宇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인테리어 시공전문
正宇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황토 원적외선 좌훈기
(좌훈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측면
◐ 100% 황토와 세라믹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므로 여자분의 냉대하증, 요실금, 산후조리, 치질, 습진 등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취향에 따라 건식 및 한약재(티백)를 이용하여 습식으로도 가능하며 온도조절이 용이하여 내부를 세탁할 수 있습니다.

▲윗면
◐ 질좋은 황토를 사용하였기에 원적외선이 많이 방사되고 은은한 열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 우리의 선조는 황토흙 벽돌로 집을 짓고 생활하였으며 현대도 찜질방, 황토굴 등 자연의 황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 내부 용기 세척이 용이하여 위생적입니다.
◐ 좌훈은 혈액 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 약제 티백 공급합니다.
특허 · 실용 출원중임
전 원	220V
규 격	380×380×420
소비전력	650W
중 량	12kg
식약청 제조허가 1687호	
두영엔지니어링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43-17
TEL : 053)985-6939,6940 FAX : 053)985-6930 H.P : 011-810-3301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6
각성 스님(화엄학연구원장) / 해심밀경(10월 28일)

금강산 직접 봐야 절경 알듯 깊은 지혜 터득위해 정진하길



흑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물체가 검게 보이듯 자신의 마음자리가 맑지 못하면 불성을 드러낼 수 없으니 <해심밀경>이 강조하는 문사수와 삼성 등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라고 역설하는 각성 스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설법할 내용은 바로 <해심밀경>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천수경>, <화엄경>, <법화경>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해심밀경>은 강원에서 교재로도 쓰지 않고 있고 또한 일반 대중들도 잘 모르는 경전입니다.

<해심밀경(解深密經)>은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중국 당 태종 당시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17년간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번역한 경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심밀경>은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너무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은밀해서 중생들이 알기 어려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잘 풀이하고 해석해 놓은 경전입니다. 어떤 삼장 법사는 <해심밀경>을 <해절경> <상속해탈경> <심밀해탈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해심밀경>의 대의(大義)는 팔식(八識)을 전환하여 사지(四智) 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 바로 듣고 사색하여 번뇌 속박 벗어나는 수행에 매진하세요

여기 법회 주제가 경전을 통한 수행의 깨달음인데 대중들의 이해를 돕고자 중국의 선사인 육조 혜능 스님의 이야기를 조금하겠습니다. 혜능 스님은 오조 홍인대사에게 법을 받아 제33대 6조라는 가장 높은 대 선지식으로 그 문하에서 수천명의 선사들이 배출되어 오가칠종을 형성할 정도로 중국을 선종 일색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육조 혜능 스님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起心)' 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조 홍인 대사의 법을 전수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참선하는 공안 화두법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달마 대사는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하셨지만 <금강경>과 <능가경>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오조 홍인 대사는 <능가경>이 분량도 많고 난해하기에 오직 <금강경>만 독송하도록 가르치고 전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도 혜능 스님이 <금강경> 해석하는 법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은 선종, 교종 구분할 것 없이 수행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당 이후 송나라 때 중국에서는 선종이 유행하며 1700 공안이 만들어져 경전공부를 하는 것 보다 오직 공안을 참구해서 깨치는 수행법이 정착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상근기는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돈망생사(頓忘生死)라. 한 말씀 들을 때 나고 죽는 생사를 단박에 깨닫는 그런 상근기도 있었고 중근기나 하근기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전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을 거쳐서 수행의 지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모든 경전에는 수행하는 법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능엄경>에는 25통(通) 수행법이 있는가 하면 관세음보살의 듣는 것을 돌이켜 듣는 반문(反聞)공부가 있습니다. <원각경>에는 사마타(奢摩他), 사마발제(三摩跋提), 선나(禪那) 등 삼관(三觀) 수행법이 있고 <대승기신론>에서도 선정과 지혜를 지관문(止觀門)이라 해서 지관으로 수행하는 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심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태학이나 화엄학에서는 <해심밀경>이 법상종의 경전이라고 해서 격을 좀 낮추어서 말한 조사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해심밀경>에서는 부처님이 삼시교(三時教)를 논했는데 초기에는 <아함경>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고정관념, 즉 눈으로 보고 듣는 여러 가지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주로 말하셨습니다.

중기에는 <반야경>을 말씀하셨는데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아함경>보다 차원이 높은 무상(無相)의 진리인 모든 상(相)을 초월한 상이 없는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마지막 제3시에서는 중도 사상, 유상과 무상을 초월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변을 떠난 그러한 진리를 <해심밀경>에서 주창하셨습니다. <해심밀경>이 <금강경>이나 <아함경>보다 상위에 속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셈이지요.

<해심밀경>에서 설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문사수(聞思修) 삼혜(三慧)와 삼성(三性)을 논한 것입니다. 바로 듣고 사색하고 닦는다는 것이 문사수 삼혜인데 이 가운데 문혜와 사혜는 번뇌를 떠나지 못한 차원에서 수행하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에 불과하지만 수혜는 번뇌와 오염 속박을 떠난 차원 높은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의타기성(依他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입니다. 변계소집성은 우리 범부 중생들이 두루 온갖 쓸데없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쓸데없는 집착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공꽃은 본래 없는 것인데 눈병이 난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것입니다. 또한 밤에 산을 가다가 고목나무를 보고 저것이 귀신이다, 도깨비다, 도적이다 라고 착각해서 겁을 집어먹는다면 그것 또한 변계소집성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고목나무에는 도깨비도 없고 허공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범부들은 원래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데 '내가 있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아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육식(六識)의 번뇌를 차단하고 삼명육통의 지혜를 개발해서 무아의 진리를 깨달은 분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허망한 것을 보고 허망한줄 몰라 병든 눈으로 허깨비를 보는 것처럼 마음에 번뇌의 병이 납니다. 흑색 안경을 쓰고 물체를 보면 물체가 흑색으로 보이고 청색 안경을 쓰고 물체를 보면 청색으로 보입니다. 물체 자체는 흑색도 청색도 아니지만 색안경을 쓰고 볼 때 색에 따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와같이 중생들은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집착을 떠난 본래 진공묘유의 진리를 모르고 허망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며 병든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색안경을 벗어놓고 보면 물체가 본래 여러색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백색이면 백색, 투명체면 투명체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마음병 생겼으면 일단 생각 그치고 자세히 살펴야

세상을 살다보면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 슬프거나 괴로울 때,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사람들은 비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 비관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여유롭게 잘 사는 사람들의 경우 낙관적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은 본래 슬퍼하는 것도 아니요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의 거품이 생긴 것이지 거품이 없는 본래 파도, 파문이 없는 물은 축축한 습성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만 모든 사람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나를 도와 달라, 좋게 해 달라, 나의 기분을 맞춰 달라, 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지 왜 남이 나를 사랑 해달라고 요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중생심이 바로 변계소집성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간파하신 겁니다.

이타의 정신으로 중생을 이익 되게 살아가는 희생의 정신, 봉사의 정신, 모든 중생을 두루두루 가족같이 보살피는 그 정신이 바로 보살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야 말로 변계소집성을 떠나지 않고는 일으킬 수 없는 것이지요. 변계소집성을 떠날 때 보살의 정신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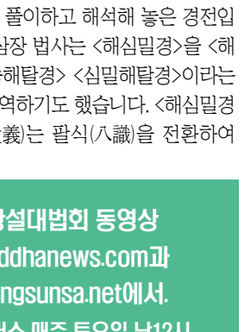
삼성 가운데 제2성은 의타기성으로 일체 만물이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법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 혼자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콩의 씨앗이 인(因)이라면 콩을 가꾸는데 필요한 물과 흙, 태양의 온도, 비료 같은 것은 연(緣)에 해당됩니다. 콩이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결과로 원래는 인과라고도 합니다. 인연법은 인연과(因緣果)의 삼단계를 거칩니다.

불교에서는 처음에는 인연이 있다고 했지만은 깊이 따지면 인연도 본래 없는 것입니다. 인연성공(因緣性空)이라. 인연의 성질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인연이란 한 생각을 일으킬 때 생기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서 생각을 초월해 버리면 인연법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인연으로 생겼다고 하는 것을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경(火鏡)을 쑥에 대고 잘 조절하면 태양열이 모아져 불이 붙어 타게 됩니다. 만약 쑥이나 화경, 태양 그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불이 붙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인연 조건이 맞아서 불이 생기게 됩니다. 이 비유는 생겼다 사라짐은 무상의 진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셔틀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사앞 출발 (왕복 1만원)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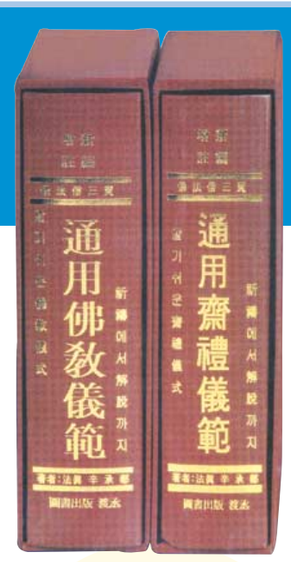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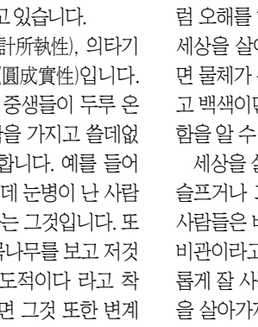




編·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매장 埋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공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壇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6

각성 스님(화엄학연구원장) / 해심밀경(10월 28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이 없이 찰나찰나에 변하는 것이 바로 인연이고 그 인연 자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잘 밝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원성실성은 부처의 마음자리이고 우리들의 불성자리이며, 보살이 도를 닦아 성불해서 보리 열반을 증득하는 그것입니다.

<해심밀경>에는 보살이 도를 닦아 진여를 개발해서 보리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원성실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불하기 전에도 원성실성은 있는 것입니다. 여래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우주 만법을 다 재보면 어떤 법도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세가지 표준을 가지고 모든 중생부터 보살 부처까지도 세가지 법으로 다 집약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원성실성을 제대로 통달하신 분은 부처님이시며, 보살은 나름대로 조금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전을 통해 수행하는 길을 <해심밀경>에서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타는 인도 범어인데 마음을 그치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흘러가고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잡념, 갈등, 불안, 공포, 번뇌 망상이 부글부글 끓지요. 그래서 그런 망상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제거하는 방법을 정지시키라고 해서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려면 일단 차를 정지 시켜야 합니다. 차를 멈춰놓고 고쳐야지 달리면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지요. 우리 중생의 몸과 마음의 차가 고장이 났다면 이 번뇌의 병으로 말미암아 마음병이 생기므로 일단 생각을 그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선할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도 편안하고 좋지요. 된 일을 하다가 무지 털듯이 마음의 육진 번뇌 망상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털어버리라는 지법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이 바로 위빠사나입니다. 위빠사나는 쉽게 말하면 관찰하는 것입니다. 성이 날 때도 성나는 데만 마음이 달아가지 말고 왜 성을 내는가, 성내는 주체가 무엇인가 그걸 포착하려고 하는 그 힘을 갖고 관찰하는 것이 바로 위빠사나입니다. 차를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는 것이 지(止)라면 그 다음에는 차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관찰해서 세밀하게 고장난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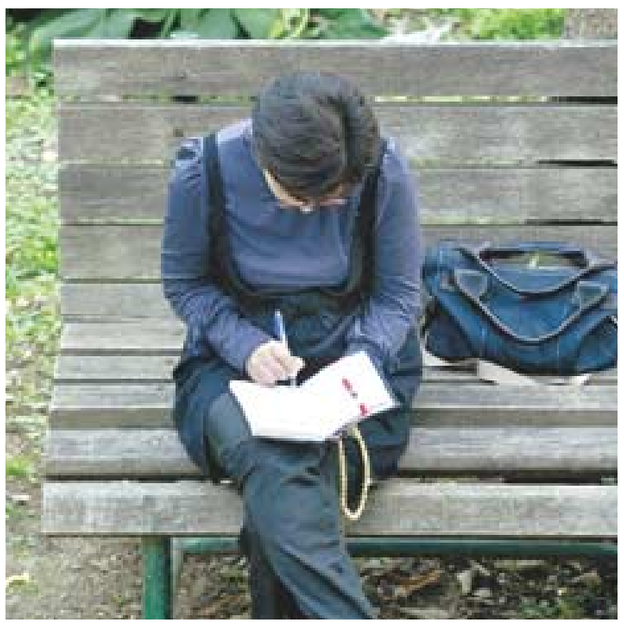
차가 고장난 것을 잘 살펴봐서 고장난 부위를 알게 되고 부속을 갈아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 병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탐심을 고쳐야 하고 성내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성내는 마음을 고쳐야 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많은 사람은 어리석은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집도 고장 나면 수리해 새 집이 되듯이 사람 마음도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겼으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관(觀)입니다.

이 두가지 수행법을 합쳐서 지관법이라고 합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를 들면서 지관법을 수행하고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을 지극정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자연히 지관의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해심밀경>에서 가르치는 법은 깊은 지혜를 가지고 여래의 법을 정말 제대로 살피려면 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심밀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을 공부하다보면 경전에서 가르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낼 때 해심밀이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공중에 누각을 세우듯 해심밀이 어떻다고 말을 해 봐야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조선시대때 금강산에 살던 한 스님이 서울에 와서 큰 대감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대감이 금강산의 절경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에, 직접 금강산을 가봐야 그 절경을 알 수 있지 백번 이야기 해봐야 실감이 나지 않고 금강산의 면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심밀경>을 설명하는 것도 부처님의 분상(分上)에서 보면 겨우 한귀퉁이를 설명할까 말까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지혜를 가지고 행심반야바라밀다를 터득할 때 그때 해심밀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공부는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는 것으로 숙제를 남겨두니 결국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금강산을 소개하는 스님 비유를 끝으로 오늘 법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리=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단풍이 장관을 이룬 봉선사 경내에서 각성 스님의 법문을 한 구절이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듣고 기록하는 불자의 모습이 아름답다.

질의

경전공부는 새끼 품는 '새둥지'와 같아



명법 스님(운문승가대학 중강)

[질문] 저는 오늘 스님의 법문을 <해심밀경>에서 이야기 하는 말할 수 없는 경계를 알기 위해 일단 경을 읽고 그 경에 대한 지표를 삼은 다음에 직접적인 수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조사선에서는 교를 버리고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오늘 법문에서는 경전을 통해서 수행을 하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두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

[각성 스님] 조사선문에서는 사교입선(捨敎入禪),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마 스님도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不立文字 敎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견성 성불하는 그런 법을 달마께서 말씀하셨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처방이 최상의 처방입니다.

예를 들면 <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 아라한들이 육신통을 얻고 삼계 윤회를 벗어나서 삼매에 도취되어 나올 줄 모르는 것을 지적했죠. 그래서 소승 나한들은 삼매의 술에 취해서 깨어날 줄 모른다고 지탄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경전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마음을 통달하지 못하고 경전속에서만 일생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전도 모르고 조사 선법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전부터 공부를 해서 불법을 제대로 알고 믿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 것처럼 경전공부가 굉장히 필요하고 경전공부를 어느 정도 달성한 다음에는 아는 지식의 함정속에만 파묻혀 있지 말고 그 함정까지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가 새끼를 깔려고 할 때 둥지를 만들어 그속에서 알을 낳아 품고 있습니다. 품어서 부화되어 새끼가 나오면 열심히 키워요. 새끼가 성장이 되면 새는 그 둥지를 떠나갑니다. 그 둥지에는 다시 안 살아요. 경전공부도 하나의 둥지 같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알'도 까지 않은 존재가 '둥지'부터 버리려고 하면 언어도단이 아닐까 합니다. 첫째는 둥지를 만들어 알을 까야합니다. 둥지를 만들어 놓아야 알도 낳을 수 있고 새끼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새끼'를 기르고 성장시킨 후 사교입선을 해서 불교가 없는 곳에서 불법을 펼치세요. 부처가 없는 곳에서 내가 부처 노릇도 해야 하고 법이 없는 그야말로 불모지에 법을 펴기 바랍니다.

경전 말씀대로만 충실히 하면 다 성불



안성두(동국대 강사 · 불교학 박사)

[질문] <법화경> 등 대승경전에서는 수지, 독송, 서사, 해설의 공덕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심밀경>에서도 그 공덕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경전의 필사와 수지 독송을 넘어 또다른 핵심적인 영역이 역시 경전공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해심밀경>의 지관 법문이 다른 경전의 내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각성 스님] 모든 경전이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깐 사실은 조사선이 나와 경전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을 뿐이지 경전은 경전대로 본다면 그 법이 가장 최상의 법입니다. 경을 믿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남에게 해설해주고 또 그 법대로 수행하면 그 이상 없는 것입니다. 성불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성불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 <아미타경>대로 수행하면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는 겁니다.

<대승기신론> <원각경> 등 다른 경전과 비교해서 <해심밀경>이 특색 있는 지관법을 말씀했다고 해도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조금씩 대동 소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때와 장소 그리고 청중의 근기가 어떠냐에 따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소승 경전이나 제일 낮은 차원의 설법을 하셨다해도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도높게 설명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속에 전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함경>을 아함차원에서 보면 소승 경전이지만 내가 볼때는 <아함경>도 대승경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보는 각도와 또 재는 척도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리=김두식 기자



용의크기 :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대한불교 선총림 오봉산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도자기 불상 조성 전문 기업 경 동 요

천불 · 삼천불 · 만불

불상크기 : 1자
재질 : 도자기(개금)



지장 보살님 | 관음 보살님 | 지장 보살님(여의주)

경동요는 삼보에 귀의 하는 마음으로 도자기 불상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경동요는 2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덕스님들 께서 원하시는 불사에 맞추어 불상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표 천우경 합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1리 329-1번지
● 전 화 : 031)638-4531 (주간)
031)637-8789 (야간)
● 휴대폰 : 011-765-4531

불상크기 : 7치
재질 : 도자기(개금)



석가모니부처님 | 지장 보살님

차 마시면 이 '튼튼' 기억력 '쑥쑥'

한국차학회, 학술대회서 학교급식 '차' 포함 제안



"학교급식에 차를 포함시킵시다!"

10월 27일, 서울 인사동 거리에 '학생들에게 차를 마시게 하자'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날 '학교급식에서 녹차음료의 필요성'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한국차학회(회장 이혜자 ·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회원들이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이 회장은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차를 마신다면 충치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차에 포함된 데아닌 성분이 청소년들의 뇌기능을 활성화해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10월 27일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차를 마시게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효과가 발표됐다.

임상 실험서 충치 예방 효과 입증
암기력 ·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
낮은 가격 공급 위한 방안 논의중

서울대 진보형 교수(치과대학)는 '녹차 음용이 아동의 치아우식발생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서울시 소재 2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 녹차가 학생들의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실험군 학생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아침 등교 후와 점심식사 후 매일 2회 녹차 100㎖씩을 마시게 한 결과 녹차를 마시지 않은 대조군의 학생들보다 구강 내 충치 유발 세균수가 감소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김영경 연구원(아모레 퍼시픽 녹차연구팀)과 은종방 교수(전남대)는 각각 '식중독균에 대한 녹차 카테킨의 항균 효과'와 '식품에 대한 녹차의 항균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유해 세균에 대한 항균 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녹차의 학습능력 향상 효과에 대한 논문도 발표됐다. 윤상원 교수(영동대)는 '녹차 복용시 뇌파변화 및 영어 암기력 증진에 관한 통계적 분석연구'란 주제 발표에서 "녹차를 마신 후 단기 기억력이 향상되며, 정신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정하숙 연구원(덕성여대 자연과학대학 천연물연구실)이 발표한 '단체급식에서의 녹차 음용 사례 연구'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학교급식을 통해 녹차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이다. 정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학교에서 녹차를 음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녹차를 이용한 반찬과 간식 등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장기간에 걸친 녹차 음용이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더 많은 학교가 녹차 급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표 결과를 토대로 한국차학회는 학교급식에 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06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000여 권을 전국의 일선 학교장과 학부모단체에 발송해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 기관에도 녹차 급식의 필요성을 알려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차생산자연합회 등과 연계해 차 생산농가들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차를 저가에 공급하도록 유도해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회장은 "녹차 급식은 학생들의 신체 ·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 후 어려움을 겪게 될 우리 차 농가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며 "학부모 단체들이 녹차 급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김해 찻잔공모전 미소공방 대상

경남 김해시가 개최한 찻잔공모전에서 미소공방(대표 김봉균)이 출품한 '토기형 분청 찻잔'(사진)이 대상을 차지했다. 김해시는 11월 1일 "10월 29일까지 진행한 찻잔공모전에 모두 54점의 작품이 출품됐다"며 "이 중 김해 분청도자기축제에 참가한 시민 3천여 명의 투표를 거친 27점의 작품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한 결과 '토기형 분청 찻잔'이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토기형 분청 찻잔은 가마에서 구울 때 생성되는 연기로 자연스런 색을 띠게 하고 내부는 상감처리 기법을 사용했다.

이 밖에도 이번 공모전에서는 가야탈방이 출품한 '가야탈을 응용한 부부찻잔'이 금상에 선정되는 등 모두 10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찻잔공모전은 김해시가 지역의 다양한 찻잔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직접 나서 관공서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14. 정신의 음료

② 중국 고대 음차(飮茶)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해 끊임없이 동경(憧憬)하면서도 늘 옛것을 그리워하며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 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형이 유지되는 것들이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환경과 습관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그 나라와 지역의 풍토와 정서에 어울리는 전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 차가 가장 먼저 생산 · 음용된 곳은 파촉(巴蜀)지역으로 지금의 운남(雲南)과 사천(四川)지역 등이다. 이 지역의 차나무는 대엽종(大葉種)이 많으며 찻잎이 크고 두꺼워서 잎을 가공하여 주로 약용(藥用)으로 이용했고, 찻잎에 쌀 · 생강 · 파 · 귤 등을 넣어 끓여 죽처럼 먹기도 했다. 이처럼 차가 서남지역의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식용(食用)과 약용(藥用)으로 이용, 변천되어 기호식품으로 음용(飮用)될 때까지 차를 마시는 방법과 즐기는 사람의 계층은 다양했다.

당대 많은 다점(茶店) 형성 음다 널리 보급
불교 융성하며 선종과 함께 큰 의미 차지



남북조 시대 잔탁과 자기 찻잔.

차의 고사(古事)에 의하면 전한(前漢) 때 왕포의 <동약(僮約)>을 보면 이미 차가 경제적으로 이용되었고, 차를 마시는 도구와 차를 준비하는 다동(茶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오나라의 임금인 손호(孫皓)는 본래 괴팍하고 술을 좋아하여 연회 때 마다 신하들과 술을 마셨는데, 신하들은 일곱 되(升)의 술을 마시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어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손호가 총애하는 학문이 높은 신하인 위요(韋曜)가 술을 마시지 못하자 임금이 몰래 차를 주어 술 대신 차를 마시게 하였다. 이 때에 궁중에서 차가 음료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진(晉)나라 사람인 육납(陸納)은 생활이 검소하고 곧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루는 그의 집에 위나라 장군 사안이 오자 그의 조카는 많은 요리를 준비하여 대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육납은 차와 과일로 그를 접대하였고, 그가 돌아간 후에 조카를 꾸짖고 곤장을 때렸다고 한다. 이처럼 차는 검소하고 청렴한 인물이 선호하여 즐겨 마시는 음료로 상징되어 상류사회에서 사교용품으로 유행했다.

또한 차가 제사에 이용되기도 했는데, 무제(武帝, 남제 영명11년)는 자기가 죽은 후 제사를 지낼 때 살생을 금하고 떡, 과일, 차, 밥, 술을 올리게 하여 궁중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제도를 따르게 했다. 위진남북조시대에 이미 음료문화로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북방의 소수민족들까지도 차를 마시게 되었지만 그들은 주로 양고기와 유락(乳酪)을 주식으로 하여 초기에 차를 마시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아 차를 마시는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었다.

하지만 당대(唐代, 618~907)에 이르러서 활발한 문물교환으로 차는 수로와 육로를 통해 전파되어 음차(飮茶)의 풍속을 갖지 않은 소수민족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돈을 주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많은 다점(茶店)이 형성되어 차를 마시는 풍속이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특히 불교가 가장 융성하였던 이 시기에 봉연의 <봉씨견문기>를 보면 '선종의 교리를 배우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저녁도 먹지 않으면서도 차만을 마셨다'는 내용은 불가에서 선종과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이 밥을 먹는 것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사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화려하게 번영을 누렸던 당나라 때 차 문화는 육우의 <다경>을 통해 더욱 더 빛을 발휘하게 된다. 이 경전은 처음으로 차나무의 생육과정에서 차를 달여 마시는 방법, 차의 고사(古事) 등 차에 관련된 모든 것을 수록한 책으로 중국의 차 문화를 응집하는 역할을 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신상품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합장주,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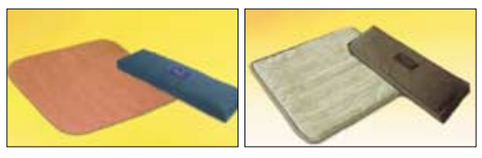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제조원 : ㈜자원넷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방석
198,000 → 158,400원 (20%할인)
· 규격 : 425mm × 400mm
· 무게 : 950g ~ 1000g
· 색상 : 살구색, 쥐색
· 재질 : 겉커버 - 고급 샤넬천,
속커버 - 희담석 알갱이가 들어있는 고급 방수천

사은품 : 희담석 찜질팩


희담석 허리팩
44,000 → 35,200원 (20%할인)
· 총길이 : 120.5cm · 내용물 : 희담석가루, 물, 수지
· 표피 : 무독성 PVC sheet (항균 99.9%의 금가루 첨가)

사은품 : 희담석 눈찜질팩


보이차
해발 3,000M이상 에서 생산된 자연산 야생교목(2년산)

최상의 보이햇차를 고급자사통과 함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특별할인가 600,000 → 500,000원
· 구성 : 보이차 14편, 자사통

보이햇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떫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햇차 야생지 :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샹그리라'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 수입원 : ㈜홍다원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싱 정산에 위치한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 크기 : 지름 29cm, 높이 37cm
· 종류 : 담녹색, 황토색


주문 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업팀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3
2004-8215

쌀뜨물로 청소하고 천연비료 만들어요

만능살림꾼 'EM 효소'


가스레인지 등 주방기구에 EM 발효액을 뿌리고 닦아주면 묵은 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EM 활성액을 신발장에 뿌려주면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

쌀뜨물로 청소를 한다? 쌀을 씻을 때 나오는 쌀뜨물은 무공해 천연 세제로 알려져 있다. 최근 주부들 사이에선 이 쌀뜨물을 이용한 'EM 효소'가 각광을 받고 있다. EM 효소는 세균 정화작용이 뛰어나 설거지나 도마 · 행주 등의 살균, 냉장고 · 가스레인지 등을 닦을 때,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킬 때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 EM이란?

EM이란 '유용한 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인체와 환경에 유용한 미생물을 배양한 것을 말한다. 요구르트나 술, 된장 등 발효식품이 만들어질 때 미생물군이 작용하는 원리와 같다. 쌀뜨물에 EM을 넣어 발효시킨 EM 활성액은 탁월한 항산화력을 가지므로 세제나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EM이 토양의 힘과 작물의 내병력을 높인다는 보고가 잇따름에 따라 국내 농가에서도 EM을 이용한 무농약, 친환경 농법을 개발하고 있다.

15℃ 이상 실내 보관…유통기한 6개월

▷ EM 활성액 만들기

EM 활성액은 쌀뜨물에 EM을 소량 넣어 발효시켜 만든다. 보통 쌀뜨물 1리터에 설탕 10g, EM 10cc를 섞고 밀폐한 후 일주일 정도 따뜻한 곳에 두면 된다. 겨울에는 10일 정도 걸리기도 한다.

페트병이 팽창되므로 2~3일에 한 번 정도 가스를 빼주는 것이 좋다. EM 원액은 1ℓ에 4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발효가 잘 진행된 것은 막걸리 같이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난다. 쌀뜨물 대신 쌀겨 우려낸 물을 써도 된다. 만들어진 활성액은 변질을 막기 위해 작은 용기에 나누어 보관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냉장고보다는 15~40℃ 정도 되는 실내나 베란다 등에 두고 사용한다. 유통기한은 6개월 정도로, 장기간 냉장보관하면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만들지 않는다.

쌀뜨물에 유용한 미생물군 넣어 발효
항산화력 높아 천연세제 · 방부제로 활용

살균 · 표백 · 악취제거 · 벌레 예방 효과

▷ 이렇게 쓰세요

EM 활성액은 세정력이 탁월하므로 설거지 할 때나 행주 · 도마 등을 살균할 때 유용하다. 설거지를 할 때는 EM 활성액 푼 물에 그릇을 담가 두었다가 씻는다. 물과 EM 활성액을 희석한 후 작은 분무기에 담아두고 도마나 싱크대의 찌든 때, 프라이팬의 기름때 등에 뿌려준다. 행주를 소독할 때는 희석액에 담가 둔다.

와이셔츠나 흰색 면옷 등의 표백을 원할 때는 EM 활성액에 담가 두었다가 세탁한다. 세탁기에 사용할 때는 10kg 세탁기를 기준으로 활성액을 500cc 정도 넣는다.

화장실이나 신발장 등 냄새가 나는 곳에는 EM 원액을 조금씩 뿌려주면 악취가 제거되고, 바퀴벌레나 집먼지 진드기가 생길 수 있는 곳에는 활성액을 희석해 뿌려두면 예방할 수 있다.

EM 활성액은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키는 데도 적합하다. 음식물 쓰레기를 부패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은 물론, 식물의 천연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 찌꺼기 위에 EM 활성액을 뿌려둔 후 물기가 빠지면 밀폐용기에 넣어둔다. 4~5일 정도 두면 천연비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에코붓다는 11월 9일 '주부를 위한 생태학교-도서에서 생태를 꿈꾼다' 특강의 일환으로 'EM 효소 만들기'를 진행한다. 오전 11시부터 윤태임 정토회 환경사업부장과 함께 직접 효소를 만들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02)587-8775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제공= EM 환경센터






걸레를 소독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EM 활성액을 첨가하면 살균 · 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M 희석액을 분무기에 넣어 화초에 뿌려주면 식물의 내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선재 스님, '요통에 좋은 음식' 강의
11월 8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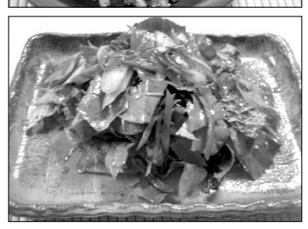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11월 8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요통에 좋은 음식'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승덕 교수(침구과)의 강의와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의 사찰음식 강좌가 이어진다. 참가비 무료. 1577-7000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38〉

시래기나물밥과 즉석 야채 겉절이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제 볼을 스칩니다. 가을이 채 무르익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입동(立冬)도 지나고 겨울이 오나 봅니다.

이제 과일차를 끓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겨울이 찾아오면 과일차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이맘때면 어느 집이나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한 과일이 가득합니다. 이 과일을 가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전 특별히 준비하는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과일차와 된장에 버무려먹는 시래기와 우거지 같은 겨울철 먹을거리들입니다.

이런 겨울철 먹을거리들을 준비하려다보면 여러 가지 할 일이 생깁니다. 김장도 해야 하고 가을볕에 말려두었던 가지나물과 무오가지, 버섯, 무시래기 등을 갈무리해두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손수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지요.

제가 자주 가던 절에서는 김장을 한다고 하면 동내 잔치라도 하듯 온 마을 사람들이 하루 일손을 놓고 절에 모여 도왔습니다. 하루 종일 김장을 돕고 난 후 절에서 온 식구가 밥을 먹고, 그날 담근 김장김치도 얻어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배추우거지와 무시래기였습니다. 요즘은 김장하는 집도 많이 줄고, 김장을 해도 그 양이 많지 않으니 힘은 덜 들지만 아무래도 예전 같은 낭만은 덜한 것 같습니다.

절의 김장을 돕고 얻어온 무시래기는 된장에 버무려 끓여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가을볕을 듬뿍 받고 마른 무시래기와 무말랭이 등이 겨울 한 철 우리 집 든든한 밑반찬이 되는 셈이지요.

음식 하나 재료 하나에도 가족들 간의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먹을거리의 또 다른 가치가 아닐까요?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분들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행복입니다.

■만드는 법



〈시래기 나물밥〉 재료: 쌀 1공기, 무청시래기 1줌, 들기름1큰술, 밥물(쌀뜨물 3컵, 표고버섯가루 1/2작은술, 된장 1작은술) 양념장(된장 1큰술, 들기름 1작은술)

① 쌀은 미리 불려 물기를 빼준다. ② 시래기는 흐르는 물에 씻어 물기를 짠 다음 5cm 길이로 잘라 비빔장에 버무려준다. ③ 불려 놓은 쌀은 들기름에 볶아주다 밥물을 1/3넣어주고 볶는다. ④ 밥이 어느 정도 되면 시래기를 위에 올리고 나머지 밥물을 부어 밥을 완성한다.⑤ 무생채 등의 반찬과 함께 낸다.



〈즉석 야채 겉절이〉 재료: 쌈야채 1줌, 오이 1/2개, 청 · 홍고추 1/2개씩, 양념장(간장 1큰술, 물엿 1/2작은술, 통깨 1작은술, 고춧가루 1작은술, 참기름 약간, 산초가루 약간)

① 쌈야채는 한입크기로 잘라 냉수에 담가둔 뒤 물기를 빼 건진다. ② 오이는 반으로 잘라 어슷하게 썰어준다. ③ 청 · 홍고추는 곱게 채 썰어준다. ④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⑤ 준비한 야채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준다.

▶다음 주에는 다시마 샐러드와 파래 감자전을 만들어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안봉려관 스님 두옥(斗玉)문도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두옥 문도스님 여러분 법체청안하신지요?

대원력과 끝없는 신심으로 늘 그 분상에서
수행 정진 포교하시는 모습
만추의 풍경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전법륜의 끝없는 일상의 되풀이 속에서
문득 그렇게 한번씩
문도 여러 어른스님들의 거룩하신 모습이
한없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승가의 맥을 잇고 있는 장한 후배스님들의
신심있는 풋풋한 모습들 또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옥문도회 스님네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긴요한 일로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문도스님 여러분의 청정한 기운을 느끼게 해 주십시요.

아 래

♦일 시 : 불기 2550년 11월 15일(음 9월 25일)
수요일 오후 7시
♦장 소 : 제주도 영암사(제주시 영평동 1948-2)
♦연락처 : 영암사 ☎ 064)702-1298, 총무스님 HP : 011-691-2183
※ 대구 청수사, 부산 보덕사, 광주 흥룡사, 제주 도남 보덕사, 계열 문도스님들

두옥 문도회 회장 법공 합장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적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그리고 자료의 재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가치관의 체계확립 및 성격교정
2.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3. 설법 무엇이 문제이고, 그 대안은?
4. 음성언어 및 몸짓언어의 이론과 실제
5. 원고작성법 및 실기훈련, 비디오 촬영
6. 상담적대화 및 대화최면의 실기 훈련
7.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발원문 등 실습
8. 설법자료의 재구성 능력 확보를 위한 이론과 실제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매주 화요반 & 목요반-2개월 과정
특별반 - 맞춤식 개인지도 8회과정
※ 수시모집
◆ 개강 : 종합반 - 화요반 : 2006.11. 7(화) 오후 7시
목요반 : 2006.11. 2(목) 오후 7시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법/성/게/강/의

신라의 의상스님은 「60화엄경」의 골수 내용을 뽑아 「법성게」라는 2백 자의 간단한 문구 속에 심오한 진리를 요약하여 담아, 불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므로 해서 광대무변한 화엄의 세계를 일상 속에서 쉽게 기억하게 하였다.

화엄경에 대한 강의나 해설에 대한 책들은 우리 주위에 대단히 많다. 하지만 법성게란 단일 제목으로된 강의나 해설은 거의 전무한 게 사실이다. 이 책은 그러한 점에서 희소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성철스님의 오매일여 사상에 대한 저자의 일갈은 단순한 알음알이로 강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만든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화엄경」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더욱더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석우스님 지음/신국판/424쪽/값13,000원
여래출판사



승산 큰 스님의 웃음과 삶과 가르침

입적 이래 최초로 펴내는 숭산 큰스님 전기 『삶의 나침반』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았던 숭산 큰스님의 삶과 가르침의 참모습을 쉽고도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다.

2004년 11월 화계사에서 입적한 숭산 큰스님은 생전에 한국 불교 종단의 주류자리를 버리고 미국에 건너가 관음선종(Kwan Um School of Zen)을 창시했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불교를 포교하여 외국인 제자들을 길러내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지침을 바탕으로 생각의 전복과 마음의 혁명을 일으켰으며, 서양과 서양, 불교와 기독교를 넘어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었다.

"마음이 힘든가? 그 마음을 내게 가져오게"

허문명 글/국판/1권 209쪽, 2권202쪽/각권 9,500원
열림원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 교육의 지혜

부처님 가르침대로 키우면 자녀교육 성공한다!

이 책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치게 되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들을 뽑아, 그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수십 년간 교육현장에서 몸담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딪치고 부대낀 풍부한 현장경험에 각종 교육이론으로 무장하고 거기에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시켰다.

현직 교사인 저자가 교육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 한 교육이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넘나들며 쓴, 불자들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서!

민병직 지음 / 국판/288쪽/값 9,800원
운주사
www.buddhabook.co.kr



무이스님의 참선경어

참선 수행자의 어깨를 후려치는 무이스님의 죽비

무이스님의 참선경어는 간결한 문체로 요점만을 타당하게 서술함으로써 참선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다시 끄집어 내어 철저하게 규명한 글이다. 여기에서 공부방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가장 요긴한 것으로서, 참선하는 남자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책이다.

무려 120여 가지 경우를 예로 든 무이스님의 설명을 참구하다 보면 어느 새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닫고
의심하지 않으면 아예 깨닫지 못한다"

무이스님 지음/국판/240쪽/
값8,900원/장경각
장경각



창간 12주년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02) 737-0695

현대불교신문 및 책방여시아문 12주년 기념이벤트

지면에 나온 출판연합서적 구입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 2만원이상 구매고객 : 불교평론 합본 CD (총 200개)
- 3만원이상 구매고객 : 설선대법회 법문 CD (총 100개)
- 10만원이상 구매고객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테입세트 (총 50세트)









절 수행입문 (불교수행입문 제2권)

'절 수행'은 몸을 통해 마음의 부질없는 집착들을 비워나가는 수행법으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써 몸과 마음의 평안을 실현하고 세상과의 갈등을 푸는 데 탁월하다.

이 책은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절 수행'의 의미, 방법, 공덕 등을 짚어보고, 현재 조계종에서 정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절 수행'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무거울 때, 몸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함께 단련할 수 있는 '절 수행'은 수행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행법이다.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변형신국판/134쪽/값6,000원
조계종출판사



달라이 라마와 함께 지낸 20년

이 책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천축국 인도에서
달라이 라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하면서
히말라야 설산들과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의 성지를 순례한 〈신왕오천축국전〉이다.
스승에게서 배운 〈큰 자비심〉을 가슴에 품고 수행하면서
여름 한철은 오지인 라닥지역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는
수행자의 맑은 기록이 당신의 가슴에 큰 감동을 전해 줄 것이다.

청전 지음 / 신국판 반양장 / 360쪽 / 값 13,500원
도서출판 지영사/전화 02-747-6333

한사상과 다이내믹코리아

역동성의 대한민국(Dynamic Korea)은 무엇이며, 나아가 인간과 사회라는 주제에 대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한사상과 한철학뿐이다.

한겨레 공동체를 특징지는 역동성에 대해 엄정한 이론으로서의 한철학과 우리에게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한사상으로 설명한 책이다.이 책은 살아 있는 역동적인 한사상을 설명하기 위해 7개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리의 고유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배열하였다. 제1장에서는 경영과 행정, 제2장에서는 문화, 제3장에서는 교육과 국가경영, 제4장에서는 사회, 제5장에서는 산업기술, 제6장에서는 생명과학, 제7장에서는 일반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

최동환지음/신국판/462쪽/값18,000원
지혜의나무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

"배가 고프면 밥먹고, 피곤하면 잠잔다"

생활이 곧 불교요 자연의 모든 사물이 곧 스승이라 말하는 황명찬 교수의 생활불교와 그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작은 불교수행을 수상록으로 엮어낸 책.
선지식과 경전을 인용한 불교 이야기들이 제목처럼 신선하게 평범한 현실에서 깨달음을 도와줄 것이다.

황명찬 지음/신국판/256쪽/값 9,800원
지혜의나무



야생화 쉽게 찾기
1,180종의 야생화를 1,300여 컷의 사진으로 담아 휴대하면서 산과 들에서 직접 야생화를 찾을 수 있다.
송기엽 · 윤주복 지음 | 올컬러 | 120×190mm | 608면 | 값 33,000원

나무 쉽게 찾기
612종의 나무를 3,700여 컷의 사진으로 담아 휴대하면서 산과 들에서 직접 나무를 찾을 수 있다.
윤주복 지음 | 올컬러 | 120×190mm | 688면 | 값 36,000원

곤충 쉽게 찾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998종의 곤충들을 2,000여 컷의 사진으로 담아 쉽게 곤충을 찾을 수 있다.
김정환 지음 | 올컬러 | 120×190mm | 640면 | 값 33,000원

구름 쉽게 찾기
10종의 기본 운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구름과 하늘의 모습을 600여 컷의 사진에 담았다.
이대암 지음 | 올컬러 | 120×190mm | 352면 | 값 27,000원

02-720-5990
※전국 유명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건강한 자재인생 실현을 위해!
유마처럼 살자

유마는 선(禪)을 실천하고 깨달은 수행자(修行者)요
유마는 선(禪)으로 생활하고 소요한 자재인(自在人)이며
유마는 선(禪)이 사회의 지혜등불이 되도록 한 선지식(善知識)이다.

지은이: 정암, 480면, 양장본, 값 22,000원

이 책은 중국의 茶 문화를 생각하게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전하려는 목적으로 중국茶문화의 모든 각도에서 기초지식을 정리한 것이다. 차의 기원, 제다법, 다기, 차와 건강, 다예, 차의 역사, 음용사, 차와 의례, 다시와 다련, 차 제품에 대한 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차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격조높은 책이다.

지은이: 다나하시 고오호오(棚橋篁峰), 380면, 무선제본, 값 25,000원

도서출판 **하늘북**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139-1번지 TEL 02-722-7484 FAX 02-730-2646



숫타니파타

불교라는 종교적 테두리를 넘어선 인류의 위대한 영혼의 양식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원형 부처님의 原音 가르침

이 숫타니파타는 체계화되기 이전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이 경전이 전개한는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은 새로운 지평의 조화로운 윤리적 삶을 제시하고 있다.

전재성 역주/신국판 /564쪽/값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www.kptsoc.org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한 권으로 읽는 쌍윳따니까야

이 책은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쌍윳따니까야 전집의 2889개 경에서 발췌한 180개 경전을 모은 것이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수행과 교리와 관련된 58개 경전을 추가하였다. 오늘의 시각으로 문제가 되는 화두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쌍윳따니까야를 부처님과 제자와의 대화를 담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경전 전체를 활구로 만들었다.

전재성 역주/신국판/ 665쪽 / 30,000원

看話正路
간화정로

글 **월암**月庵 | 양장본 512쪽 | 18,000원



미래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선禪, 그 선의 정수이며 최고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인 월암스님이 간화선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간화선의 지침서를 출간하였다.

좋은기획 좋은디자인 좋은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도서출판 현대북스

알기 쉽게 새로 쓴 현암사 경전 시리즈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 전화 02-365-5051 www.hyeonamsa.com



한국불교의 대표적 고승6인 설법집
선지식1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책을 펼쳐라"

- 昔珠 큰스님
- 月山 큰스님
- 九山 큰스님
- 月下 큰스님
- 西翁 큰스님
- 京山 큰스님

한평생 청정수행과 정진력으로 悟道의 세계를 펼친 고승들의 감로법문은 불교의 진수를 알게하고 현실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吉祥편/신국판/509쪽 최고급 양장본/
값25,000원
홍법원



"불교와禪이 어렵다면 이 책을 펼쳐라"
선지식2

한국불교의 대표적 고승 6인 설법집

- 西庵 큰스님
- 慧菴 큰스님
- 崇山 큰스님
- 日陀 큰스님
- 光德 큰스님
- 聲準 큰스님

한평생 청정한 수행과 무서운 정진력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룩한 큰스님의 법어는 생사고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출신활로가 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吉祥편/신국판/518쪽 최고급 양장본/
값25,000원
홍법원



옛거울 밝히니 해와달이 빛을 잃네

임제선원장_ 法玄스님_ 법어집

생사의 분별심은 옛거울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습니다.

법현스님지음/신국판 양장본
/416쪽/값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꼭! 이 마음도리를 공부해서 자성 발견해야

우리가 사는 데는 한 달, 한 달이 있고 날이 있지만 여러분과 같이 앉았던 때가 바로 이 자리라고 봅니다. 사람은 항상 날짜를 따지고 월을 따지고 년을 따지고 하지만, 불바퀴는 시공이 없이 항상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바퀴라는 그 자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나가는 것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나 깨나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화두 참구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한 것 자체가 화두입니다. 화두가 따로 있어서 내가 화두를 딴 사람한테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북하면 부처 중생을 다 집어삼키는 공부라고 했겠습니까.

그대로 여여한데 그럼 왜 이런 공부를 해야만 하느냐? 이런 게 또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그 사실, 또 나 자체가 화두라는 거, 그리고 와선이나 입선이나 행선이나 좌선이나 이것을 한데 합친 것이 참선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語?動靜)'이라는 말 자체도 바로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 두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들 하십시오.

▲질문자1(남): 항상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만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점 송구스럽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실 질문 요지를 수합하여 제가 대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불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에게 본래부터 불성이 있었다면 무슨 까닭으로 그 불성이 온갖 무명(無明)을 일으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태초부터 무명이 있었다면 중생에게 어찌 불성이 있다고 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불성이라는 것은요,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성이라면 그 생명의 근본은 전체에 같이 돌아가는 평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이 세상이 직결이 돼 있고, 세상은 가설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은 그렇게 같이 돌아가지만 그 외에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의식 자체가 천차만별로 돌아갑니다.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중생(下衆生)은 나쁘고 좋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쁘고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몸 안에 들은 중생들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다스리면서 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불성이 본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그것이 영혼 자체가 살아나온 관습에 의해서, 주어진 업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서 자기 자성(自性)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과 현실에 사는 자기가, 즉 말하자면 같이 합류화돼서 작용을 해야만이 진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1(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에게 맡겨라, 맡겨라 하시는데,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온갖 망령된 장난일 뿐이라고 이해됩니다. 맡긴다는 생각도 망념의 한 가지일 것인데, 망념 사량으로 주인공에게 맡겨서 무엇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지 저희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은 도인이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허허허…. 첫째도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두 번째도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세번째도 둘이 아닌 도리에서 둘이 아닌 나툼을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명을 벗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몸 안에 들은 모든 의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 상대성의 끈에, 인과의 끈에 의해서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첫째는 주인공이라는 중심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중심을 꿰어야만 바퀴가 굴러가듯이 말입니다. 차도 중심이 있으니까 바퀴가 굴러가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중심이 없으면 목석이죠.

그래서 가는 것만 알았지 오는 것을 모르니까, 오는 것과 가는 것을 한데 합류시켜서 작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은 중심을 세워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입니다. 이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건 내면에서도 한마음이요, 모든 내면세계의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들도 '나' 아님이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 하고 세워야 그 끈을 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잡고 실험도 할 수 있고 그걸 잡고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수련하는 것은 맡겨 놓는 작업입니다. 숙명통이 컴퓨터라면 거기에 입력이 돼서 악업 선업이 자꾸 나오는 것인데, 거기다가 되맡겨 놓아야만 앞서의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놓으면 앞서의 것이 없어지고, 또 놓으면 또 없어지고, 또 놓고 이래야만이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져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질문자1(남): 여쭙기 황송하오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큰스님께서 발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발심하셨는지요. 그리고 닦아 이루셨을 때의 체험은 어떠하셨는지요.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 공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큰스님: 아! 질문도 참 묘하게 하시는군요. 허허허…. (대중 웃음) 저는요, 9살에 남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소리도 제대로 못 불러 봤습니다, 어떻게 엄한지…. 그래서 (가슴을 가리키시며) 여기에다가 아빠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인데 늙고 젊고가 따로 있겠느냐. 어차피 이렇게 갈 거라면 차라리 그냥 가는 게 좋겠지?' 하고선 뭐, 죽고 사는 건 염두에 두지도 않고요.

남의 집을 살다 보니까 고생이 돼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어도 아빠를 부르고 울었고, 고독해도 아빠를 부르고 울었죠. 그때는 물통에 물을 길어다가 먹었습니다. 일 전을 가지고 물을 사면 고련씩 요만큼씩한 표를 주었는데, 표 하나씩을 가지고 한 지게, 두 지게 요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지게를 져야만 그 집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홉 살, 열 살, 열한 살이 되기까지 그것을 져 날랐습니다. 그것만 져 나른 게 아닙니다. 엄마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애를 업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곤 했죠. 나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냥 업고 자고, 온통 야단을 하고 울면 같이 울고, 그렇게 아빠에게 맡기고 했는데, 그 애를 주려고 과자를 사 놓은 걸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 사정은 일일이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만 붙들고 울었을 뿐이죠. 이걸 얘기를 하려니까 그 얘길 안 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그저 모든 일체를 다 거기에 맡겨 놓고 했죠. 물을 길으러 가도 신발이나 좋았습니까, 어디? 게다짝이죠. 또 게다짝이 닳아서 못 신으면 짚신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물이 다 엎질러져서 옷도 다 젖고 그래서 귀퉁이도 무척 쥐어 박혔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나니까 한 모금도 떨어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저 바깥에 나가서 뜨뜻한 물도 없이 기저귀를 빨아서 전부 철망에다 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손이 얼어 부풀어서 그냥 뭐, 막 아파서 죽겠죠. 시린 게 아니라 아파요. 아픈 거를 꼭꼭 쥐고서 거기다 맡겼죠. 그저 그때서부터 거기다 맡기는 것을 내내 하면서, 밤이면 밤대로 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 나같이 어려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궁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또 밥을 굶는 때가 많았습니다. 아주 뭐 밥 굶는 사람이 늘비했죠. 그러니까 있는 곳간에 가서 보이지 않게 훔쳐다가 어떡하면 저 사람네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항상 내면에 맡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죠. 허허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참, 내내 그렇게 돼서 8·15 해방이 되기 전이니까 열여덟 살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항상 감응은 왔지만 정말 열여덟 살에, 지금으로 치면 깨우쳤다 그러지만 그때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나'가 혼연히,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왔고, 그 아빠는 반드시 나를 리드해 줬습니다. 항상 그저 잘못된 거면 잘되게 다스려 주고 또 이끌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네가 일할 때는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일을 안 할 때는 네가 나와 하나가 되고,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子)가 부(父) 앞으로 가면 부와 하나가 되고, 부가 자 앞으로 오면 자와 하나가 되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그때에 생각하기는 체가 없는 마음이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그 결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부와 자는 둘이 아니다. 그건 체가 없어서 그냥 이 몸도 움죽거리게 자꾸 이끌어 주면서, 그냥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둘로는 안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고 갔는데 그 후에 날이 퍽 추웠습니다. 날이 퍽 추우니까 '여름이 옳은 거냐, 겨울이 옳은 거냐? 겨울이 좋으냐, 여름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여름과 겨울이, 사계절이 어떻게 둘이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사람이 춥다 덥다 하는 거지 진리라는 건 춥다 덥다가 없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천지가 한데 합치는 거 같았습니다. 산하대지가 일제히 전부 손끌을 한데 모으고 (합장해 보이시며) 그냥 전부 그러는 게 보이면서, 천지가 그냥 하나로 뭉쳐져 버리면서 차츰 차츰 차츰 작아지면서, 불덩어리가 작아지면서 그냥 불덩어리 구슬이 돼서 그냥 '팡' 하고 일어나는데 그때에 놀랐습니다.

그럭하고 난 뒤에 무척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하면 '천(天)은 지(地)를 다스리면서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을 다 기르는데, 제가끔 천차만별로 마음에 따라서 저렇게 짓고,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하니 참 너무도 기가 막히구나! 나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인데, 왜 저다지도 저런가?' 하는 생각에서,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하여튼 무척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것처럼 또 싱긋싱긋 웃고 다녔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면 나와서 가는 길만 알았지 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지, 가는 길을 알고 오는 길을 안다면, 그게 양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좋은 겁니다, 싱그럽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고생하는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살, 8·15 해방되고 나서 입산을 해서 스물세 살, 즉 말하자면 6·25 나던 그해 3월달에 계(戒)를 받았죠.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말을 영 못하다가 이 근래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허허….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질문자2(남): 큰스님, 저는 2년 전에 큰스님을 뵌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진솔하게 그냥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이 무엇인가 하는 의정이 나서 여쭤 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큰스님을 친견할 당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다리가 가늘어져 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버스에 오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려는 그런 상황에서 큰스님을 뵈옵게 됐는데, 그 인연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큰스님의 가르침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꾸준히 계속 나오면서 도반들하고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니까, 작은 변화지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도 드리고 또 궁금한 거는 여쭤 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직장에서 진급을 목표로 해서 늘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족과 저와, 또는 저와 인연 닿는 사람들을 제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나쁘게 얘기해서 제물로, 심지어 제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제 목표를 달성하는 구실로 다 이용하였는데, 어느 날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는데, 꿈속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다가 깨 보니까 꿈에서 울었는데도 베갯잇이 전부 젖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머리끝부터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일어나 보니, 옆에 와이프도 자고 있고 아이들 방에 가 보니 아이들도 자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는 '참! 부질없는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와이프한테 그렇게 잘못했던 것이 안쓰럽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물고기를 놔 주는 것만 방생이 아니다. 내 목표 달성하는 데 제물로 이용한 그 부분을 놓아 주자.' 고 마음먹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역시 나 대신 아파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뭐, 특별히 목표를 세워서 출세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마저도 자연스럽게 놔지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돼야 한다는 그런 욕심도 그냥 자기 업대로 인연 따라 살겠지 하고 놔지고 와이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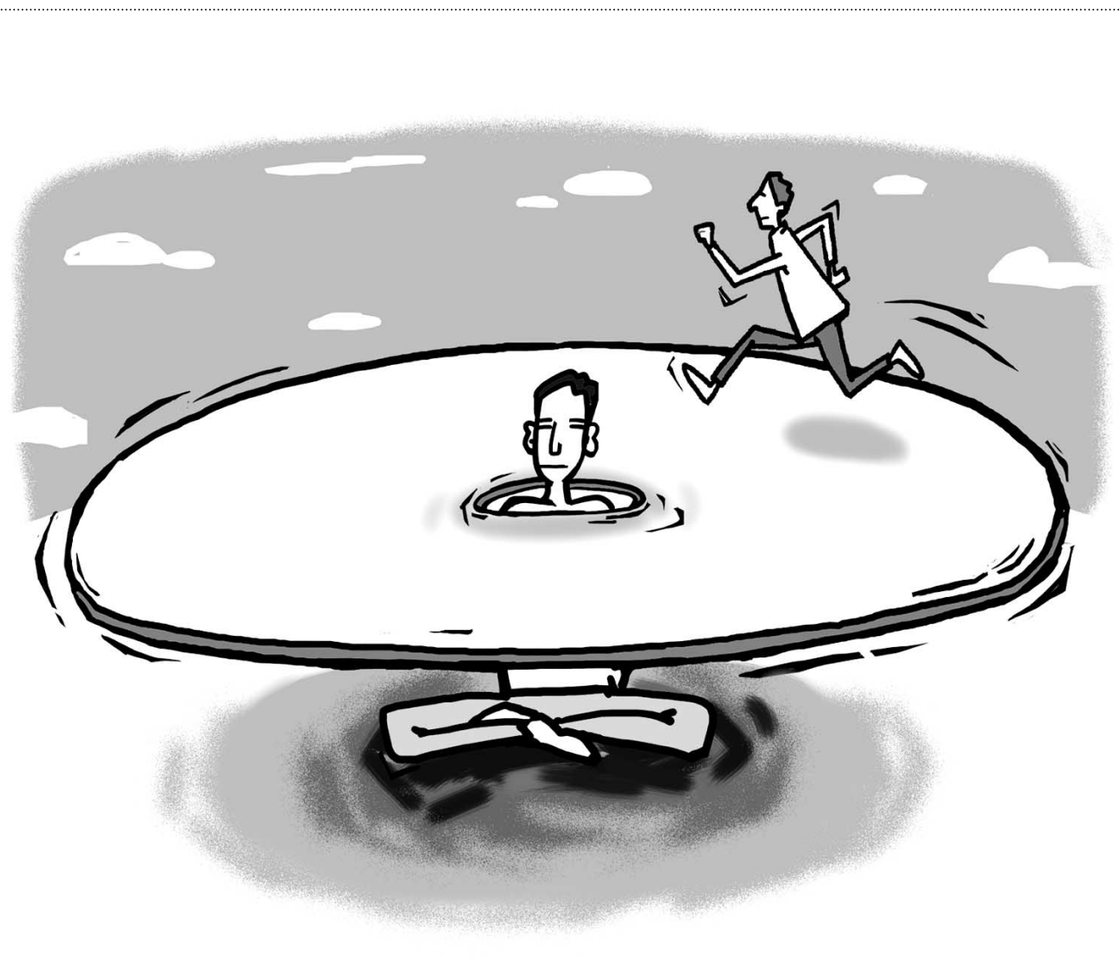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금 현실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근본에다 되맡겨 놓아야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져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과 현실에 사는 자기가 같이 합류화돼서 작용을 해야만 진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화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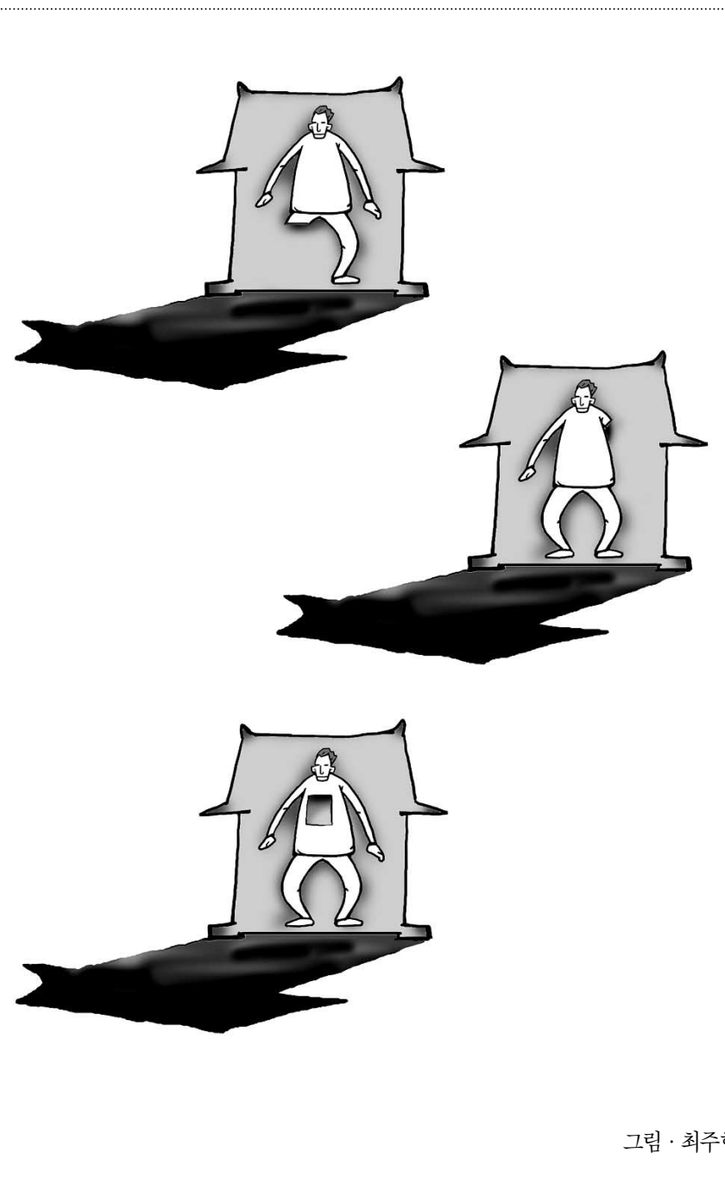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없으면 좌석버스도 타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불편하면서도.

요즘 많이 생각하는 의문이 뭐냐 하면, 도대체 등산하다 넘어진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어디 눈에 보이는 상처 부위가 있어서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현세의 어떤 업이 아니라 전생에서 제가 무슨 업을 지어 가지고 온 모양인데, 이게 무슨 업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녹여 나가다 보면 그 업도 금생에 녹여져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서 큰스님께 여쭤 보고자 나왔습니다.

▲큰스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 사이에서 몸 하나를 받아서 내 영혼과 인연의 줄을 다 끌고 한데 합쳐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인연들이 전부 내 배낭 속에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어저께가 따로 있고
오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과거는 없어요. 그래 배낭 속에 있어 가지고 배낭 속에서 과거에 지은 업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몸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괴로움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애고로 반영되기도 하고, 유전성으로도 되고 영계성으로도 되고 아주 뭐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이려면 모든 것에,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거기서 나온 거니까 무조건 거기서 해결할 수밖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낫게 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세요.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죠,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해결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게 녹아지고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 인과로 인한 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두 관습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업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두 살아온 관습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세포 하나하나에 중생들이 들어 있으면서 악이면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선이면 선으로 갚으려고 두서없이 나오는 데 그 나오는 중생들의 의식은 좋고 나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려야 된단 얘깁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이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한다.' 이러면 원수졌던 마음이 그냥 까맣게 잊혀지고 그냥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뭐 특별히 우뚝 솟는 거는 없다 하지만 차차차차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이지 밝은 세상을 사시게 됩니다. 아까도 질문할 때에 나의 과거를 물었지마는, 내가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걸 배워서 모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어저께가 따로 있고 오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질문자2(남): 큰스님,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도재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 티베트 왕사인 달라이 라마 스승이 환생하셨다는 링린포체라는 동자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 사찰을 순회하면서 설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보고 의정이 난 것은, 제 소견으로 천도재는 조상님이 열반하시고 나면은 다시 환생하기 전에 '좋은 곳으로 환생하십시오.'라는 후손들의 간절한 뜻으로 지내는 재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링린포체처럼 새로운 육(肉)을 받아서 금생에 다시 태어났다면 육과 종전에 조상이었던 영이 하나가 돼서 금생을 지나가는 어떤 동자승일 텐데, 그 동자스님이 어느 날 다시 육으로 금생에 살다가 홀연히 육에서 빠져나와서 전생의 자기 자손들한테 가서 해도 끼치고 또는 복도 좀 주고 가르침도 주고 해코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천도재는 지내는 시기가 있는 건지요? 아니면 그렇게 인도환생한 이후도 자손들이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재를 계속 지내 드려야 옳은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큰스님: 조상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모의 천도를 시키는데 부모가 전자에 살면서 그 의식과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세세생생에 끄달리는 거죠. 그런다면 그게 왜 끄달리느냐? 내 몸체가 죽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모르고, 아주 캄캄합니다. 눈이 뜨이지도 못하고 귀가 뜨이질 못해서, 그 의식만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내 몸속에 있는 인과로부터, 그 수없이 천차만별로 나오는 거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벌써 내 모습과 모든 것이 그전에 살아 있을 때처럼 있는 줄 알고 강을 못 건너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有)의 세계에서 무(無)의 세계로 건너가야 할 텐데 건너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빠져 죽을까 봐, 체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갑니다. 셋째, 이 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불바퀴 속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해방되는데, 그 불바퀴 속을 넘어서질 못하는 이유는 내 몸이 있는 줄 알고 타 버릴까 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 관습이 남아서 돌아가니까 첫째, 강 주변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언덕을 넘어서야 할 텐데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천년이 가도 그만이요 만년이 가도 그만이다 이 겁니다. 한생각이면 건너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를 이 생시에 몰랐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렇게 모른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줄 알고 친척이나 아들이나 딸한테로 맴을 도는 거죠, 넘어가질 못하니까. 맴을 돌면서 자기는 산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왜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탓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먹을 것도 저희들만 먹고 나는 안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부모가 자식을 해코지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사는 동안에 부모 자식이지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왜냐? 죽어지면 사대(四大)는 흩어지고 마음은 저 구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 도리를 알아야 사대가 무너지면 훨훨, 그냥 여여할 텐데 살아서 여여해야 죽어도 여여한데 그렇지 못하고선 그냥 발버둥일치고 분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붙어서 분기가 나게 하고, 저기 붙어서 분기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 호에 계속)

☞29면에서 계속

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놔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제가 환자여서 지금 현재 불편하면서도 환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냥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오르막길이든지 내리막길이든지, 현실에 부닥쳐서야 '아, 참! 내가 아프지.' 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도리인지 지금도 의정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병도 그렇고 또 직장 일에도 무관심한 건 아니었지만 주어진 여건을 소화만 해 나갔는데도, 역시 또 생각보다 빠른 진급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안달을 해도 잘 안되더니 그냥 맡겨 버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더군요. 이것이 맡기는 도리인지, 그래서 진급도 이렇게 해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자라는 생각과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차를 못 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하는 버릇이 없어져서 경우에 따라서 자가용이

※위 법문은 1991년 11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방송_성지순례 참가자 특별 모집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마음의 여행!!"

:: 인도 성지순례 ::

부처님의 향기가 서려있는 땅, 인도 그 광활한 대륙으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불교방송이 인도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룸비니동산, 부다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라, 타지마할과 법화경 설법지 라지기르 등을 돌아보게 될 이번 성지순례는 10박 11일이고 출발은 10월 24일 입니다.

함께하실 지도법사는 신행상담실을 진행하시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스님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705국에 530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참 금 : 1,990,000원(10박 11일)
- 비 자 : 여권, 사진 3장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비자비등
- 출 발 일 : 2007년 1월 12일

:: 라오스, 베트남 성지순례 ::

불교방송이 라오스와 베트남 성지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번순례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중의 하나인 왓트시엥롱을 참배하고
6천 840분의 부처님을 모신 왓시사켓과 성스러운 동굴사원인 팍오동굴을 순례합니다.
또한 천여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진 베트남 하롱베이도 관광합니다.
지도법사는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스님이며
이번 순례는 6박7일 일정이며, 출발은 11월 25일입니다.

문의는 불교방송 전화 705국에 5301번에서 2번입니다.

- 동 참 금 : 1,320,000원(6박 7일)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 보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비자비등
- 신청마감 : 출발 10일전
- 출 발 일 : 11월 25일 (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불교방송 전화 705-5302,
또는 019-9731-7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BS 불교방송 www.bbsfm.co.kr 불교방송 문화사업단 연락처 02-705-5302

오체투지(상)

최현숙(서울 서초구 양재동)



그림 · 문병성

딸 수능시험 전 회향 목표로 십만배 발원
퇴근 후 매일 1천배씩 2시간 넘게 절 삼매
"언젠가 지금 흘린 땀 의미 알게 될 거야"

올 여름에 가까운 도반으로부터 한경혜 씨의 신행수기 <오체투지>를 선물 받았다. 신체장애인 한경혜 씨는 일곱 살부터 20년 동안 매일 1천배를 계속해왔지만 자신의 몸이 나아지지 않자 더 어려운 수행을 결심했다. 백일동안 매일 만 배씩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 결과 놀랍게도 몸이 더 건강해지고 정신력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오체투지>는 그 기도 과정과 어릴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수기 형태의 수필집이었다. 책을 읽고 나서 그동안 초발심 때의 간절한 마음을 잃고 세월 가는대로 그럭저럭 지내던 내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수행을 통해 더 고양된 자아를 완성하겠다는 욕구가 새롭게 났다.

특히 책 속에 나왔던 '인생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절이 인상적이었다.

'인생에서 언젠가(Some day)라는 말은 없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하라.'

그 책을 끝까지 읽은 그날 밤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방석을 펴고 앉았다. 당장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부처님 명호를 암송하며 한 번 씩 절하기 시작했다. 밤 10시에 시작한 절은 꼬박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천배를 채울 수 있었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새로운 결심이 섰다. 절에 가서 입재도 올리지 않고 시작한 기도지만 회향은 제대로 해야겠다고 작정했다. 작은 딸이 대학수능입시를 치르는 11월까지 1만 부처님의 명호를 암송하며 총 십만배를 오체투지하겠다는 발원은 그렇게 세워졌다. 절을 처음 시작한 날은 2006년 6월 16일이었다. 회향 예정일은 수능시험 바로 전 일요일인 11월 12일로 잡았다.

절을 시작한 시기가 한여름이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때라서 밤이 되어서도 더위는 가실 줄을 몰랐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절을 하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머리, 목덜미와 법복 속의 종아리에도 땀이 흐르고 속옷은 금방 땀으로 푹 젖었다. 행여 몸이 젖은 상태에서 감기 들까봐 에어컨은 끄고 창문을 연 채 선풍기만 켜고 절을 했다. 찌는 듯 한 더위로 땀범벅이 된 채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움직이니 발끝, 종아리, 발목 관절 마디마디에 심한 고통을 느꼈다. 700배를 마치면 밤 12시를 훌쩍 넘었다.

그렇게 절이 끝나면 뜨거운 물로 머리부터 샤워를 했다. 평소에는 그렇게 싫었던 더위였는데, 일념으로 매진하다보니 크게 더운 줄을 몰랐다. 더위를 느낄 틈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무엇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을 더 못 견디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비로소 올 여름, 더위를 좋아하진 않더라도 혐오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희망을 품고 있으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희망 속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매일 밤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 시간까지 그림 그리고 있을 작은딸의 미술학원으로 차를 운전해갔다. 큰 딸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직 20살인 작은딸은 미술대로 진학하기 위해 매일 밤 12시가 넘도록 화실에서 그림에 매진한다.

나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며 두 딸을 키우는 경제적, 정신적 가장이기 때문에, 매일 2시간 30분씩 시간을 내서 절을 하기도 시간이 빠듯했을 뿐 아니라, 직장을 다녀와서 녹초가 된 몸으로 절을 하는 것도,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공부방을 운영 중인 나는, 처음에는 수업이 끝나고 난 뒤 근처의 사찰을 찾아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사찰조차 문을 닫는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만의 공간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었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돌아간 공부방의 문을 잠근 뒤, 준비해 온 법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한 구석에 방석을 놓은 뒤 한배 한배씩 절을 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 곳, 이 자리에서 길(道)을 찾는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절을 끝내고 나서 차를 운전해 작은딸의 학원으로 가는 길은 하루의 피로 때문에 늘어지고 싶은 욕구와의 싸움이다. 만일 절을 안했다면 집에서 TV를 켠 채 누워서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며 딸애의 학원이 끝나기만을 무료하게 기다렸으리라.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절을 계속해 나갔다.

2년 전 작은 딸은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환경 디자이너'를 장래의 직업으로 택했다. 그 뒤 처음으로 미술 학원을 다니며 1년 반 정도 배운 그림실력으로 한 대학의 의상디자인과에 합격했다.

뒤늦게 진로를 정해 실기 공부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 시험 때까지 실기실력이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의상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은 같은 디자인이지만 활동하는 분야가 전혀 다르고 나 또한 딸의 능력을 아끼기에 아깝지만 일 년 더 노력하고 재도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많은 재수생들이 그렇듯, 재수 1년은 고등학교 3년 전부를 합친 것 만큼이나 힘들다. 그림 실기수업까지 하니 더욱 그렇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됐다. 그러나 나는 딸에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시련을 견디고 한 번 더 도전할 기회를 갖는다는데 큰 의미를 갖자"며 "일 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셈치고 재수를 같이 하자"고 다독였다.

아이를 데리러 학원에 가는 길에 차 속에서 BBS(불교방송)의 '살며 생각하며'를 듣는다. 조용하고 사색적인 진행자의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와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청취자의 가지가지 사연을 듣는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귀가중이거나 아니면 막 집에 도착해서 하루 겪은 일로 마음이 산란할 때 위로를 받기 위해 전화했다는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보면 나 역시 힘들게 마감한 내 하루를 돌아보게 된다.

집에 돌아오면 난 도시락 설거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지만 딸은 다시 책상에 앉는다. 비록 피로에 찌들고 힘들지만 딸에겐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꼭 간다는 자기만의 꿈이 있다. 나는 딸의 모습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희망을 엿본다.

'꿈이 있는 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던가. 언제나 두 아이들에게 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길러왔기에,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지금 흘린 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탈종공고

● 사찰명 : 보현정사
● 주 지 : 정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56-6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법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학 24기 · 대학원 5기)

[행자] 불교대학
● 불교학과 : 6개월
불교예절, 불교교리, 경전공부, 천도재 불교의식, 포교철학, 예불모시는 방법, 시식방법

[스님] 대학원
● 법사·승려과 : 종합반(6개월)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법사가 되고자 하는 분 경전공부, 예불의식, 각종재의식, 각종행사집전

◆ 접 수 : 수시접수
◆ 개 강 : 11월 15일
◆ 교육시간 : 금, 토, 일(오후 1시부터 5시까지)
◆ 교 재 : 학장스님께서 출간한 통용불교의범과 통용재례의범
◆ 수 료 시 : 졸업증서, 법사자격증, 포교상담자격증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 2동 고황산 산하 외국어대 후문 뒷산
◆ 오시는길 : 1호선 외대역 하차 → 외대앞 마을버스 승차 → 삼성아파트 정문하차
◆ 연 락 처 : 호국불교 효예종 총무원 02)963-0607 H.P 017-361-0386
법왕불교대학 교무처 02)966-5523 / FAX : 02)966-0386
◆ 수강생특전 : 친필 달마도 증정, 특별친견(고민상담)

「본 대학 졸업하면 더 이상 배울 것 없음」

학장 신 법 진 합장

귀족불교에서 민중불교로 가는 전환기 반영

불화 속의 명장면 (18)

설법인 보살형 노사나불의 출현(하)



그림1 : 설법하는 노사나불, 송대 범망경보살계본 사경화, 교토대학부속도서관소장 다니무라 문고

화엄탱 팔상탱 삼신탱 등에 설법인 보살형으로 등장
설법 시작 순간 대중의 소원 들어주는 신적 존재로
고려후기 '범망경' 사경화 등에서 보이기 시작

조선후기 화엄탱, 팔상탱 속의 설법하는 노사나불

자비로운 행동(菩薩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莊嚴).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갖가지 꽃(華)으로 장엄(莊嚴)한다' 라는 <화엄경(華嚴經)>의 의미입니다. 어렵게 말하자면, '불성(佛性) 또는 해인삼매(海印三昧)를 증득한 법신(法身)의 과보를 장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강팍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남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주변을 부드럽고 따듯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엄 행위라면, '보살행'이란 그리 심오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을 듯합니다.

태양빛이 우주를 가득 비추어 밝히고 만물을 성장케하듯, 부처님의 신묘한 작용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여 중생의 갖가지 요구에 응답해 자유자재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화엄삼매'라고 합니다. 즉 '태양' 그 자체가 법신(法身, 해인삼매의 경지)이라면 '빛'은 보신(報身, 화엄삼매의 작용)입니다.



그림2 : 노사나불, 선암사 화엄탱 부분, 1780년

누군가에게 넉넉하고도 자비로운 마음을 받을 때는 마치 따사로운 햇살 속에 있는 듯 하지요. 내가 받은 햇살로 나는 또 다른 이를 비추고, 다른 이는 이 햇살을 받아 또 다른 이를 비추어 세상을 따듯하게 하겠지요.

<화엄경> 내용을 구성하는 경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 유일하게 산스크리트본이 남아있는 두 경전이 '십지품'과 '입법계품'입니다. 십지품은 '보살수행의 열가지 단계적 경지'를 말한 것이고,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보살행과 보살도를 닦는 방법을 구하는 여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즉 '보살행'의 단계와 수행방법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노사나보살'(불소상광명공덕품) '비로자나장보살'(입법계품)이라는 구체적인 명호가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명칭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화엄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사상이 '불성이라는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설명'과 '이에 도달하기 위한, 또는 이를 장엄하기 위한 보살행'이라는 것을 숙지한다면, 그 조형적 표현으로서 '설법인 보살형 노사나불'에 대한 이해는 그리 어렵지 않은 듯합니다.

<화엄경>은 경전 속에 설해진 설법의 장소와 횟수를 중심으로, 전체 80권이 총 7처 9회로 나뉘어 설명됩니다. 바로 이 7처 9회의 설법의 주인공(說主)은 보현과 문수를 필두로 한 여러 보살님들입니다. <화엄경> 7처9회를 도해한 그림이 바로 조선후기 유행한 화엄탱이고, 이 화엄탱에는 설법하는 설법인의 보살(그림2 선암사 화엄탱 부분, 1780년)과 청중 보살로 가득합니다.

'설법인의 보살형' 형식을 취한 노사나불 존상은, 지난회(연재17)에서 언급했듯이 조선후기 괘불탱의 주된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화엄탱' 및 '팔상탱'에도 필히 등장하는 존상입니다. 삼신탱(법신 비로자나 · 보신 노사나 · 응신 석가모니의 삼신을 그린 불화)의 '노사나불탱'은 물론이겠고요. 팔상탱(석가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불화)의 경우,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에서 어김없이 이 설법인의 보살형 노사나불이 등장을 합니다(그림3 해인사 팔상탱의 녹원전법상 부분). 바로 이 장면은 석가모니가 득도 한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법(初轉法輪)하는 역사적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지난회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심을 내어 설법을 시작한 이 순간, 석가모니는 더 이상 역사적 존재로서의 한 인물이 아니라 대중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신적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불교는 개인적 수행과 연마의 '자기철학'에서 민중을 구하는 하나의 '종교'로 승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 성불을 위한 소승적 목표와 민중구제 및 교화의 대승적 목표를 한꺼번에 지닌 존상을 '보신(報身)'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신은 수용신(受用身)으로 자수용신(自受用身)과 타수용신(他受用身) 양자적 의미를 모두 갖춘 존재라고 정의됩니다. 자수용신이란 '수행의 결과로서 얻은 불과와 자내증의 법문을 스스로 수용하여 즐기는 부처', 타수용신이란 '그 깨달음의 결과와 법문을 다른 사람에게 수용시켜 교화하여 지도하는 부처'입니다. 이 타수용신의 대표적인 부처님으로 가장 인기있었던 아미타여래과 약사여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적 존재로서의 보신 노사나불의 의미를 절묘하게 표현해 낸 것이 연재 1에서 소개한 일본 십륜사소장 조선전기 '오불존도(五佛尊圖)'입니다.

삼신불과 보신삼불(報身三佛)이 교차하는 십자형식의 특이한 구도 가운데에, 설법형 보살형의 보신 노사나불을 위치하도록 배치하여 이 양면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낸 역작입니다. 즉 이 보신 노사나불 존상 하나에, 삼신의 의미와 세상에서 추존되는 다양한 여래 및 보살를 통합하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3 : 석가모니부처님 첫 설법 장면, 해인사 팔상탱 녹원전법상 부분, 조선후기.

이 설법인의 보살형 노사나불은 고려후기 <범망경> 사경화 등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중국 송나라 사경에도 유사한 형식(그림1 송대 <범망경보살계본>, 교토대학부속도서관소장 다니무라 문고)이 보여 그 관계를 짐작케 합니다. 물론 이 노사나불 도상은 <범망경>과 함께 중국 및 일본 등지에서도 유행하지만, 고려말 조선전기에서 특히 <원각경>의 주존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범망경> <원각경>은 <화엄경>의 축소판 또는 <소화엄경>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근본 사상은 <화엄경>을 지향합니다. <범망경>의 정식 명칭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보살이 지녀야할 계율을 설하고 보살 정신의 실천으로 중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범망(인드라의 그물망)으로 건진다는 내용입니다. <원각경>에는, 설법의 주체인 석가세존이 12보살들과의 문답을 통하여, 먼저 원각(圓覺)이라는 대원(大願)에 대한 설명하고 중생의 근기에 맞춘 구체적 수행 방법을 제시합니다.

경전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범망경>을 설하는 주인공은 노사나불이니, <범망경> 사경화 등에 노사나불이 묘사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원각경>의 설법 주체는 석가세존인데 어째서 <원각경>관련 불화에는 주존이 노사나불로 표현되는 것일까요? 설법하기 시작한 석가세존은 바로 '수용신' 즉 '보신'으로서 그 덕호를 보인 것이라는 사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전기 세종 및 세조 시기를 기점으로 회통과 융합의 대명사로서 자리잡게 된 '설법인 보살형 노사나불'은, 고려의 귀족불교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조선의 민중불교로 가는 대대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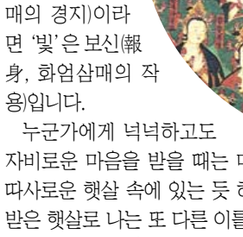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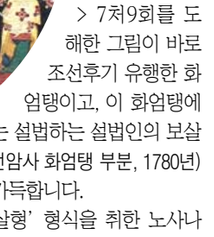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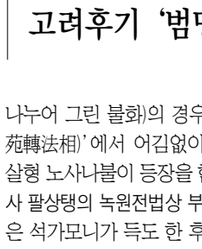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